금주법구
거룩한 신심이여, 수행의 으뜸이고
착한 마음 길러내는 공덕의 어머니네,
한 타래 의심 줄기, 애욕의 끄나풀을
뿌리채 뽑아주고 열반길 열어주네.
-회엄경 현수품-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삼선동
실상선원
041)734-2680
천축사
대한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2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308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낙동강 따라 구도순례

낙동강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대불청 부산지구, 회장 황국근)가 '낙동강 따라 구도 도보순례'를 계획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게다가 단순히 맑은 물을 지켜내겠다는 환경운동을 넘어 청년들의 구도심 발현과 침체의 늪에 빠진 청년불자들의 조직 재건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도보순례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진다.

대불청 부산지구는 다음 달 31일 부산불교회관에서 입재식을 갖고 4월 1일부터 내년 부처님 오신날 전야까지 강원도 태백 황지에서 을숙도까지의 520km를 도보로 순례하게 된다. 매주 첫째 일요일마다 20여명의 회원이 40km를 걷는 방식으로 13차례의 도보행진을 펼치게 되며 황지못에서 장성 와룡면 안동 왜관 대구 위천 현풍 남지 삼랑진 구포 등의 지방도와 국도를 걸어 내년 부처님 오신날 전야에 을숙도에 도착해 전야 행사를 갖고 회향하는 대장정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해 불교의 생명관, 자연과 환경, 낙동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회별로 2명씩의 회원을 동참시켜 조직을 재건하고 청년불자를 환경운동의 주체로 우뚝 서게 하겠다는 부산지구의 도보순례 계획은 듣기만 해도 귀가 솔깃하다. 또한 이번 도보순례가 부산지구 차원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도보기간 중 다른 지구와의 연대를 통해 전국 청년불자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어 청년불자들이 전법과 포교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는 복안도 펴보인다.

지난 23, 24일 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대불청 부산지구의 도보순례는 열반의 순간까지 전법의 길떠남을 멈추지 않았던 부처님의 길고 긴 여정을 연상시킨다. 전법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부처님을 닮고자 발원한 대불청 부산지구 청년불자들, 그들의 고된 발걸음으로 다져질 구도심이 물이 없는 광야에 생명수인 팔공덕수를 제공하는 우물이 되고, 침체된 청년불교에는 생명의 샘물을 붓는 큰 발걸음으로 회향되길 기대해 본다.



천 미 희
〈부산 주재기자〉

장-군-죽-비

◇3월 2일은 부처님 출가하신 날. '나'라는 '아집의 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곧 출가. (6면)

◇日 역사 왜곡,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조금씩 가라앉는 일본열도, 틈귀신이 되어 앙심도 가라앉히는가. (8면)

◇내년 대선 앞두고 정치인들 불교계에 추파. 사분은 인천(人天)의 스승, 왕에게도 절하지 않는 전통을 기억하시길…. (9면)

◇도올 김용옥을 향한 비판 봇물 터지다. '노자'가 싫어하는 입만 골라 하니까 노자가 '노'하지. (15면)

방생문화 바뀐다

물고기 놓아주기式 '이젠 그만'
생태-인권-생명 연계 행사로

조계종 '방생자료집' 배포

'산 것을 놓아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한다'는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생행사가 신행의 새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생명나눔실천회 실천불교승가회 등은 방생의 본뜻을 되살려 억압과 질곡에 빠져있는 온갖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 방생의 영역을 확장하여 생태, 인권, 나눔, 사형수, 위안부, 장기수, 장기기증, 헌혈 등을 방생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생 방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물고기 풀어주기 위주의 방생 행사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동안의 방생은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풀어주면 복을 받는다는 행사로 인식돼 왔으며, 환경파괴 행위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명조)은 20일 새로운 방생법을 제시하는 '환경 인권 생명 방생 프로그램 자료집'을 발간, 사찰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문의 02-720-7064) 포교원은 160쪽 분량의 '방생 프로그램 자료집'을 통해 환경 · 인권 · 생명 등 3개 주제로 방생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방생과 관련한 경전 자료도 함께 실어 법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환경방생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했다. 1단계에서는 방생지 주변의 산과 강, 바다 기행과 체험 행사를 통해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 이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수중 생태계 보존과 생명 유지를 위한 생물습성과 방생 후 영향 등의 전문지식을 인지한 후 방생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3단계 방생 후에는 환경정화, 이웃돕기, 헌혈 등의 회향행사도 곁들이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권방생은 기존의 수중생물에 국한한 방생 대상을 인간에까지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방생형태. 대상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양심수 사형수들이 대표적이다. 사형수 방생의 경우, 방생지를 교도소로 선정하여 사형제 폐지 발원문 낭독, 불살생과 사형제에 대한 법문,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류방생의 순으로 진행한다.

생명방생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함께 체득하는 이점이 있다. 장기기증, 헌혈법회 등도 실천방법 중 하나이다.

포교연구실 김관태과장은 "방생의 개념과 실천항은 환경과 인권, 생명을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돌아온 성보 12년 전 도난당해 여기저기를 떠돌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게 된 지장보살좌상, 관음보살좌상, 금동보살좌상(높이 25~35cm). 지난 71년 무량사 5층석탑 탑신에서 발견돼 충남도 유형문화재 100호로 지정됐다. (관련기사 23면)

"한라산 케이블카 위원회 구성 검토"

환경부, 조계종에 회신

환경부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의 철회를 요청하는 조계종의 공문에 대해 19일 회신을 보내 "케이블카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시민단체 · 학계 · 관계전문가 · 환경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자연공원과 전성렬 사무관은 "위원회는 한라산을 비롯한 공원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공원위원회의 심의, 환경부 최종 결정의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승인 여부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3·1절 온겨레 손잡기 행진

불교 등 7개 종교 '화해 · 평화의 날' 선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7개 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 손잡기운동본부'(상임공동본부장 정대스님 외 6인)는 3.1절 82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에서 '2001 화해와 평화를 향한 온겨레손잡기 운동' 행사를 연다.

'겨레에게 새 희망을'이란 주제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의 대회사와 화해와 평화의 날 선언, 청소년 평화요원 21세기 행동선언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 고 이수현씨와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에 대한 화해와 평화상 시상식도 갖는다.

운동본부측은 화해와 평화의 날 선언문을 통해 "정치권은 여야를 뛰어넘어 겨레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의 정치를 열어 가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겨레의 화합과 21세기 도약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7개 종단연합 풍물패의 길놀이와 전통문화공연 등 식전행사와 본행사에 이어 5천 여명의 참가자들이 대한문까지 '희망의 손잡기 행진'을 벌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지역불교 문화기행

97년부터 현대불교는 불교테마여행, 불교문화체험학교,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개최하여 열띤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문화관광부가 정한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차(茶), 꽃(花), 도자기 등을 주제로 한 지역문화 축제와 연계한 '지역불교문화기행'을 엽니다. 지역의 불교유적을 답사하며 신심을 키우고 지역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3월: 남도 동백꽃에 묻힌 산사- 대둔사, 미황사, 백련사(무박2일)
- 4월: 영취산 진달래 맞이 순례- 흥국사, 송광사, 선암사(무박2일)
- 5월: 차(茶)문화축제 기행- 화개 차축제 현장 관람, 쌍계사, 칠불암, 다솔사(무박2일)
- 6월: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고성 통일전망대, 건봉사, 신흥사, 낙산사(무박2일)
- 8월: 신라 불교 문화의 현장을 찾아서- 감은사지, 기림사, 불국사, 석굴암(무박2일)
- 9월: 무안 연지(蓮池)를 찾아서- 무안 방죽, 내장사, 백양사(무박2일)
- 10월: 대둔산 축제 현장으로- 대둔산 축제 관람, 봉서사, 완주 송광사, 위봉사(1일)
- 11월: 백제불교를 찾아서- 부소산성, 정림사지, 관촉사, 고란사, 개태사(1일)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3월 지역불교문화기행은 24~25일 개최되며 자세한 안내는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주 최: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한화여행 이글스투어

비지정 문화재 절취 · 은닉자 2년이상 징역

문화재법 국회상정

문화재절도범들의 집중 표적이 됐던 비지정문화재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이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취득, 운반뿐 아니라 양도 및 양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에서 요구한 '공소시효 연장'과 '보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은 법무부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관련기사 3면)

개정법률안에는 이밖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이를 등록해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지도 · 조언 ·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되기 전 훼손과 도난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관련 부처의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포, 시행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一心佛院
각종 불사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단집
02-725-2030 / 725-2040



사 설

나눔의집 운영 지장없게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이 함께 일했던 간사와 성관계를 갖고 고민해 왔다는 양심고백을 접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던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스님의 모습을 많은 불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일을 하는 한 가운데에 혜진스님이 있음을 듣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 스님의 행위였기에 불자들은 더욱 놀랐으며, 실망 또한 클 수밖에 없었다.

양심고백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후원을 끊겠다는 사람도 있으며, 위안부 역사관의 방문을 취소하는 일도 있다는 소식이다. 스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혜진스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판을 나눔의 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를 만들려 노력했던 일들까지 의심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 혜진스님을 옹호하려는 말이 아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터로 계속 있을 것이고, 위안부 역사관 역시 아픈 역사를 교훈으로 삼는 교육장으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 나눔의 집 이사회에서 곧 회의를 열어 후임 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불자들은 물론 국민의 관심사인만큼 청정하고 능력있는 분을 모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

우리는 이번 일을 접하며, 다시 계율의 지중함을 아프게 깨닫는다. 지계는 스님들이 생명처럼 받드는 것이며, 이로 인해 불자들은 물론 세인의 귀의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범망경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다고 했다.

여성단체에도 한 가지 당부하고 싶다. 혜진스님의 양심고백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위계관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인권을 가장한 또다른 인권폭력이라는 지적에 귀기울이기를 바란다.

종조의 화합정신 살리자

내분이 심화되고 있는 태고종이 점입가경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 총무원장이 둘이 되더니 결국 총무원이 또 하나 생길 모양이다. 우리는 조계종 분규사에서도 한 종단안에 두 총무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청정하고 탈속적이어야 할 승가단체에 세속의 감투싸움과도 같은 두 개의 총무원과 두 명의 원장은 세간의 조소 대상일 뿐이었고 시간 낭비, 정재 낭비 그리고 종단역사를 뒷걸음질치게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아픈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런데도 태고종은 그 전철을 밟을 모양이다.

이번 분규가 태고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세칭 '7인방' 스님들의 대립과 갈등 때문에 심화되고 있다는 세간의 평대로라면 결국 이번 분규는 이들 스님들이 풀어야 한다. 20여년 동안 태고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던 그 애종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파국으로 가는 길만은 막아야 할것이다. 양보를 상대방에게만 요구한다거나 강경 일변도로 나갈 경우 결국 맞부딪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태고종단 자신이다. '7인방' 스님들은 조계-태고 분규로 가장 종단이 어려웠던 70년대 초 종단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던 그 초발심을 상기해주길 바란다.

21세기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승교화종단을 자부하는 태고종이 할 일은 태산이다.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왜 일어나야 하는지 이유도 불분명한 이러한 분규를 장기간 지속해 그나마 있는 힘을 소모한다면 태고종의 앞날을 위해 큰 불행이다. 올해는 마침 우리나라 불교사의 큰 봉우리였으며 한국불교를 중흥한 태고보우스님의 탄신 7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태고보우스님은 고려 말 5교 9산으로 난립하던 여러 종파를 회통하여 '구산원융 오교홍통'을 꾀한 분이다. 난립하던 여러 종단을 하나로 화합 회통시키고자 했던 보우스님을 종조로 하는 태고종이 탄신 7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그 분의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지는 못할망정 극한 대립으로 분규를 장기화한다는 것이 될 말인가. 태고보우스님의 원융화합정신으로 분규를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화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군승단 한시 해체 '파문'

3군체제 전환…조정·중재·협의 채널 공백

32년 동안 군포교에 매진해온 육해공군 군승단이 한시적 해체를 결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군승단은 19일 호국원광사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군승단 운영체제를 한시적으로 국방부 및 각군 체제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군승단 집행위원회와 대의원회, 선임법사회가 해체됐고, 군내에 발생하는 종교편향 등 여러 사건들에 대한 조정·중재·협의 채널이 사라지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 집행부 선출과 〈법회와 설법〉 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해군·공군 법사들이 각 군별로 군승단을 조직하자고 주장해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41대, 반대 38로 군승단의 한시적 해체가 결정됐다. 해군·공군 법사들은 그 동안 육군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군승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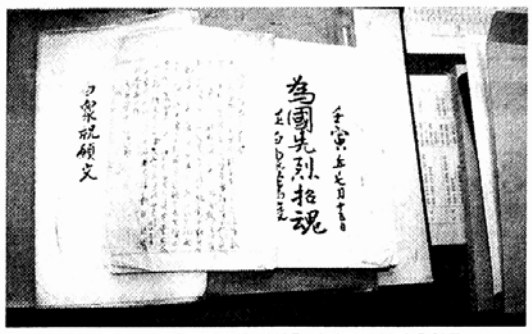
총인원 114명 가운데 88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또 군불교위원회 설치 문제와 〈법회와 설법〉 기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한 군승단 집행부의 사표도 추인했다.

국방부 정선진 선임법사는 "군승단 해체를 반대했지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해 군승단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원은 군승의 효율적 포교활동 및 수행을 위하여 군승단을 설치한다'고 명시된 군승령 7조를 근거로 군승단 해체는 군승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군승단은 군의 합법적인 조직이 아니라 임의조직으로 종단이 필요에 의해 만든 군포교 전담 기구종단이다.

포교원 포교국장 주경스님은 "최근 입대전 군승교육 실시하는 등 군승단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 당혹스럽다"며 "28일까지 국방부 선임법사와 각군 선임법사들에게 임시총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두식 기자



◇이종욱스님의 독립운동 사실을 밝혀주는 친필 축원문.

"이종욱 스님 김구선생 만났다"

동명사서 항일운동 자료 3점 발견

대동단 활동 기록…친일시비 가려질듯

조선불교조계종 초대 종무총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이종욱스님(1884~1969)의 친필 '위국선열초혼문' '대동단 활동의 동기' '백중축원문'이 발견돼, 구체적인 기록과 물증이 없어 친일파로 분류 될 위기에 있던 스님의 독립운동 사실을 재조명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조계종 불학연구소 박희승 연구원이 이종욱스님의 말년 주석처였던 주문진 동명사에서 발견한 스님의 '위국선열초혼문' '대동단활동 동기' '백중축원문'에는 김구선생이 광복직후 귀국한 이후에 서울 진관사로 스님과 이시영 선생을 불러 만남을 가졌다고 술회한 내용이 수록돼 있어 스님의 행적을 가늠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사학자들은 '비타협적 항일민족주의자였던 김구선생이 이종욱스님을 만나지 않은 것은 스님에게 친일성향이 있어서였다'고 주장해왔다. 국가보훈처도 일부 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97년 이종욱스님의 공결흠결 협의가 있다며 조계종에 공식적인 의견을 의뢰한바 있다.

초혼문에는 안창호, 김가진, 김구, 전협, 정남용, 전진원, 이상재 선생, 무명의 이예국, 이옥선, 이병규, 이병호, 이기만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 했던 사연을 기억해내며 79세의 노스님이 직접 백중천도의식을 행하는 추모의 마음이 담겨있다.

또 안창호선생이 상해에서 이종욱스님에게 국내에 잠입, 독립운동조직인 연통제조직을 부탁하는 광경을 회상하는 내용과 대동단 총재 김가진을 스님이 직접 국내에서 탈출시켜 상해로 안내한 사연, 철도기관사였던 전진원이 임시정부의 각종 비밀문서, 자료, 물품 등을 스님에게 전달하는 광경이 묘사돼 있다.

이와 함께 이종욱스님이 조계종 종무청장으로 재직하던 1944년 유석현 강태동등과 비밀항일결사에 참여한 것으로 최근 밝혀져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원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은 "일방적 친일로 매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항일운동 기록이 발견된 만큼 스님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두 총무원 조짐

총무원-종회 서로 입장차이 못좁혀

내분이 장기화되고 있는 태고종의 현 총무원측과 종회측이 19일 만났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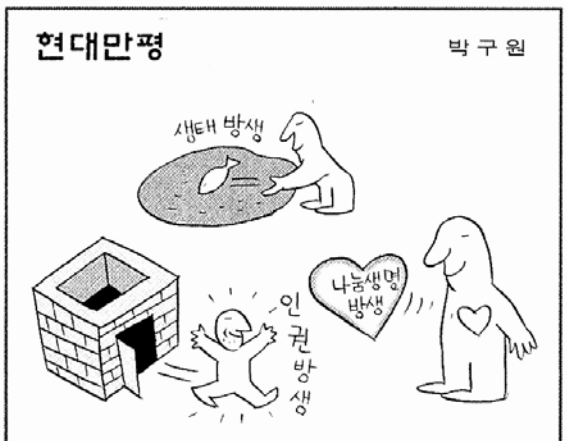
또 13일 임시종회에서 신임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법장스님은 2월 14일자로 '총무원장 직인무효' 공고와 총무원장 취임인사를 교계 신문에 내, 태고종의 양 총무원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종회의장 남파스님과 부의장 대운스님, 법장스님, 자월스님 등은 19일 성북구 총무원사를 찾아 종연스님에게 인수인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종연스님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계속 총무원장직을 수행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태고종 보현도량(회장 무불)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종단을 현 시점까지 몰고 온 현 총무원장 종연 스님측과 운산 스님측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모든 직함에서 사퇴하고 종단 관계 모든 일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면서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식 임시종회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다양하게 바꿔보자



승가대 김포 첫 졸업식

중앙승가대학(총장 종범)은 20일 김포학사에서 첫 졸업식을 갖고 79명의 학인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했다. 총장 종범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항상 구도자적 삶을 견지하여 많은 이들에게 생존이상의 의미를 느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정진하길 바란다"며 "언제나 법왕의 법손으로서, 선지식의 후예로서 이 사회 등불의 자리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내달 20일 종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21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150회 임시종회를 3월 20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교육원장, 포교원장 선출 △불기 2544년 중앙종무기관 결산 승인 △종헌 개정, 종법(법규위원회법 종립학교관리법) 개정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제출한 영축총림 방장 재추대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세계·국민일보 훼불사건 불교NGO연대 사과 촉구

훼불사건에 대해 불교 NGO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실천승가회 재가연대 중앙신도회 대불청 대불련 불교여성개발원 조계사청년회 등 교계단체들이 최근 발생된 세계일보와 국민일보의 훼불사건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단체들은 21일 참여불교재가연대에서 열린 '국민일보, 세계일보의 불교음해 공작을 막기 위한 불교제단체 연대회의(가칭)'에 참석, 세계일보사가 발행한 별지 '영계리포트'와 국민일보에서 연재한 '김성일 창조사학 특강'을 명백한 훼불행위로 규정짓고 공식사과 요청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불교단체들은 정식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22일 두 신문사에 접수했다. 김재경 기자

태고종 제80회 임시중앙종회 개최에 대하여 종도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종도 여러분께서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로얄호텔 회의실에서 임시종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번 임시종회를 두고 종단 일각에서 불법종회 운운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정당한 종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종회의 입장에서 종회소집과 장소변경 그리고 결의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종회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혀드리오니 종도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 임시중앙종회 개최 배경

지난해 11월 23일 정기종회에서 송종연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자 법계 등 총무원장 후보자격문제와 제척사유(除斥事由) 등 회의 운영상의 하자(瑕疵)문제, 외도(外道)활동과 삼보재산 헌납문제, 선거운동과정에서의 금전살포(金錢撒布)문제 등 송종연 스님에 대한 각종 의혹(疑惑)을 제기하는 청원서가 대본산 사찰인 봉원사로부터 종회에 제출되었으며 종회운영분과위원회가 약 2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종회의원 28명의 임시종회 소집요구에 의하여 총무원장 자격유무를 규명(糾明)하기 위하여 제80회 임시종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송종연 스님측에서는 총무원장의 동의(同意)를 받지 않았으니 이번 종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회법을 곡해(曲解)하는데서 나온 잘못된 주장입니다. 종회법 제24조 2항을 보면 종회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종회를 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열어도 되고 안열어도 그만인 임의(任意)규정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열어야 하는 강제(强制)규정으로 총무원장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종회를 열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총무원장의 동의가 없어 종회를 열 수 없다면 삼권분립(三權分立)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부수적인 소집절차(제25조)에 의해 필수적인 소집요건(제24조)이 사문화(死文化)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의 경우 중정·총무원장의 동의가 없어도 종회소집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

또한 이번 종회는 총무원장의 자격문제를 다루는 종회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자신과 상의하여 종회를 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미 지난 2월 1일 김대운 종회부의장이 종회의장을 대리하여 총무원을 방문해 2월중 조기(早期)개최를 통보하고 종회의장 직인(職印)인계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해 놓고 이제와서 총무원장의 동의규정을 내세워 적법한 종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2. 임시중앙종회 장소변경의 불가피성

원래는 2월 13일에 개최할 종회장소를 선암사로 공고(公告)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이번 임시종회를 반대하는 송종연 스님측에서 종회의원들에게 공문 또는 전화를 통해 이번 종회가 불법종회이니 참석하지 말라며 종회불참을 적극 유도(誘導)하였으며, 버스 3대를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종회를 방해할 계획이니 종회장소 제공을 취소하라며 선암사 주지에게 여러차례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에 선암사 주지는 양측의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종단이 분열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어 분규사찰인 선암사의 종권수호가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산문(山門)을 굳게 폐쇄하는 바람에 예정된 선암사를 포기하고 불가피하게 호텔에서 종회를 개최하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회에서는 가능한한 당초에 공고되었던 선암사에서 종회를 하고자 의원들이 이동할 버스를 대절해 놓고 선암사 주지와 여러차례 전화접촉을 갖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엔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송종연 스님측에서는 적법하게 소집된 종회를 이처럼 방해해 놓고 호텔에서 종회를 개최한데 대하여 장소변경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장소변경 고지에 관계없이 성원이 된 종회는 합법이라는 판례가 있음)

당시에 일부 종회의원(5, 6명 정도)이 선암사에 도착해 있었으나, 이중에서 한두명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종회참석이 아니라 오히려 종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회개최를 방해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장소변경을 고지(告知)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번 종회는 모든 안건을 27명 전원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議決)하여 선암사에 있었던 종회의원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 결의자체에는 아무런 변화나 영향을 미칠수 없었습니다.

3. 임시중앙종회 의결(議決) 내용

전기한 바와 같이 재적의원 49명중 27명이 참석한 이번 종회는 먼저 사무처에서 종회장소 변경에 따른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종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장소변경을 결의한 후 유남파 종회의장의 사회로 오전 11시경에 개회(開會)하여 먼저 제척사유 등에 관한 시행안을 처리한 다음 종회운영분과위원회가 조사한 청원서 처리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송종연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취소를 의결하고 김법장(金法藏) 스님(수원 대련사 주지)을 새로운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새로 선출된 김법장 총무원장은 일본 대정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학승(學僧)으로 사정원장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종회부의장을 맡아 왔으며, 온화하고 원만한 성품으로 지도자의 자질을 두루 갖춘 훌륭한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첨언(添言)한다면 이번 총무원장 선출과정에서 많은 종회의원들이 그동안 총무원장 적임자로 주목(注目)받아온 이운산(李雲山) 스님을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종단의 화합을 위해 총무원장으로 나서지 않겠다"며 강하게 고사(固辭)하는 바람에 김법장 스님을 새 총무원장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송종연 스님이 총무원장 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종회에서는 종회 다음날 총무원에 공문을 보내어 종회결과를 설명하고 신임 총무원장에게 빠른시일내에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송종연 스님은 이번 종회가 무효라며 인계 인수를 거부하면서 종회를 다시 열면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겠으니 그때 총무원장 선거를 다시하자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성한 종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처사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송종연 스님은 종회전에 여러사람 앞에서 이운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나오지 않으면 자신이 솔선해서 사표내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하였는 바, 이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된 만큼 계속하여 버틸 이유도 명분도 없으므로 하루 빨리 이성(理性)을 되찾아 신임총무원장에게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여 종단을 정상화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제 우리 종단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종단은 지금 매우 어렵고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으로는 종도의 종단관이 이완(弛緩)되어 구심력(求心力)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밖으로는 신생종단의 도전에 직면하여 전통(傳統)종단의 위상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때에는 철학과 능력을 가진 사심(私心)없는 지도자가 나와 종단을 개혁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동안 종단요직은 물론 부대(附帶)사업까지 장악하여 실리(實利)를 챙겨온 사람들, 아직도 자기만이 최고인 것처럼 위선(僞善)과 착각(錯覺)에 빠져 오만(傲慢)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과감히 청산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모든 종도들은 개인적인 친소(親疎)나 정실(情實)에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종단을 위하는 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총무원장 선거가 효시(嚆矢)가 된 이번 종단사태가 어디에 원인이 있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깊이있게 성찰(省察)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종단을 농단(壟斷)하려는 불순한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도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종단을 살리고 종도를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감히 강조하면서 종도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 의장 **유남파** (종회 당시) 중앙종회 부의장 **김법장** (종회 당시) 중앙종회 부의장 **김대운**

목어

노자와 공자를 반기며



"심심풀이 땅콩이라 생각하고 〈노자를 웃긴 남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며 어느 분이 권하셨다. 요즘 노자, 공자 등 동양고전 붐의 중심에는 도올 김용옥씨가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저자는 도올을 '웃기는 남자'라고 마구 몰아대고 있다. 노자 〈도덕경〉에 대한 도올의 해석이 황당할뿐더러 TV에서의 강의 태도 또한 마뜩찮다는 clouds(저자 이경숙씨의 인터넷 ID)는 그 도올의 강의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책을 썼다고 한다.

"도올의 강의 가지고 얘기하는데 심각하거나 진지할 필요가 있나 싶고, 뭐 학술적인 격식까지 갖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서문에서 밝힌 저자가 '진짜 골 때리는 쇼' '무식하면 부지런하지나 말아야지' 등 인터넷 채팅 언어로 쏟아내는 그 거친 '입심'이란…. 그런 입심으로만 따지면 구름(clouds)씨가 도올 선생에 비해 단연 한수 위로 보인다.

그 동안 동양학계에서는 TV 도올 강의에 대한 얼마간의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다 이번에 영문학자 서지문 교수가 요즘 방영되는 도올의 '논어 강의'에 얼마간의 브레이크 역을 자임하고 나섰다. 못난 시류 탓에 억울하게도 '고리타분'으로 분류, 곰팡내 나는 창고 속에서 잠잘 뻔했던 노자와 공자가 지금 막 살아서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것이라고나 할까.

강의 태도가 위아래도 없이 방자하든 어쨌든 지금 노자 공자를 우리 앞에 살려내고 있는 것은 도올이며, 이에 맞서는 서 교수나 구름씨도 그에 기(氣)를 보태고 있는 형국이라 할 것이다. 일반의 관심과 활발한 논의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성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번쯤 되새기게 해주지 않는가.

옛 성인들의 말씀을 엄숙주의로만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쩌면 '도올식' '구름식' '심심풀이 땅콩식'이 그 이해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일지 모른다. 혼탁한 세상, 지금 우리 가까이 다가앉는 공자와 노자를 반긴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분담금-인사문제 등 '내부 갈등'

군승단 왜 해체됐나

군승단이 임시총회에서 해체를 결의하고 한시적으로 국방부 군종실을 중심으로 한 육 · 해 · 공군 각 군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군포교의 새 활로모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체 배경 군승단은 표면적으로 군불교위원회 설치와 〈법회와 설법〉에 실린 '군복입은 군승' 기사와 관련한 포교원과의 갈등이 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법사들 간의 내홍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해군과 공군법사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육군만 도와주는 들러리가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해 왔었다. 여기에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인사문제 등에 힘을 행사하려는 일부 법사들이 해체를 선동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그러나 선임 법사들 대다수가 해체 반대를 주장했다.

조계종 포교원도 군승단을 관리 · 감독하는 기관으로 평소 군승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군승단을 휘어잡겠다는 일방통행식의 정책이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점 32년간 군포교의 주역으로 활동해온 군승단이 단 한차례의 총회로 조직을 해체한 것은 역사와 전통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린 행위다. 그동안 각 군 체제로 가자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몰라도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은 문제를 제기해 갑작스럽게 해체를 결정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문제의 발단은 군승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데서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군승단 해체를 주장한 한 법사는 "우린 장교다. 장교가 왜 포교원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법사 스스로가 조계종에서 파송된 승려가 아니라 군인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스런 발상이다.

군승단의 해체로 인해 산하단체인 대의원회, 집행부, 선임법사회의가 동시에 해체되었기에 군내 인사문제 등 여러 일에 대한 감시 · 조정 체계도 사라졌다. 지금까지는 군승단이 각 군 본부 인사처에서 관장해 오면 진급, 장기, 전출 등 인사문제에 있어 조정역할을 했다. 그러나 각 군 체제로 전환되면서 각 군 본부 군종실 법사가 정기인사때마다 인사 초안을 만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사권한을 가진 법사들이 전횡을 일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체 유효한가 군승단칙 제16조 7항 총회의 권한 부분에는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상위법인 군승령 7조를 보면 '포교원은 군승의 효율적 포교활동 및 수행을 위하여 군승단을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군승단 스스로가 조직을 해체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육해공군 군승단은 19일 호국 원광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한시적으로 군승단 해체를 결의했다.

당분간 각 군체제 운영 '군불교위' 전환될듯

"종단 간섭 벗어나려는 사전포석" 일반적 시각

군승단의 앞날 군승단은 그동안 여러 문제로 포교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래서 이번 군승단 해체는 종단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사전포석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각 군 체제 역시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 정선진 법사와 이희용 육군 최고 선임법사는 22일 포교원을 방문해 빠른 시일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군승단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견을 포교원측에 전달했다. 또 포교원과 일부 선임법사들은 군승단 발전을 위해 군불교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각 군 체제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군승단 복원 역시 가능성이 많은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쌓여온 군법사들간의 깊어 질대로 깊어진 골이 빠른 시일 내에 메워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겸직금지 풀어 인물난 해소"

조계종 기획실장 공석 장기화

교육 · 포교원장 내정자 "전문성 없다" 반대여론

조계종이 인물난을 겪고 있다. 지난 5일 성혜스님의 사퇴 이후 20일이 넘도록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포교원장은 정련스님의 사퇴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종회에 추천할 스님을 정하지 못했다. 후임 교육원장 내정자로 알려진 스님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없다"는 반응이 있어 유동적이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최근 사회부장 양산스님에게 기획실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양산스님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실장 소임을 맡은 적이 있는 ㅈ스님이 기획실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부장급 소임자로서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덮어둔 상태이다.

정대스님은 새 포교원장으로 ㅊ스님을 종회에 추천하려 했으나, 종회의원들 사이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ㅅ스님의 교육원장 추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정대스님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이 추천해 종회에서 선출한다. 150회 임시종회가 3월 20일 열리므로 다음 달 초나 돼서야 누구를 추천할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인물난의 이유를 들어 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종헌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 종무원(부, 실, 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 및 교구종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제35조 1항)

한 스님은 "겸직 금지를 풀어 종회의원도 총무원 부 · 국장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94년 개혁종단 출범시 힘의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아직도 유효하다"며 겸직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풀 경우 본사 주지의 종회의원 겸직도 풀어야 형평성에 맞는다. 따라서 겸직 금지 조항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국회통과 앞둔 '문화재 보호법'

'공소시효 연장' '보관행위' 삭제 알맹이 없다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부분이 법무부 심의 과정에서 삭제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8월 문화재청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소시효 연장'과 '보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은 법무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에서 조계종 총무원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및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은닉행위는 그 행위 이전의 손상 · 절취 · 취득행위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진행되도록 한다'는 조항(개정안 제81조 제4항)과 보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82조 제3항)을 포함시켰었다.

이는 문화재사범의 경우 장기간 은닉했다 공소시효 경과 후 일종의 면죄부를 얻은 다음 시중에 유통시키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지정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적발해도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이상 처벌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소시효를 지나치게 장기간 연장하는 것은 법률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문화재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중요한 성과로 보면서도 문화재보호법 제정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문화재사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경찰은 "힘들게 검거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어쩌지 못할 때가 제일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89년 충남 무량사에서 훔친 불상을 시중에 팔려다 최근 검거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붙잡힌 김모씨는 경찰에서 "12년 전 5천만 원을 주고 불상 3점을 구입했으며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불상을 구입했다고 주장한 남 모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문화재보호법 상 공소시효(7년)와 특수강도혐의 공소시효(10년)도 지나 검찰은 문화재보호법 상 은닉죄와 장물은닉죄를 적용, 구속했다. 무량사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이론 상 절취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장물성은 계속 인정된다는 통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아직 재판 과정이 남아있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김창균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은 "문화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조항처럼 일반 범죄와는 다른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공소시효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문화재청, 법무부 등에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총무원장 취임인사

귀의삼보하옵고
종도여러분의 법체 청안하시기를 앙축하옵니다.
소납이 지난 2월 13일 제8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간접적으로 종단에 참여하여 왔으나, 직접 종단운영의 책임을 맡고보니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난마처럼 얽혀있는 종단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납같은 평범한 사람이 나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총무원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상황 속에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전통종단의 위상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종도 각자가 한발 물러서는 호혜와 양보의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종단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납은 앞으로 총무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도의 뜻을 받들고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종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사중의 제반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5년 2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김 법 장 합장

총무원장 직인무효 공고

종단의 사정에 따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직인을 개인(改印)하였는바, 2001년 2월 14일 이전에 사용한 직인은 일체 무효임을 공고하며, 따라서 2001년 2월 14일 이후 전 총무원장 송종연 명의로 발행된 모든 문서는 일체가 무효임을 공지하오니 종도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01년 2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김 법 장 합장

일주문



지역발전 공로 감사패

성초 진각복지재단 이사장은 19일 진영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무설정사 법회경 강좌

혜경 서울 무설정사 조실스님은 3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무설정사에서 〈법화경〉 강좌를 연다.



제주불교문화대 1기 수료식

중원 제주불교문화대학 학장(관음사 주지)은 21일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교육관에서 문화대학 제1기 수료식을 가졌다.



'광덕스님시봉일기' 출판회

송암안성 도피안사 주지는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광덕스님 시봉일기 1·2권〉 출판기념법회를 연다.



삼화불교대학 졸업식

혜인 삼화불교대학장은 17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자원봉사 시민대학 개설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3월 12일부터 제13회 자원봉사 무료 시민대학 봄학기를 개설한다. (02)723-6258



국립 충주대총장에

성기태 충주대 교수는 13일 충주대학교 총장에 선출됐다. 성 교수는 대불련 회장, 국민고충처리위 전문위원 등을 역임.



백일기도 회향법회

리선행 횡성 대승사 주지법사는 3월 4일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백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33)345-7666



불교포럼서 3월 강연

주강현 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은 3월 2일 불교포럼 3월 강연에서 '한국의 힘, 불교문화에 있다'는 주제로 특강한다.



삼광사서 사진전

김천일 부산불교TV사진가 회장은 25일까지 금강불교대학에서 '천태법화의 향기를 찾아서' 사진전을 개최했다.

"전자지도에 다양한 불교문화 띄운다"

신사년을 뛰는 **우 바 이** ⑦ · 끝

이카이 코리아 팀장 이 혜 은 교수



"가상공간에 펼쳐질 전자지도에 한국문화를 담은 콘텐츠(내용)를 올리기 위해 이카이 코리아(ECAI Korea)에 유능한 학자를 영입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카이 코리아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혜은(동국대 문화지리학) 교수는 올해 팀의 조직을 이카이 본부 구조에 맞춰 개편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다양하게 주제를 잡아 전자지도에 올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카이'란 9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전자문화지도와 관련된 국제기구다.

이카이 코리아는 1999년 4월 조직돼, 그해 10월 멕시코에서 열린 대회에서 13번째 팀으로 공식 등록됐다. 그 동안 전자문화지도 제작에 있어, 인터넷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사찰·고승·문화재·구전문학·종교문화 등을 주제로 샘플(시험) 데이터를 만들며, 전자문화지도의 중요성을 입증해 왔다.

이 교수는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이카이 대회에는 5개 팀이 늘어난 18개 팀이 참석했다. 이것은 전자문화지도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며 "국내에서도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1997년 동국대를 방문한 랭카스터(버클리대) 교수를 만나 처음으로 '이카이'라는 말을 들은 이 교수이지만, 지금 국내에서 전자문화지도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그 실효성을 힘주어 강조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불교 등 한국의 문화가 세계문화사 속에서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5년 간 미국·대만·멕시코·홍콩 등을 왕래하며 인터넷에 펼쳐진 전자문화지도를 클릭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에 열중해 왔다.

전자문화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 분야를 담당할 지도학자, 위치정보(GPS)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등이 있어야 하고, 콘텐츠를 제작할 인문·사회·철학 등을 전공한 학자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재원도 따라야 한다.

"아직까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한 이 교수는 이를위해 전자문화지도 사업과 관련된 행정당국과 종교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다. 또 "전자문화지도는 가상공간에서 디지털화한 신개념의 문화 인프라"라며 "앞으로 불교학 철학 지리학 역사학 등 영역의 불교 관련 성과물을 응집시킬 수 있는 사이버 대작불사"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짜임새 있는 불교 인권운동 전개"

민족문제硏 신임소장 한상범 교수



"불교 인권운동도 이제 조직력을 갖추고 짜임새 있게 전개돼야 합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장에 선임돼 3월 1일 취임식을 갖는 한상범 동국대(법학·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교수는 "불교 인권운동이 그간 개인적인 인맥을 중심으로 행사나 이벤트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 내실을 기하기 어려웠다"면서 "불교 인권단체들도 늦었지만 21세기를 선도하는 사회운동단체로서 지도자와 운동가 모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친일문제 전문연구기관의 중책을 맡은 한 소장은 "21세기 통일민족사회의 새로운 출발은 잘못된 20세기의 역사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을 통해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사를 정립하고 민족화해 및 동질성 회복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1964년 한일협정 반대교수단 참여를 시작으로 3선 개헌 유신 반대 등 독재정권 하에서 반독재 투쟁을 벌였으며, 80년 당시 시위 선동과 계엄령위무협조 거부를 이유로 계엄사 합수부에 연행돼 고초를 겪었다. 아태공법학회 회장, 참여연대 고문,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민족정기회복운동 시민단체연대 상임의장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02)969-0226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진철 스님 장학금 3천만원



대전 충남학사 원장인 진철 스님(전 마곡사 주지)이 후진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월급으로 받은 3천만 원을 충청남도에 기탁,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진철 스님은 지난달 말 충남학사 원장으로 있으면서 월급으로 받은 3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영재장학금으로, 나머지 1천만 원은 체육성금으로 쾌척했다. 진철 스님은 거금을 장학금으로 내놓으면서도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충남학사는 충남지역 대학생들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전액 도비를 들여 지난 99년 말 완공됐으며 현재 220여명의 학생들이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고대 禪語에 깃든 불교사상 변천연구"

한·중 불교학 교류 이종철 교수



"산스크리트어 불교용어가 한역되는 과정을 중국 현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한·중 불교학계 사상 첫 교환교수 자격으로 3월 초순부터 1년 간 북경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게 될 이종철(41·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그는 중국에 머무는 동안 1~6세기의 한역 과정을 추적해 선어(禪語)에 스며있는 당시 중국의 사상적 배경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선어록의 불교 용어 연구는 선어록의 본래 의미를 밝혀 내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空)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슈니야(sunya)인데, 1~2세기에는 '공'이 아닌 무(無)로 번역됐다. 이후 200여 년이 지나서야 '공'으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슈니아가 '무'로, 다시 '공'으로 번역되었던 것은, 슈니아를 풀이하는 사상적 배경이 다른 데서 출발한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은 70년대 후반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며 "1년 간 관련 자료를 모아 국내에서도 인도와 동아시아 불교를 비교 연구하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위덕대 2000학년도 학위 수여식

위덕대학교는 20일 '2000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2회째를 맞는 올해는 학사 137명과 최고 경영자 과정 16명이 배출됐다. 불교학과 수석의 영예는 평점평균 4.26을 받은 장미룡(25) 군이 차지했다. 손제석 총장은 "진리의 빛으로서 이 사회의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 예비 군승교육

조계종포교원은 19~21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2001년 임관예정 예비군승 입대전 교육을 실시했다.

14명의 예비군승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불교상담을 주제로 상담의 실제, 군내 선도활동에 필요한 상담기법, 임관 1년차 선배 군승과 만남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운여 선생 선묵유작 기증법회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17일 운여 김광업 선생의 선묵작품 기증법회를 열었다.

기증 받은 묵서 198점은 운여 선생이 도미 후 석정 스님에게 보냈던 것으로 선생 별세 후 유족들에게 되돌아갔다가 다시 전후연(연 미술관 대표)씨가 입수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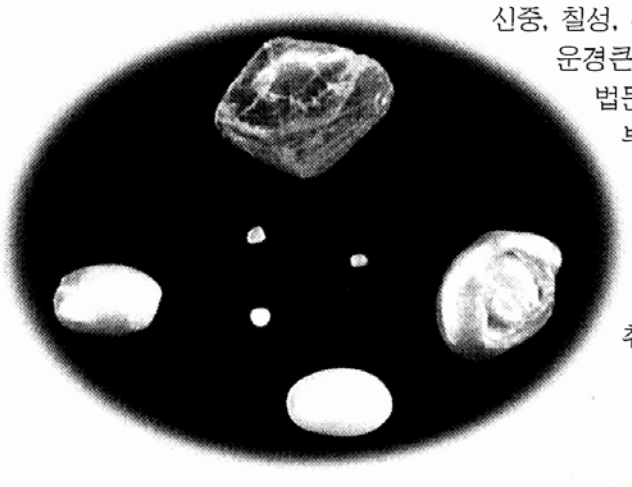
대한불교 교사대학 입학식

어린이 법회 지도자 양성 전문 교육기관인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이 21일 부산불교회관 8층 법당에서 입학식을 봉행했다. 정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 총재, 성오 범어사 주지,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학식에서는 55명의 신입생이 어린이 포교를 위한 본격적인 배움에 동참했다.

봉축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큰스님 초청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부처님나라 신라시대의 세분 성인이신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께서 수행정진하신 덕화가 곳곳에 어려있는 삼성산 상봉에 자리한 상불암에서는 불자님 가정에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랜 세월 풍진에 닳아지고 깨어진 당우를 보수하고 탱화를 새로 조성하는 기도를 봉행하던 중 부처님께서 내리시는 한줄기 빛을 두 손에 받아 안는 현몽을 하고 불탑의 나라 미얀마 종교성에서 보내온 부처님 진신사리 다섯과를 모셔오는 기연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바른 불교, 정법불교를 지향하는 저희 상불암에서는 불자님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고 우리 나라가 불국정토가 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중, 칠성, 산신, 독성 탱화점안과 동시에 운경큰스님, 법현스님, 도선스님의 법문도 듣는 49일 기도와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과 미얀마 고승 초청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및 소원성취 가족기도"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행 사 내 용

◎ 산신, 칠성, 신중, 독성 탱화 점안 법회 :
월 14일 (음력2월20일) 수요일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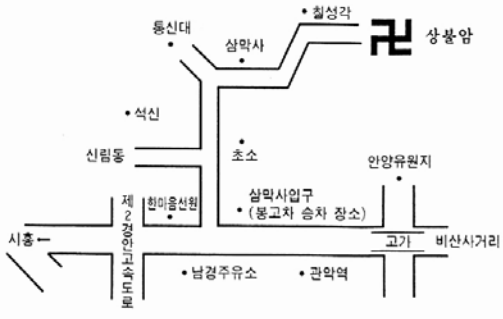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
3월 14일 (음력2월20일) 수요일 오전 11시

◎ 사리친견 및 소원성취 가족기도 :
3월 14일부터 5월 1일 (부처님오신날)까지 매일 오전 10시

◎ 3화상 초청 법회 :
3월 14일 (운경큰스님)
3월 25일 (법현스님)
4월 11일 (도선스님)

◎ 동참 문의 : 031-473-5042 (종무소)

찾아오시는 길 ➔



불기 2545년 2월 일

108배 소원성취 기도도량 삼성산 상불암 주지 무위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은 17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백두대간 종주 출정식을 갖고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연관스님, 수경스님.

"민족영산 지리산 지켜주소서"

범종교계 100일 기도입재

백두대간 종주 · 천도재도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살리기 위한 범종교계의 100일 기도 입재식이 16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렸다.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공동대표 수경스님 등 16명) 주최로 열린 이날 입재식은 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홍근수 목사, 김영식 신부, 이선종 교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월주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수많은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는 지리산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지리산을 살림으로써 오랜 염원인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의 토양을 가꾸는데 일조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대표들이 차례로 나와 기도를 올렸고 문규현 신부가 범종교인 청정국토 선언문'을 낭독했다.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은 다음 날 지리산 천왕봉에서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스님 등 3명으로 구성된 백두대간 종주팀'의 출정식을 갖고, 오는 5월 26일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서 천도재를 봉행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직장불자회 아내들 '포교내조'

지난 20일 오후 4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기원사. 20여명의 불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우리나라 전통등인 풍경등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바로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원의 부인으로 구성된 승만부인회 회원들로 19~21일 3일 동안 풍경등 만들기 삼매에 빠져있다.



◇승만부인회 회원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열차안전운행을 기원하며 전통등을 만들고 있다.

성북승무소 승만부인회

전통등 만들어 역내 전시

환경캠페인 · 이웃돕기도

승만부인회는 10년 넘게 남편들과 함께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활동을 하다가 부인들끼리 법회도 보고 신행활동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정식 창립됐다.

이들이 전통등을 만들게 된 것은 부처님 오신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뿐만 아니라 4월 혈도 안전의 달을 맞아 열차 안전운행을 기원하고, 철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순직한 국가 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부인회는 지난달 조계종 봉축위원회에서 개최한 전통등 만들기 강좌에 13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종등과 북등을 실습으로 제작했다. 또 4월 21일 전통등 점안식을 갖고 3일 동안 만든 풍경등 15개와 종등 북등을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성북역 1번홀에 전시할 계획이다.

"대나무 골조와 전기배선, 그리고 배접 과정을 마쳤으니 이번에는 풍경등에 넣을 문양을 그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밑그림을 잘 그려야 채색이 쉽고 아름다운 등이 만들어집니다." 강사로 나온 전통등 연구회 수석연구원 전영일(32)씨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부인회 회원들은 저마다 문양 그리기에 여념이 없다.

풍경등 만들기가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작업인 줄은 몰랐다는 최미영(44) 보살은 "제등행렬 할 때만 보았던 전통등을 직접 만들어 보니 신심이 절로 난다"며 함박 웃음을 짓는다. 오늘이 휴무일이라는 이종문(55)씨도 "아내와 함께 전통등을 만들어 보니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며 "이 등이 성북역에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피곤이 금방 사라진다"며 열심히 도안 문양을 그린다. 올해 초등학교 임용고시에 합격한 강유진(23)양도 "엄마가 같이 가서 전통등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왔지만 조금이나마 우리나라 전통등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한다.

앉은채로 하루 8시간씩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지만 승만부인회 회원들은 서로 서로 다리도 주물러 주고 격려도 해주며 풍경등을 만들고 있다.

승만부인회 봉축준비위 남두예(50) 위원장은 "등 하나하나에 회원들의 정성과 깨끗한 마음들이 들어있다"며 "전통등 전시를 통해 불교도 알리고 부처님 오신날이 국민의 축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승만부인회는 현재 30여명의 보살들이 매월 정기법회는 물론 환경캠페인, 사찰순례, 불우이웃돕기,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천불동 수계법회

천리안 불교동호회(대표시샵 김용태)는 17~18일 남원 실상사에서 전국 모임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전국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예불, 실상사 화엄학림 학감 일귀스님의 법문, 300배 참회기도, 좌선 및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금융단 법당건립 추진

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김윤해)는 지난 14일 명동의 한 음식점에 모여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10여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해 3월 성지순례, 4월과 10월 합동법회, 5월 부처님 오신날 행사 참여, 7~8월 수련대회, 9월 산행활동, 11월 봉사활동 등 2001년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특히 올해를 금융단 자체 법당 건립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반야회 담오스님 초청법문

대전정부청사 반야회(회장 김창균)는 18일 대전 심광사에서 정기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30여명의 회원들은 '불교는 자력신앙이다'라는 주제로 주지 담오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웠다.

MBC 불교硏 상원사 참배

MBC불교연구회(회장 장영호)는 24일 월정사와 상원사로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법회는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의 법문, 상원사 보궁참배 등으로 진행됐고, 30여명의 회원들은 문수보살의 원력으로 불자회가 활성화되기를 서원했다.

생협등 5대 과제 중점 추진

인드라망 올 사업확정…생태농업硏 설립추진



◇17일 조계사에서 열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제2차 정기총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지난 17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갖고 200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이날 총회에서 창립 후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귀농 · 생협 · 대안교육 · 지역공동체형성 · 환경연대운동 등 5대 영역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귀농운동과 관련, 하반기에 친환경농업교육장을 준공하고 사단법인 생태농업연구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귀농자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불교귀농학교와 귀농전문학교 동문회원을 조직화하고 지리산유역의 귀농자 네트워트도 구성할 계획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또 환경연대운동과 관련, 사찰 유휴토지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귀농자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리산 살리기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계 환경단체 협의틀 구성에도 적극 참여하고, GMO반대 생명운동연대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게시판

알림

▲대불청 만해백일장=대한불교청년회는 3월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 22회 만해 백일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 · 시조, 산문 두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전국 초 · 중 · 고 · 대학생이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마감은 3월 1일까지이며, 수상자에게는 문화관광부 장관상과 서울시장상 등이 주어진다.(02)738-3385

▲아동 청소년 심리검사 실시=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검사를 실시한다.(02)571-2988

▲무료세탁방서비스=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관내 무의탁 또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하여 다시 가정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02)385-1351

강좌

▲육조단경=조계사는 3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육조단경 강좌를 실시한다. 강사는 〈도올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의 저자 변상섭씨.(02)720-1390

▲불교교리=법장사는 3월 13일부터 4개월 과정 불교교리 강좌를 개최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법장스님이 강의하는 이번 강좌는 매주 화 · 목요일 오전 10~12시까지이며 교육내용은 불교예절, 불교상식, 부처님 일대기, 불교사 등이다.(02)971-0303

모집

▲자원봉사 무료 시민대학 수강생=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3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될 제 13회 자원봉사 시민대학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02)723-6258

▲불교의식 학인모집=해동불교범음대학은 제 387기 불교의식과정을 수강할 학인을 모집한다. 개강은 3월 13일이며 기본, 중급, 작법, 신행 등 4개반 각각 30명을 모집한다. 수강생들은 목탁, 요령 잡는법부터 관음식, 다비식, 천수 바라, 나비춤 등을 배우게 된다.(02)741-0495

▲강북장애인 복지관 이용자=강북장애인복지관은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뇌졸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우리두리' 이용자를 모집한다. 우리두리는 3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실시된다.

▲귀농학교 지킴이=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3월 12부터 3개월 과정으로 미래의 한국 농업을 이끌어갈 제 6기 농업생명 지킴이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0상 55세 이하의 남녀 20명.(063)636-3776

▲청담어린이집 교사=청담어린이집은 2세 미만 영아반 담임교사를 모집한다. 보육교사 자격증과 간호사(조무사)자격을 가진 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02)806-1373

▲진각중 교화직 종무원=불교진각종은 고졸 이상 졸업자로 남자 만20~30세, 여자 만18~24세 불자들을 대상으로 교화직 종무원을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자필이력서, 호적등본, 당해 심인당 주교 추천서이며, 제출기간을 3월 12일까지이다.
(02)913-0751~4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 상담 변호사 이종오
■ 전 화 상 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불교어산(범패)작법학교 학인 모집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온 어산(범패)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전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어산과 : 00명 · 작법과 : 00명 · 불전의식과 : 00명

교육내용
· 어산과 : 범패, 신중작법, 시련, 대령, 관욕, 시식, 상주권공
· 작법과 : 바라무, 착복무
· 불전의식과 : 일용의식 - 도량석, 종송,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욕, 시다림, 점안, 방생 등
· 특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교육기간
· 어산과 : 1년 · 작법과 : 6개월
· 불전 의식과 : 6개월
※ 본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교육시간표

'2001년도 시간표

요일/과정	어산과 (1년)	요일/과정	작법과 (6개월)	요일/과정	불전의식과 (6개월)
	시간조정		시간조정	수	19:00~20:30
	시간조정		시간조정	목	19:00~20:30

응시자격
○종헌, 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비구(니)
○각 과정 재가불자도 청강이 가능함.

전형방법
서류전형과 면접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승적증명서 1통
3) 반명함판 사진 2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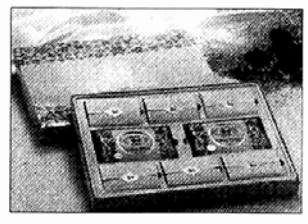
접수일자 2001.3.9(금)까지(우편접수도 가능함)
면접일자 2001.3.10(토) 오후 3시
개강일자 2001.3.12(월)

원서교부 및 접수처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Tel. 02) 921-3425 031) 980-7716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괵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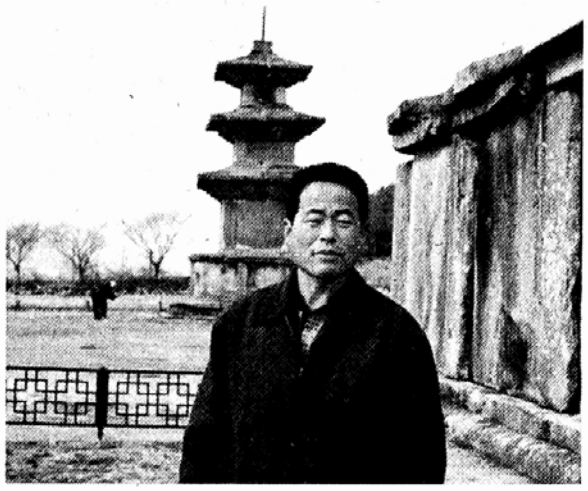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 755-9821

"발굴 인부로 인연 20년 수행처 됐죠"

신행현장

감은사탑 지킴이 손해도 거사



◇20년간 감은사탑을 돌보아 온 손해도거사. 손거사는 정부와 불교계가 힘을 모아 감은사지를 제대로 복원 · 보존해 주기를 염원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이 부실 보수로 원형을 잃어간다는 소식에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집니다. 해체 복원시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않아 원형 그대로 보수하지 않는데다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귀중한 문화재의 훼손을 부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은사 탑을 안타깝게 어루만지기도 하고, 떨어져 나간 조각은 없나 꼼꼼하게 살펴나가던 손해도(50) 거사는 안타까운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신라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부처님의 힘으로 왜적의 침입을 막고자 세웠다는 절, 감은사. 동탑과 서탑, 2기의 탑만이 호국의 정기를 잇고 있는 2001년의 감은사터에는 20년 동안 그 터를 지키고 가꾸는 손해도(50) 거사의 올곧은 문화재 사랑이 스며 있다. 탑의 정식 관리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손거사의 감은사탑 사랑은 스님들이 절을 가꾸고 부처님을 예경하는 예불을 닮아 있어 주윗사람들은 그를 '감은사탑 지킴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

79년 경주고적발굴조사단이 탑 주변을 전면 발굴할 당시 인부로 참여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인부가 되면 나중에 관리인 자격을 준다'는 말로 부인을 설득해 이곳에 정착한 손거사. 그렇게 시작된 탑과의 인연으로 감은사터는 손해도거사의 20년 수행처가 되어버렸다.

해체 복원 후 경주시의 관리와 관

쓰레기 치우고 풀베고 애지중지 탑 돌보기 "부실보수로 원형 훼손"

심이 뜸해지자 감은사탑 주변은 금방 풀이 무성해지고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 차 버렸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한여름에 풀밭을 누비며 풀을 베고, 하루 한 트럭 분량의 쓰레기를 치워내는 등 손거사의 탑 돌보기는 시작되었다. 물론 탑을 돌보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혼자서 부담했다.

"탑 주변에서 소꼴먹이는 동네사람들 막다가 동네 인심도 잃고 절터에서 고기 구워먹고 고성방가하는 관광객들 저지하다가 멱살도 잡히고 그랬죠." 호국성지인 감은사터를 유원지로 알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정부 문화재 정책의 한시성과 일회성에 아쉬움이 많다. 감은사지 발굴이후 문화재의 가치에 눈을 떠 독학으로 문화재 보수 기능공과 고건축분야의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 지금은 문화재 보수일을 하고 있는 손거사. 문화재 발굴현장 곳곳에서 '바른소리'하는 인부로 정평나 있다. 조금이라도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면 절대 하지 않는 손거사는 그래서 자주 일자리를 잃는다. "내 개인 돈 못 벌면 그만이지만 훼손되는 문화재는 어떡합니까? 불교문화재 속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은 감히 짐작키 어려울 정도입니다. 백년도 못살고 가면서 당장의 욕심으로 몇 천년을 이어갈 문화재를 망친다면 역사에 큰 과오를 남기는 겁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 손거사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하는 외곬수.

지금도 서울로 박물관으로 뛰어다니며 자료를 모으며 감은사 복원의 꿈을 놓지 않고 있는 손 거사는 감은사 사진 전시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조금만 수퍼 한 켠에 마련, 감은사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감은사탑의 진면목을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단칸방에 살면서도 사진인화, 확대, 전시실 공사 등에 몇 백 만원의 돈을 쓰고 그것도 모자라 사비를 털어 감은사지 안내책자를 만들 궁리에 여념이 없다.

손거사는 바람은 "정부와 불교계가 힘을 모아 감은사지를 제대로 보존,복원해 감은사지를 세웠던 신라인들의 나라 위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뿐이다. 그것이 자신의 수행도량인 감은사에 대한 정성이 크게 회향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감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조연에게도 박수를

태어나서 한 세상 살다 가는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다. 육신의 삶은 생 · 로 · 병 · 사의 테두리 속에 있고 정신의 삶은 울고 웃는 오욕칠정의 연쇄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일러 나그네 길 같다고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점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떠돌다 가는 나그네 일까보냐 한다.

나아가 우리는 삶의 마디마디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 성공과 실패라는 명패도 붙여보고, 높낮이도 매겨보고, 우열을 가려보기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찬사와 지탄, 박수와 외면, 존경과 멸시 같은 부상을 안기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은 서로 비슷비슷한 삶이 아니라 천차만별 가지각색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채색된다. '위대한 아무개'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필부필부도 그렇게 정의되어 버린다. 과연 실상도 그러할까?

도리를 깨우쳤다는 선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한낱 뜬구름에 불과한 존재다. 거만(巨萬)의 부를 쌓았다 해도 그 부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고, 경국지색의 미모라 해도 그건 환상 속의 허깨비 놀음에 불과한 것이 된다.

나온 도리를 알고 갈 곳을 보는 선사들의 말이 그렇다면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선사들의 대답은 이러하다. '그건 연극배우의 연기와 같은 것이다'

연극 배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일단 무대에 올라간 이상 배역을 탓하지 않는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번듯한 역할을 희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지 역이 되었든 왕의 역할이 되었든 한 막 연극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을 뻔히 알기 때문에 배우들은 주어진 배역을 열심히 소화해 낸다. 선사들의 대답은 바로 그 점을 암시한다.

TV 연속극을 보노라면 주연급보다 조연 배우의 연기가 더 돋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만약 그 조연 배우가 제 역할이 싫다고 대충대충 넘어가려 했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제부터는 우리 삶의 조연과 단역 배우에게도 박수를 아끼지 말자.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진정한 출가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아집 버리는 것



선래스님
부산 법륜사 법주

3월2일(음력 2월8일)은 부처님 출가일이고 9일(음력 2월15일)은 부처님 열반일입니다. 출가 · 열반일을 맞아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되새겨 수행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출가수행자의 길을 걸을 수는 없다해도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면서 살고자 하는 출가심을 갖는 것은 불제자로서는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출가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아집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욕심, 번뇌, 미움 등은 모두 '나'라는 아집에서 비롯됨으로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마음의 출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상대가 없어져 시비, 분별, 원망, 미움은 저절로 사라지고 궁극에 가서는 생사까지도 없어지게 됩

실천과 정진 따를 때 아는것의 가치 생겨

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렸을 때 만인과 더불어 살 수 있고, 내것을 버렸을 때 비로소 만물의 귀중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나 생각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과 정진이 따를 때 아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믿음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여타 종교는 절대신을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지만 불교는 수행을 통해 본래면목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완성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수행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생사가 없고 너와 남이 없는 본래면목과 계합될 수가 없습니다. 절에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복을 구해도 자신이 생활속에서 복된 행위를 하지 않으면 헛된 일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을 맞아 우리는 그 기간만큼이라도 경건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대로 살고자하는 발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기간만큼이라도 기도와 정진으로 복이 되는 행동과 생각이 무엇인지 느끼고 배워서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살다보면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고 느낄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면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낌없이 버릴 줄 알 때 세상의 온갖 어려움이 실체가 없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애착과 욕망을 끊고 어떠한 유혹에도 끄달리지 않는 것이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텅빈 마음으로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인연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라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작은 인연이라도 좋게 맺어지면 반드시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인연을 두텁게 맺고자 하는 노력으로 하루 하루의 생활에서 복을 짓고 실천을 이어가는 노력을 해 나가면 언젠가는 자유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내 마음속에 물들여진 온갖 것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 진정한 출가이며 그것은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염불이며 그것은 본래 갖추어진 불성으로 귀의하여 깨달음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불제자들이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되새겨 부처님 출가의 간절한 뜻을 만분의 일이라도 잊지 않고 염원하고 실천한다면 부처님의 법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신행 캘린더

2월 28일 (수)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강당에서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을 모시고 다보법회를 봉행한다.(02)703-0108

3월 1일 (목)

■광운정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보살계 수계법회=서울 광운정사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오후 2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보살계 수계법회, 국악공연회 행사를 개최한다.(02)389-8966

■능인선원 백일기도 입재=능인선원은 새벽 3시 30분 큰법당에서 백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한다.(02)577-5800

■조계사 신도회 철야정진=조계사 신도회는 2일까지 무박 2일간 팔공산 갓바위에서 철야정진기도를 실시한다. 출발은 오후 6시 조계사 앞 (02)732-2187

■<광덕스님 시봉일기 1, 2> 출판기념법회=도솔산 도피안사는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광덕스님 시봉일기 1, 2> 출판기념법회를 개최한다.(031)676-8700

3월 2일 (금)

■강남포교원 수계법회=강남포교원은 저녁 8시 부처님 출가재일을 맞아 삼귀의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02)539-2631

■산사음악회=청년불자 중창단인 LMB싱어즈는 11시 사천 운흥사 산사음악회를 연다. 또한 7일 저녁 7시 육군사관학교 졸업법회에서 초청 연주회를 갖는다.

■포교사 품수식=조계종 포교원은 4일까지 대전 한국통신연수원에서 제 6회 포교사 고시 합격자 연수 및 품수식을 거행한다.(02)720-7060

3월 4일 (일)

■부산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부산 감로사는 8일까지 제방 큰스님을 모시고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법회를 봉행한다.(051)809-0926

■실상사 작은학교 개교식=실상사 작은학교는 11시 큰방에서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교 대안교육(비인가 중등과정)에 나선다.(063)636-3369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 및 산신제=조계종 총무원은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민족화합과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를 개최한다.(02)735-5864)

■보현선원 서암스님 초청법회=보현선원은 오전 11시 '위대한 자기완성의 길'을 주제로 전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을 모시고 초청법회를 봉행한다.(02)3494-6441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선원(시민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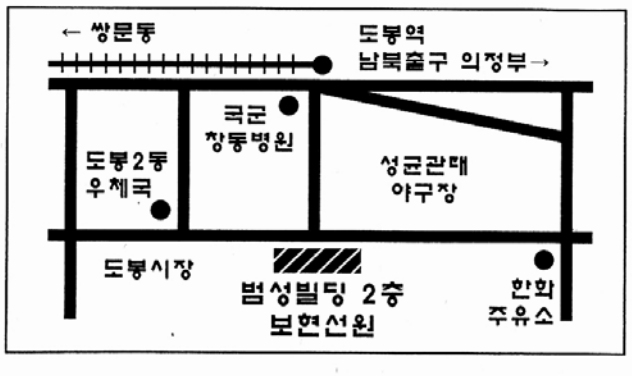
서암대선사초청법회



서암 스님

서암대선사 위대한 자기 완성의길

2001년 3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



■ 교통안내
- 지 하 철 : 1호선 도봉역에서 도보로 5분
  1호선 창동역에서 75번 마을버스를 타고 성균관대 야구장 하차
- 일반버스 : 15, 20, 20-1, 125, 135-1번, 성균관대 야구장 하차

문의 : 02) 3494-6441-2
장소 : 보현선원 (시민선방)
위치 :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성균관대 야구장 맞은편.



박태원 교수의 26

불교로 보는 인생

도올의 헤집는 역할

'자동차' 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불변의 알맹이가 있는가. 없다. 아무리 헤집고 찾아보아도 '이것이 자동차의 실체' 라고 할 그 무엇이 확정되지 않는다. 수 만 가지 부품들의 복합 인연체를 편의상 '자동차' 라 부를 뿐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박태원이라는 이름을 차지하는 고정 불변의 그 무엇은 발견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러나 일정한 지속적 패턴을 유지하는, 이런 저런 정신 물리적 구성 요소들의 심신 인연 복합체. 그것을 '박 아무개' '김 아무개' 라는 이름으로 지칭한다. 무아의 도리, 공의 이치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설법은 이런 식이다.

이름에 실체가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히면 나와 너, 내 것과 네 것으로 대쪽처럼 갈라진다. 소유의 애증과 집착이 너와 나의 실상을 일그러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린다. 반면 이름에서 변치 않는 알맹이를 제거해 버리면, 그 이름으로 진행되는 현상의 온전한 모습과 관계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름에 해당하는 생명 현상의 역할이 고스란히 인지된다. 이름에 따라붙는 실체의 환상을 걷어 버리면, 연기(緣起)라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진행되는 한 생명의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인지된다.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관에 비추어 매우 못마땅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그가 명성이라도 누릴 꽤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허위와 위선과 기만으로 여겨져 분노와 증오의 생각마저 솟구친다. 그러나 조심하라. 이런 심리 상태로는 그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어찌해야 하는가. 자신과 그의 이름에서 불변의 알맹이를 제거하라. 무아, 공의 마음으로 자신과 그의 이름을 보라. 그러면 놓쳤던 모습이 보일 것이다.

또 한번 도올 선생의 동양사상 강의를 둘러싼 시비가 언론의 기사거리가 되었다. 어느 영문학 교수가 일간지에 도올 선생을 소인이라 질타하며 원색적인 인신 공격을 퍼부운 것이 계기였다. 필자가 고려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도올 선생은 한 학기 전에 철학과 교수가 되어 막 국내 활동을 시작한 참이었다. 나의 전공은 불교철학이었기에 중국철학 전공인 도올 선생이 지도 교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대학원 수업 등을 통해 그 분을 직접 겪을 수 있었기에 판단 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나는 그 분의 역할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본다. 한국 사회는 그 타성을 밑바탕에서부터 헤집어 버릴 필요가 있다. 기지촌 근성의 지식 사회, 합리적 이성의 건강한 검토를 원천적으로 기피하며 대중들을 우롱하는 종교 권력, 성(聖)의 이름으로 과대 포장된 부실한 허위들, 동양적 정체성과 지혜들을 노골적으로 혹은 은밀히 무력화시키려는 교활한 의도들, 지성이 결핍된 동양 신비주의자들의 어설픈 자기 도취, 사상적 균형과 깊이를 상실한 여론 형성 지식층들의 문화 식민지적 편향과 무지들. 근대화 몇십 년 과정에서 두텁게 쌓인 이 오염층을 정화하려면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 관행을 헤집을 때의 충격과 갈등과 불편함을 애써 고려하는 '점잖은 언

관행 깨뜨리려 하면 점잖은 언어 한계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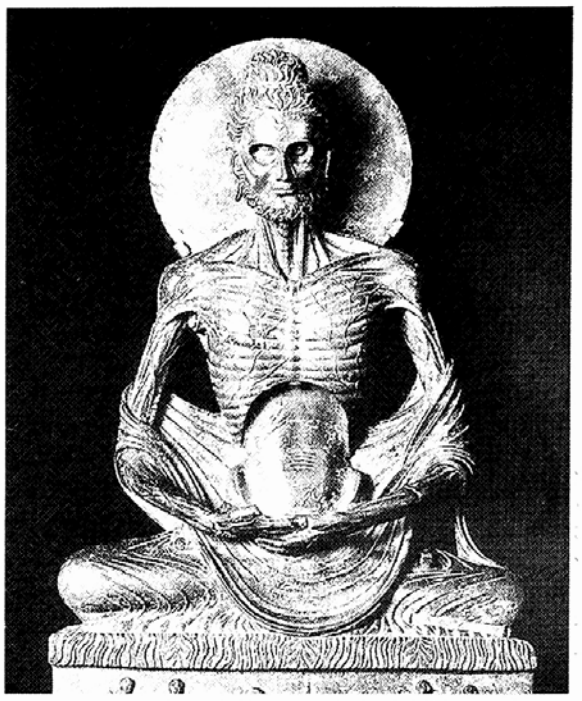
행' 은 결과적으로 정직성을 상실한 위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도올 선생의 역할은 특별하고 의미가 깊다. 그 분은 그 '헤집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 축적과 무전제의 자유로운 사색, 진지함과 용기와 적절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헤집기 위해 필요한 동·서양 다방면의 고급 지식들을 저처럼 치열한 문제 의식 아래 한 몸에 축적시킨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 그 분의 학문적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은 학문적으로 엄밀히 개진하면 되고, 인격적 포폄(褒貶)은 각자에게 맡기면 된다. 느낄 만큼 느끼는 대중들이 귀를 세우는 데에는 그만한 시대적 요청이 있는 것이다. '쇳소리 나는 음성이 듣기 싫다' 고까지 하면서 소인으로 매도하여 도올 선생의 특별한 역할을 무력화시킬 일은 아니다. 이름을 비워내고 역할을 보자.

▩ 울산대 철학과 교수

석가모니 止-觀 수행법 창안

참불자의 길 참선⑦-인도선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상(3세기경 간다라 출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행을 했을까. 그리고 인도선은 어떤 것일까. 선 수행을 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품어봤음직한 의문이다.

우선 인도의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시한 수행법은 고행주의(苦行主義)와 수정주의(修定主義)가 대표적이다.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이 전통적인 수행방법으로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고(苦)에서 해탈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이 수행방법을 버린 부처님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니련선하에서 목욕하고 붓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 결가부좌를 하고 정진한다. 물론 이는 요가의 수행법이였으나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그와는 차별된 새로운 수행방법을 체득한다.

부처님께서 창안한 선정법은 본질적으로 요가의 수행법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지(止)·관(觀) 수행법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는 삼매로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상태이자 정념이 없어진 선정의 수행을 말한다. 그리고 관은 통일된 마음으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연기법을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즉 부처님의 선정법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마

겉으론 요가와 비슷
苦의 원인 철저히 관찰
근원 깨닫는 점 차이

음이 조용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 원인을 철저히 관찰하여 그 근원을 깨달았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6년 간의 고행과 수정주의의 선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인 선정과 지혜로써 12월 8일 동쪽 하늘의 샛별을 보고 연기의 도리를 깨달은 것이다.

현재 우리 불교에서는 선(禪)이나 선정(禪定)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 용어는 '명상하다', '숙고하다' 라는 뜻이 담긴 인도의 드야나(dhyana)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우파니샤드에서 명상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불교에서 말하는 드야나는 불교적인 명상법인 지와 관을 함께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

또 경전에서도 초기 인도불교의 선을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 경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염화미소에 선의 기원을 두고 있다. 한 송이의 연꽃을 들어 보인 부처님과 이를 보고 깨달음의 미소를 지은 가섭의 이심전심에서 선불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에게 자신의 자리를 반쯤 내어 주었다는 다자탑전 반분좌(多子塔前 半分坐),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관 밖으로 두발을 내밀어 보였다는 사라쌍수하 곽시쌍부(沙羅雙樹下 槨示雙趺). 이를 삼처전심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선의 효시이자 인도 선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이심전심으로 전한 이러한 불교가 우리의 대표적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 불교인 것이다. 선은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 인도불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선불교는 태동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선 불교는 중국선종이 이룩한 사상적 성과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③

증시랑에 대한 답서(1)

여래의 말은 분별심 치료하는 방편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다만 세간의 일은 헛된 환상일 뿐 구경법(究竟法)이 아님을 알아서 마음을 이 선문(禪門)으로 돌려 지혜의 물로써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스스로 깨끗하게 머물며, 단칼에 끊어버려서 다시는 헛된 환상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니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환상이라고 한다면, 업을 지을 때도 환상이고 과보를 받을 때도 환상이며, 깨달을 때도 환상이고 어리석을 때도 환상이며, 과거·현재·미래가 모두 환상이니, 이제 이러한 잘못을 알았다면 환상의 약으로 다시 환상의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 약을 치우면 여전히 다만 옛날 그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따로 사람이 있고 법(法)이 있다면 이것은 삿된 외도의 견해입니다."

만물의 실상(實相)은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실상을 보면 중생이 곧 부처요 번뇌가 곧 보리이다. 이것이 바로 육조 혜능이 〈단경〉에서 강조한 불이법(不二法)이며, 유마 거사의 불이법문(不二法門)이며, 색즉시공(色卽是空)의 진실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본래 해탈해 있는 것이지 해탈할 가능성을 지닌 속박된 존재가 아니다. 다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느니, '아쥬나닷타가 자기 얼굴을 찾아다닌다' 느니 하는 비유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번뇌에 싸여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여기는 것은 분별심의 작용에 의한 환상이지 실상이 아니다. 분별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지화 관념화되어 과거·현재·미래가 있고, 중생과 부처가 있고, 업과 과보가 있어서, 삼라만상이 모두 분별되고 대립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이들은 모두 한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환상이다.

그러므로 선의 공부란 이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러나 분별심이라고 하여 이 마음 밖에 따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 마음의 작용이다. 즉 분별심을 내려놓는다고 하여 내려놓을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실상에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데, 분별심이라는 환상의 병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스런 중생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이미 중생과 부처, 미혹과 깨달음, 분별심과 무분별심을 나누고 있는 분별심에서의 말이다. 그렇지만 분별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실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분별심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분별심이라는 환상의 병을 분별심이라는 환상의 약으로 치료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환상의 병을 환상의 약으로 치료하였으므로, 치료하고 난 뒤에도 달라진 무엇은 없다. 물고기가 본래부터 물 속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무엇이 달라지며, 아쥬나닷타가 제 얼굴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러므로 병을 치료한 뒤에도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분별심은 어떻게 되었는가? 분별심도 여전하다. 다만 이제는 분별심의 실상을 알아서 내려놓았으므로 더 이상 분별심의 노예가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혹자는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는 〈금강경〉에서는 여래가 하는 모든 말은 방편일 뿐이라고 한 것이다. 여래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 환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환상의 약일 뿐이다.

환상의 병이 치료되면 약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여래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 환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환상의 약일 뿐이다.

환상의 병을 환상의 약으로 치료하였으므로, 치료하고 난 뒤에도 달라진 무엇은 없다. 물고기가 본래부터 물 속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무엇이 달라지며, 아쥬나닷타가 제 얼굴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여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러므로 병을 치료한 뒤에도 여전히 옛날 그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분별심은 어떻게 되었는가? 분별심도 여전하다. 다만 이제는 분별심의 실상을 알아서 내려놓았으므로 더 이상 분별심의 노예가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혹자는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는 〈금강경〉에서는 여래가 하는 모든 말은 방편일 뿐이라고 한

이렇게 들었다

11 역사왜곡과 양심

왜 부끄러운줄 모를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살기 위해 비록 고생을 할지언정, 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악행을 하다가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쳐 제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한다. 마치 까마귀가 더러운 것을 먹고 주둥이를 씻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스스로 악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뽐내고 자랑한다. 마치 돼지가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도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으니라. 〈증일아함경〉

이 두 경전의 말씀은 마치 '양심없는 일본'에 대한 꾸짖음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셨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양심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의 속성은 참회에 인색한 것이 특징이다. 인색하다 못해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이 바로 그렇다.

최근 일본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국가에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인즉, 일본의 한국합병이 국제관계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내용이 버젓이 실려있는가 하면, "한국은 일본지배 덕분에 저만큼 살게 됐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도 들어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군의 잔학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으며, 일본의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쯤되면 속된 말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언제 일본에게 잘살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지, 아시아 국가들이 언제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황당하다 못해 웃음마저 나온다.

〈수십선계경〉을 보면 "열 가지 악업 중에 그 으뜸이 살생이요, 둘째는 도둑질하는 일이요, 셋째는 사음하는 일이요, 넷째는 거짓말하는 일이요…"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일본은 전쟁을 통해 살생은 물론 약탈, 성폭력 등 가장 나쁘다는 세 가지 악업을 모두 지었다. 그리고 이제는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네 번째 악업까지 지으려 하고 있다.

〈증일아함경〉의 말씀처럼 일본은 자신의 더러움도 모른 채 뽐내는 돼지가 되지 않길 바란다. 그대들의 '양심'있는 후손들이 자신들의 역사교과서에 그 대들을 '돼지'로 적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불자 세상보기

'인터넷'을 '인드라넷'으로 바꿀 수 없나
(Indra Net)

요즘 일간지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보화 최강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야단이다. 인터넷 이용 인구가 1900만명이나 된다니 그럴만도 하다. 그 덕분에 옛날의 도인들이나 부렸다는 천안통(天眼通)과 천이통(天耳通) 같은 신통력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제한적인 분야에서이지만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인터넷에 대한 윤리의식을 기를 사이도 없이, 그 유익한 열매를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그 해로운 열매를 먼저 거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가상공간에서도 윤리는 존재한다"는 의식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로 최근 나온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범죄의 과반수가 10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사이버범죄자 187명 중 10대가 97명으로 52%를 차지해 불법해킹과 인터넷을 통한 사기 등 대부분을 10대 청소년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란물 판매, 원조교제, 자살 사이트 운영 등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칠 뿐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행위에 대부분의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원조교제 · 자살사이트
청소년 사이버범죄 급증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의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익명성과 이에 따른 높은 비밀보장성일 것이다. 남이 보지 않고, 법망에 걸리지만 않으면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쉬운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사이버 범죄를 없애기 위해 유해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통제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인터넷 범죄에 대하여 불교계에서는 불교다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긍정적이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기 위해, 철저한 윤리의식인 계율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우선 인식해야겠다. 계율은 어디서든지 나와 남을 동시에 지켜주는 윤리적 율타리이기 때문이다.

유해사이트 감시 · 통제
유익한 정보창구로

〈법구경〉 1장에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뒤에는 슬픔이 따라오기 마련이다"고 했다. 이것은 모든 윤리의식의 기초인 선과 악의 뿌리를 가리키고 있기에, 비록 이 세상을 떠나 욕계 · 색계 · 무색계를 포함한 모든 법계에서도 두루 통하는 보편적 법칙이다.



성기서
서원대 교수
영어교육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바로 삶의 보편적 원칙인 '선인(善因)에 선과(善果)가 따르고 악인(惡因)에 고과(苦果)가 반드시 따른다는 연기법'을 바르게 인식시킬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어른들이 계정혜를 닦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 후에야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바람직한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래야만 '마(魔)의 인터넷'을 '화엄법계의 인드라 넷(Indra Net, 帝網)'으로 바꿀 수 있다.

열 린 마 당

주지 인사고과제도

조계종 포교원이 14일 배포한 〈지역포교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해 고과제도의 실시 등 주지 인사제도의 변화가 문제해결의 근본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지스님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포교활동의 정도가 달라지는 시점에서 사찰의 잦은 주지 교체는 오히려 포교사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가장 큰 요인임이 드러났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주지고과제도의 도입과 실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지역포교 활성화 기여할듯"

명조스님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이번에 포교원에서 실시한 지역포교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종단적 과제로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는 주지 인사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변화의 핵심은 주지인사에서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주지인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찰의 운영과 포교성과에 대한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재임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포교의 큰 성과를 거둔 스님이 교체된 이후 새로 부임한 스님에 의해 축적된 성과가 폐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런 점은 포교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주지의 재임이나 교체시 그 평가기준이 성립되고 그 평가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포교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지역에 얼마나 회향했는가를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지 인수인계시에 각종 비품이나 재산목록 등 유형의 재산에 대한 점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현황과 정서, 신도의 현황과 포교의 현실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 역시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교의 원력을 가진 주지스님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고 그 성과를 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종단의 과제이다. 따라서 승가교육의 틀도 포교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교육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하고, 종단의 각종 제도 역시 내용위주로 개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지인사 고과제의 실시와 그 주안점을 포교의 업적과 역할로 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업적 평가 객관성 유지 관건"

황진수 교수 〈한성대 행정대학장〉



주지스님의 고과도입 문제를 행정학의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능률성의 원리에 해당된다. 능률성과 민주성의 쟁점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주지스님은 임기 동안의 업적을 평가받아서 연임 또는 경질시켜야 된다. 과거 본산 중심의 지역 할거주의가 농경사회의 불교 존속과 포교에는 적합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

물론 업적 평가는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기관에서는 주지스님의 사찰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평가 사항은 조직장악력, 예산 · 결산의 명료성, 사찰운영의 투명성, 포교사업의 성과 측정, 신도 및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한 평판 측정 그리고 불교의 차원에서 인재양성 성과 측정, 정보화의 정도와 함께 총무원 및 본사주지스님의 평가 등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지 스님의 업적평가가 표면상의 원칙만 내세우다 보면 자칫 우(愚)를 범할 수 있다. 종단 사정의 전후좌우를 살펴가면서 현재의 본사중심체제의 틀을 깨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단차원의 업적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에서는 업적평가기준,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범종단적 차원에서 논의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지스님 한 사람으로 인해 지역불교가 일어나고, 거꾸로 주지스님 한 사람으로 인해 지역 불교가 죽고 있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주지스님 한 사람에 불교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 하지 않았는가 싶다.

기고

"사회 첫발 디디며 설렘과 두려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김민주
동국대 지리교육과 졸업

어느덧 4년이란 대학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입학해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심전력했던 4년이 훌쩍 지나가버린 지금, 어느 정도 희망을 싹틔웠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임용시험에서 합격해 당당히 사회(지리)교사가 되었다. 이제는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내 모습이 바뀌게 됐다.

다가오는 3월, 경기도 어디에선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하면 흥분을 감출 수 없다. 하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스스로 선택하고 성취한 것이지만 '정말 내가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학교라는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이란 신분은 일종의 특권처럼 통한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학생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한 번쯤 눈감아주는 관용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냉소적이고 경쟁적이고, 완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본질이기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춰야 할 '가르치는 능력' 이상의 인격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 투자한 4년이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또 학생들을 위해 투자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낀다.

설렘, 두려움, 결심 등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느낌은 평생동안 지금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소중한 기억과 새로운 결심을 사회에 나가서도 잊지 않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장인정신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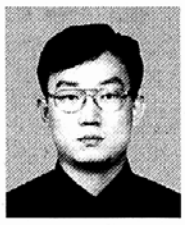


중량 3,300관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사·부·대·중

제자리 지키기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법당에 앉을 때 법랍에 따라 정해진 자리가 있다는 말을 처음 전해들고서는 그 보이지 않는 질서에 경이롭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다. 아무런 경계도 없이 덩그런 법당에도 문쪽과 안쪽의 차이를 두고 다시 앞쪽과 뒤쪽의 구별을 두어 앉는 자리를 정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법당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중에는 청산이니 백운이니 하는 운치있는 단어마저도 정해진 자리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새삼 그 멋스러움에 감탄하기도 하였다.

사실 제 자리를 찾는 일은 스님들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과연 이 자리가 내가 나서야 할 자리인가, 지금이 대목이 내가 말할 대목인가 등등을 제대로 판단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천방지축이라고 부르거나 '막무가내'라고 부르며 상대하지 못할 사람 취급을 한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운영하던 스님의 불미스런 소식은 충격 그 자체이다. 타종교에 비해서 두드러진 사회활동이 적은 불교계 입장에서 나눔의 집은 교계의 사회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일과 운동,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일치시켜 나가야 하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종교인으로서 자세를 지키지 못하여 상호 동료애로서가 아닌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책임에 앞서 그 스님은 계율상의 4바라이죄를 지었다. 바라이는 한문권에서 '단두(斷頭)'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출가한 사람에게는 죽음과 같다는 말이다. 이제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자리에도 설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제 자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목탁소리

또 한번 무너진 감은사탑

권 형 진 (취재2부 기자)

국보 112호인 경북 경주시 감은사터 삼층석탑의 동탑을 둘러싼 말썽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해체복원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부실 복원으로 몸체가 내려앉더니, 이제는 또 96년 해체복원 과정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영수 전 문화체육부장관의 치적을 칭송한 수리기를 원래 수리기 대신 바꿔치기한 사실이 불거졌다.

사건이 커지자 문화재청은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통해 "예로부터 중요한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리할 경우 수리기에 통치권자 치적을 포함하는 것은 관례"라며 이 과정에서 "외부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알려진 사실은 이와 다르다. 원래 수리기에는 복원 이유와 사리합 발굴 · 봉안 경위 등이 새겨져 있었을 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영수 전 문화부장관의 치적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수리기를 사리함과 함께 탑 몸체 안에 넣는 봉안식을 열기로 한 전날 뚜렷한 이유 없이 원래 수리기가 다른 곳으로 실려갔고, 닷새 뒤 김 전 대통령 등의 치적을 새겨 넣은 새 수리기가 도착했다는 것이다.

감은사가 어떤 절인가.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이, 내가 죽은 뒤 화장해 동해에 뿌리면 용이 되어 왜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국 전설이 서린 곳이다. 그 탑은 또 어떤가.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의 원형으로 평가되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동탑 안에서는 우리 나라의 사리장치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사리합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자신의 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 입멸 후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탑을 통해 그 가르침을 새겼다고 한다.

정책담당자들은 탑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문화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치기 어린 발상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하긴 문화와 체육을 같은 범주에 넣고(문화체육부), '문화' 하면 으레 관광을 떠올리는(문화관광부) 정책담당자들에게 이런 상식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인지도 모르겠다.

경전으로 보는 **불교와 정치**

여의도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당4역회의에서 비상설 종교특위를 상설특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여성, 인권, 안보, 국제협력 등 8개 특위에 종교특위가 보태지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결과이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의 부인 한인옥씨를 중심으로 성지순례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전통문화 진흥 정책을 통해 불교계에 어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모두 지난 1월 19일 정대스님의 이회창 총재 비판 발언의 후속조치처럼 보인다.



◇불교는 공화제국가를 옹호하며 권력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사진은 지난 1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정치인들과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정치개입보다 불교이념 전파"

90년 이후 불고계는 몇 차례의 선거 과정에서 호된 홍역을 앓았다. 92년에는 의현 당시 총무원장이 김영삼씨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가 중앙승가대 학인들을 흥분시켰다. 의현스님은 학인들의 요구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수모를 당했다. 지난 해 총선에서는 불교계의 유력 인사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를 보도하려는 언론에 두 손을 비벼야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내년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내년의 정치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 일찍이 '불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내년 선거 앞두고
불심잡기 물밑작업
정치인들 교계발길

경전에서는 불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거센 바람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곧 경전이다. 나아가 정치에 대한 불교의 지도적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불교와 정치의 관계를 얘기할 때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인용하는 관용어가 있다. "출가인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범망경〉의 가르침이다. 이후 이 가르침은 중국으로 들어가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이라는 저술로 정리된다. 여기에서의 왕자란 권력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정점에 서서 권력과 자원을 분배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집단까지도 포함된다. 혜원스님은 5권으로 구성한 이 책에서 출가자가 왕에게 예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출가하여 덕을 완전하게 수행한다면 그 깨달은 도는 육친권속에 널리 감화를 주고, 그 온총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 출가자는 설령 왕후의 위(位)가 아닐지라도 물론 이미 천자의 도와 같은 것으로서 크게 모든 사람들을 많이 기르고 있다."

혜원스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 동진(東晋) 때(403년) 재상인 환현은 왕에 대한 예경론 거둬들였다. 혜원스님의 이 같은 견해는 초기불교의 국가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문은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
초기불교의 교훈

국가의 기원과 성격에 대해 〈구사론〉에서는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대중 속에서 덕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명 뽑아 각각 자신의 수확 가운데 6분의 1로써 이 사람을 고용하고 방호를 맡기며 전주(田主)로 임명했다"고 하였다. 왕은 중의(衆意)에 의해 추대된 사람이라는 인식이다. 바라문교의 제왕신권설(帝王神權說)과는 한참 거리가 먼 국가관이다. 민주공화제, 국가계약설에 더 가깝다.

이후 바라문의 득세에 밀려 국왕의 신성성(神聖性)을 인정하기에 이르지만, 비판적인 입장마저 버린 것은 아니다. "왕은 인간계에 왕으로 태어난 자인데, 인간에게서 태어난 왕이 어째서 신으로 불리는가."〈금광명경〉 그러면서도 국왕의 특별한 지위를 부정하지 않았다. "만일 국왕이 없으면 하루만에 만백성이 황망하고 혼란해져 서로 해치는 일이 끊임없다.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한다. 중생을 은밀히 보호하는 것은 왕이 제석보다도 뛰어남을."〈화엄경〉

반면, 사악한 왕(권력)에 대한 태도는 매우 단호하다. 추방시키라고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면 왕이나 왕의 대재상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극도로 포악하며 자비심이 없고 오로지 타인을 핍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구도자는 힘과 동정심으로 이익과 안락을 줄 마음을 품고 그에 머무르며 그에 의거하여 많은 죄악을 짓게 하는 왕위, 권세, 지배권에서 왕이나 권력자들을 추방시켜 버려라."〈보살지지경〉

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권력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책도 나온다. "출가인은 왕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왕을 가까이 하는 사문은 모든 세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공양받지 못한다. 왕을 가까이 하는 못된 사문은 재물을 바라며, 성이나 마을 혹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항상 재물을 구하며 만족할 줄 모른다. 만일 재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리지어 임금을 가까이 하면 좌선과 독경에 방해된다. 이와 같은 비구는 발심하여 해탈의 길을 가려고 할지라도 도리어 얽매임의 길 속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비구는 왕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정법염처경〉

그러나 찾아와 법을 청하는 권력자를 멀리 하지는 않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들로부터 공양을 받았으며 법을 설했다. 〈불소행찬〉에서는 왕에게 수행자의 처소를 찾아 예경하고 법을 구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불교의 지도적 위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경하고 자문을 구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어떤 것이 유죄이고, 어떤 것이 무죄인가. 어떠한 업을 지으면 능히 행복을 부르고 모든 악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이미 들은 바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여 갈쓸처럼 수행한다."

물론, 경전의 가르침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천구 영산대총장(정치학)은 "불교가 정치에 대해 갖는 관점은 참여적이면서도 갈등을 순화하는 이상적인 정치문화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불교교단은 오늘의 정치제도, 사회제도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형태의 모범을 제시하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즉, 불교 각 종단의 민주적 자율적 능률적 운영과 사부대중의 화합은 불교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발전을 위한 범례로 제시된다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불교 대사회 역할
부처님 가르침으로
화합정치 길 제시

정 총장은 또 "불교가 집단으로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그것은 정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교이념의 강력한 사회 전파 운동을 통해 정치 세계의 이기심과 투쟁심을 완화, 해탈시키고 화합의 정치, 청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서 이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회 안내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당(강남구 개포3동 주공5단지 Apt.)
●내용

첫째주 - **정병조** 박사의 육조단경 강좌	둘째주 - **권기종** 박사의 아함경 이야기
셋째주 - **인환** 스님의 선불교 산책	넷째주 - **김상현** 박사의 한국불교사상사

이 기쁜 만남…불교사상강좌
매년 2회에 걸쳐 시행하는 금번 강좌를 통해서 불교의 정수를 직접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 : 2월 26일(월) - 28일(수)
●시간 : 오전 10시 30분 - 12시
●장소 :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당
●주제 : 불교란 무엇인가?
●강사 : 정병조 박사(본원 원장, 동국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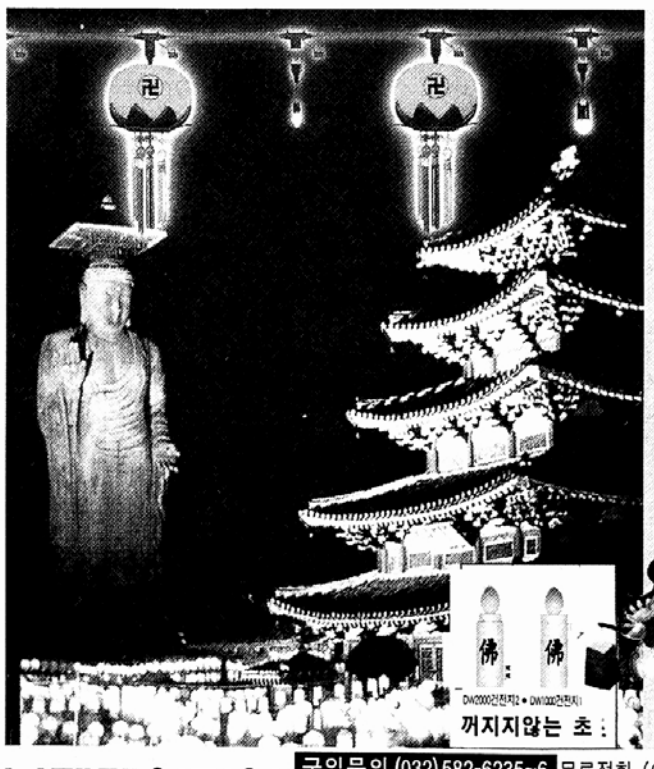
지성불교, 생활불교의 산실…원효학당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
●모집과정 : 동장과정 ○○명
●모집기한 : 2001년 3월말
●강의과목

사기열전(**진성규** 교수 · 중앙대)	화엄경십지품(**송찬우** 교수 · 중앙승가대)
무량수경(**정병조** 교수 · 본원 원장)	법화경(**권탄준** 교수 · 동국대)

☎ (02)3411-6167~8 / 지하철3호선 대치역, 63번 버스 이용 개포동 5단지, 개포빌딩 6층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5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순정품)
▶종류 : 3W, 5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인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안반수의경 ④

생로병사 '苦' 녹이는 안반념

부처님 수행후 자재 · 자비의 경지 얻어

팔정도(八正道)는 수행이 모두 이루어져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가장 올바르고 거룩한 상태에 도달한 경지이다. 곧 깨달은 자의 삶이다. 팔정도는 인생이나 세계에 대한 견해가 공(空)한 그대로 받아들여져 지혜로써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正見),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올바른 생각을 지니고 결의하는 정사유(正思惟), 올바른 생각에 의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는 정어(正語), 일상의 삶에서 스스로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고 진리만을 행하는 정업(正業), 일상 생활에서 정당하고 남에게 해가 없는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정명(正命), 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로서 올바르게 부지런히 애쓰는 정정진(正精進), 항상 무상함과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실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정념(正念), 고요하고 또렷한 마음가짐인 정정(正定)의 여덟 가지이다.

이상의 것들을 합하면 서른일곱 가지의 수행이 된다. 〈삼십칠도품경〉에서 설하고 있는 이들 수행은 〈안반수의경〉의 십힐(十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상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수식(數息)－사념처(四念處), 상수(相隨)－사정근(四正勤), 지(止)－사여의족(四如意足), 관(觀)－오근(五根), 환(還)－오력(五力), 정(淨)－칠각지(七覺支), 사제(四諦)－팔정도(八正道)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안반수의 즉 수식관으로 선악(善惡) · 내외(內外) · 음양(陰陽) · 정사(正邪) · 직곡(直曲) · 귀천(貴賤) · 고금(古今) · 고저(高低) · 정예(淨穢) · 생사(生死) · 승침(昇沈) · 유루무루(有漏無漏) · 강약(强弱) · 동리(同異) · 일다(一多) 단복(單複) · 평등차별(平等差別) · 극락지옥(極樂地獄) · 남북(南北) · 동서(東西) · 표리(表裏) · 미오(迷悟) · 시비(是非) · 화복(禍福) · 심천(深淺) · 능소(能所) · 문답(問答) · 병약(病藥) · 성괴(成壞) · 명암(明暗) · 흑백(黑白) · 피차(彼此) · 본말(本末)등의 상대적인 것을 수식(數息)의 조화통일로 선정(禪定)을 수행하면 청정무위(淸淨無爲)의 경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의 고행 끝에 고행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의 고행자들은 불로장생(不老長生)을 누리고자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인생고(人生苦)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고행을 버리고 즐거운 수행을 창안하였다. 극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대로 삶과 죽음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을 선보인 것이다.

이 안반념법(安般念法)은 불교의 독특한 수행법의 하나로서 호흡에 정신을 집중시키면서 처음에는 수를 세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수를 떠나서 무아(無我)의 세계로 들어가 삼매(三昧)에 이르는 선법(禪法)의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 금강보좌(金剛寶座)에 앉으시어 마지막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도 이 안반념법이었던 것이다.

〈안반수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반수의를 수행하면서 자재와 자비를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자재(自在)란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어 서로 대립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유로움이다. 주관이 객관에 끌리면 객관적인 어떤 대상에게 부림을 당하게 되어 자재를 잃게 된다.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면 대립이 없어지므로 객관이 주관의 세계로 들어와 나의 것이 된다. 이러한 세계를 자재의 세계라고 하며, 그 어떤 대상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와 객이 없는 이 세계에서는 너와 내가 대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비심이 솟아난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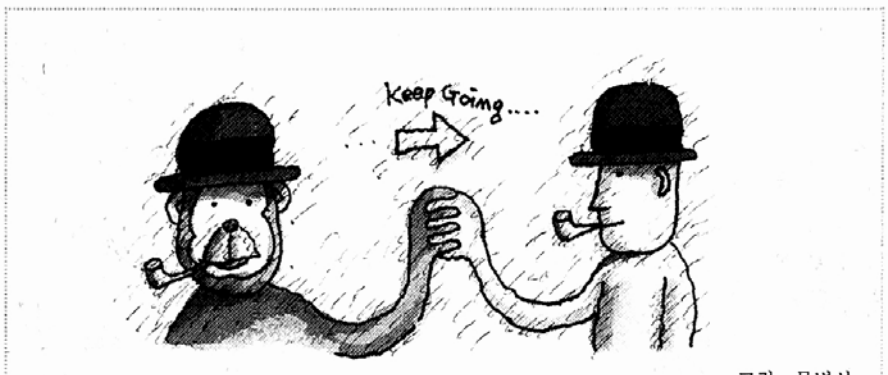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만물은 고정됨 없이 변한다

불교와 과학 〈19〉

유전자 결정론

최근에 유전자 지도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과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들 한다. 유전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여러 견해가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약 사만삼천 개 정도라고 한다.

10억 개 이상의 염기서열이 생명체의 특정한 표현 형질을 나타내는 구성체를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런 유전자의 의미는 모든 유전자가 각각 생명현상의 특정부위에 일대일 대응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예를 들어 혈액암이나 간질 혹은 천식을 발생시키는 생물학적 요인이 고유한 특정 유전자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부른다. 유전자 연구는 유전자 결정론의 생각을 배제하고는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좋다. 그런데 작년에 발표한

과학 유전자 해독 생명신비는 못 캐내

불교 삼라만물 마음이 만들어 낸다

십만 삼천 개의 유전자 수와 이번에 발표한 사만삼천 개의 유전자 수의 차이는 이런 유전자 결정론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였다.

우선 사만삼천 개라는 인간 유전자의 수가 쥐의 유전자의 숫자보다 불과 칠천 개 정도만 많다는 점이다. 인간만의 존엄성을 강조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과학의 결과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숫자 자체가 인간의 생명현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라는 점이다. 사만여 개의 유전자들은 23개의 디엔에이 구조로 되어 있는 염색체에 안착되어 있다. 개체 생명체를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할 때, 그 책은 고유한 염색체의 소제목을 갖는 23 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서로 다른 수천 가지 유전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유전자 결정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5번 염색체 중의 특정 유전자가 천식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11번 염색체 중의 어떤 유전자는 혈액암 유발인자 등의 일대일 대응되는 방식으로 유전자의 인과법칙이 설명되기를 희망했지만, 4만여 개의 유전자를 갖고는 어림도 없는 숫자였다. 예를 들어 1998년 중반에 천식 유발인자는 5번 염색체에 8개의 후보가 있고 6, 12번에도 천식 유전자의 후보가 2개 씩 그리고 11, 13, 14번 염색체에도 그 후보를 발견하였다. 또 과학탐구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다. 유전자 차원에서도 특정 유전자가 질병 등의 특정 생리학적 현상에 대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유전자 결정론을 따르던 과학자들도 유전자 공학의 과학탐구가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결정론적 일대일 대응론이 무참히 붕괴되어 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여전히 매스컴에서는 간암 등의 유전자를 발견하면 간암이 완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장밋빛 희망만 던져주고 있다. 어떤 유전자는 분명히 특정한 생명현상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연관방식이 단순히 일대일 대응되거나 직접적인 인과율에 의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 연관방식은 매우 복잡한 조합구조를 갖는 유전정보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서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일의(一意)적인 해명이 불가능하다.

유전자의 이야기를 불교사상과 직접 연결시키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유전자의 특성을 단순히 물리학적인 소립자와 같은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교와 통하는 점이 있다. 생명체의 유전자는 그 생명체가 살아 있는 시간대의 실체적인 원인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5억 년이라는 과거의 진화론적 시간을 모두 머금고 있는 역사적 존재이다. 모든 시간을 통해 있는 역사 존재로서의 유전자는 단순히 살아 있는 지금 이 시간대에 국한된 현상적인 인과를 법칙에 절대로 묶여 있지 않다. 생명체가 먼저 있었고 유전자는 그 생명체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 만들어진 후조건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공이 앞서 있으며 연기가 나중에 오듯이 생명현상이 먼저이고 유전자가 나중이라는 것이다. 유전자 지도를 찾아내어 모든 유전자의 인과적 대응현상을 전부 찾아 낼 수 있다는 생각은, 생명체가 기나긴 생명의 역사를 거치면서 환경과의 섭동을 통해 (1)자신을 바꾸고 (2)새로 만들고 (3)없어지기도 하고 (4)전혀 다른 것으로 되기도 하는 진화의 과정을 무시한 결과일 수 있다. 생명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하여 궁극적인 세계의 모습은 모든 것이 결정된 실체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과정임이 중론의 중요한 생각이다. 이런 생명의 모습을 잘 관찰한다면 아마도 존재의 무상과 비어 있음을 어깨너머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이 앞선다는 중론의 생각을 생명과학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마도 직접적 인과율로 따지려는 유전자 지도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과학적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걸음마다 독립 염원 97일 고행의 순례길

지구촌 불교 / 티베트인 자유대장정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며 인도 카시미르주를 출발해 장거리 행진을 벌이던 티베트인 42명이 지난달 14일 뉴델리에 도착했다. 에이피나 로이터 등 세계 유수 통신사들은 이를 "티베트인들이 97일간 고행의 대장정을 무사히 끝내고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며 앞다투어 보도했다.

티베트인들이 출발지로 선택한 곳은 지난해 파키스탄 회교도와 인도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카시미르의 카르길로, 이곳에서 달라이 라마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 마을을 거쳐 마하트마 간디 묘역까지의 길은 대부분 비포장 도로일 뿐만 아니라 대지에서 올라오는 열기 또한 뜨거운 곳이다.

해외 통신사에서 주목한 것은 '독립'이라는 염원 속에 티베트인들이 그런 고행 길을 97일간 걸었고, 또 그 무리 속에는 다수의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날 자유대장정에 나섰던 티베트인들은 간디 묘역에서 "이번 대장정이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티베트인들이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유엔(UN)은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성 등 42명 캐시미르~뉴델리 행진

"달라이 라마 망명정부 인정" 성명도

그러나 티베트인들의 순수한 염원이 세계 언론에 그대로 투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티베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들이 우선 지목한 것은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 위치해 있는 티베트는 군사 ·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티베트의 고원 지역은 지리적으로 무기 배치와 개발에 이상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이미 티베트 북동부 지역에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원자력 연구 중심지인 '로스알라모스'에 해당하는 중국군 산하 '제 9아카데미'를 주둔시켰다. 다시 말해 중국과 인도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티베트 고원 지대에 미사일 및 핵시설 등을 갖춘 중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서면서, 인도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완충지대는 목재 · 수자원 · 광물자원 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우라늄 광산까지 있어 중국과 인도의 긴장이 늦추어지기는 당분간 무리일 것 같다.

자유대장정을 이끈 '히말라야 티베트 행동위원회'의 타시 타르기스 딤비르 부위원장이 "티베트 문제의 조기해결에는 인도와 중국의 안보 이해도 걸려 있다"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간디 묘지에 모인 티베트인들은 "중국과 인도는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망명정부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성명서도 채택했다.

인도 동북부 해발 1900미터의 산악지대인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지난 59년 수립됐지만, 이를 인정하는 국가는 아직 없다. 이 지역에서 고유의 종교와 문화를 잃지 않으려 티베트인들이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 몸부림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지금은 망명정부 청사가 자리잡은 거리를 중심으로 사원과 학교가 있으며, 어느 곳에서든 티베트 스님과 불상이며 탱화를 벌여 놓은 좌판을 쉽게 볼 수 있다. 인도에는 티베트로부터 도피한 사람 약 10만 명이 살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2001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이 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파를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학 년	강 의 내 용	모집인원	학 년	강 의 내 용	모집인원
1 학년	상주권공과	50명	특 수	바라, 나비춤, 법고등	약간명
2 학년	각배과	50명	이 론	불교의식론	
3 학년	영산과	50명			

2. 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 증명서 1부 ③ 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2월 12일 ~ 3월 1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범음대학 교무처

6. 합격자 발표 2001년 3월 3일 발표(개별통지)

7. 입학일 2001년 3월 5일 오후 2시(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범음대 TEL 02)392-3234, 종무소 TEL 02)392-3007~8, FAX 02)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神示出刊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육임을 따르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첨화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揭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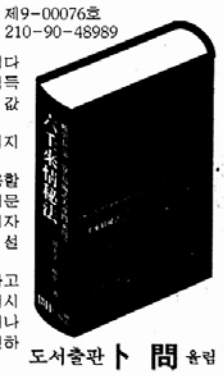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人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250,000원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
(흑색 가죽띠계표지 · 금박 · 95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303호

도서출판 卜 問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전문인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數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선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뵙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받거나 출장하여 活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육임

한글판도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까지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좋은날을 택하셔서 본책을 더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어느가족보다도 행복하다. 첫아들 킴, 둘째 마크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사람들은 묻는다.
앞이 안 보이는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겠느냐고.
엘렌과 그 가족은 말한다.
"서로 믿고 사랑하기에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고…"
눈이 아닌 귀로, 손으로, 세상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들. 보이지 않는 일이 다소 불편해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는다. '보이지 않는 사랑 - 엘렌 가족 이야기'. 한국에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진 네 명의 아이들을 떳떳한 사회인으로 키워 낸 이들의 아름다운 인연과 감동적인 사랑이야기가 지난 18일 KBS 제1TV '일요스페셜'을 통해 방영됐다. TV를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위대한 사랑에 경의를 표했다. 혈육과 인종 그리고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 엘렌과 그 가족이 진정한 사랑과 참다운 보살행의 실천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편집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회복한 둘째 마크가 식탁에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보이지 않는 사랑-엘렌 가족 이야기

삶 자체가 보살행 '불자에 귀감'



◇눈이 아닌 귀로, 손으로, 세상을 느끼고 살아가는 엘렌과 그 가족들. 보지 못하는 삶이 오히려 더 큰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28년을 한 집에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온 엘렌의 가족. 하지만 그들은 자신과 서로의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 집안의 불이 모두 꺼져 있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사랑과 행복을 가꾸어 가고 있다.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엄마 메리 니콜스, 아빠 올로 니콜스 부부는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왔다. 그런 그들이 28년전부터 한국의 맹인 아이들 네 명(엘렌, 킴, 마크, 세라)을 입양하여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왔다. 맹인의 몸으로 맹인아이를, 그것도 혈통이 다른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워온 니콜스 부부. 목소리와 체취만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 가족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결혼 후 니콜스 부부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고, 수차례 입양을 원했지만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아기를 키우냐는 이유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다 한 복지단체의 맹인부모교육을 받고, 76년 12월 2일 처음으로 첫 아들 킴을 입양했다. 한국에서 데려온 것을 기념해 이름도 킴으로 지었다. 입양 당시 2살이었던 킴은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회복했다.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일하며, 지난해 결혼해 따로 한 가족을 이루어 산다.

엘렌의 오빠이자 둘째 아들인 마크 또한 부모의 노력으로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회복됐다. 최근 자신이 일하는 음반가게에서 승진해 집에서 독립해 나갔다. 마크는 스스로를 미국인으로 생각한다. 자신을 버린 한국의 부모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엘렌은 83년 미국에 왔다. 입양 당시 4살이던 엘렌의 한국 이름은 김광숙이었다. 일산 홀트복지재단을 통해 니콜스 부부가 입양했다. 두 오빠와 달리 엘렌은 선천적인 신경계 이상으로 현대의학으로는 이식수술이 불가능하다. 겨우 물체를 덩어리 정도로 인식할 뿐 형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미국에 처음와서 한달 쯤 됐을 때 엘렌의 4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그날 엘렌이 제게 '어부바' 놀이를 하자고 했지요. 그 '어부바'도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빠 올로 니콜스씨는 엘렌을 입양했던 당시의 행복감을 이렇게 말했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에 장애가 있을 수 없어요. 볼 수 없다고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을 안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현재 니콜스씨는 미연방사회보장국에서 33년째 근무중이다. 중증 시각장애인이지만 모니터를 보지 않고도 점자 시스템으로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신의 일을 처리한다. 안정된 직장이 있었기에 니콜스씨는 네명의 자녀를 입양해 키울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니콜스부부
한국아이 4명 입양
가족 6명 시각장애인
눈대신 마음으로 행복

엘렌 가족의 유일한 걱정 거리는 귀염둥이 막내인 세라다. 올해 18살이지만 지능은 2살 정도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와 중증 정신장애(자폐증)를 갖고 있어 주중 5일은 메릴랜드 주립맹인학교에서 교육과 치료를 받고, 주말에만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다. 88년부터 12년째 맹인학교에서 치료와 훈련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장애가 심각하다. 지금도 니콜스씨 부부와 언니 엘렌은 한 집에서 더듬거리는 손길로 세라를 돌보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세라를 사랑해요. 때로 어렵거나 힘들기도 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세라를 사랑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세라도 소외당하지 않고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아이 모두가 버려졌다는 게 너무 가슴아프다는 엄마 메리 니콜스씨. 킴은 경찰서에, 세라는 기차역에, 마크는 어머니가 낳자마자 병원에 버렸다. 엘렌은 시장에 버려져서 종일 울고 다녔다 한다.

엘렌은 요즘 들어 매주 화요일 이웃의 농아형년과 함께 교회에 간다. 장애인이 많이 모이는 한국교회인 워싱턴 밀알 선교회에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다. 자신과 비슷한 한국인들 속에서 동포애를 느끼며, 자신의 정체성 찾기에 한 발짝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엘렌에게 소원이 생겼다. 한복을 맞추는 것. 엘렌의 생일을 앞두고 엄마와 찾은 한복가게에서 엄마와 엘렌은 "이것 참 예쁘다. 짙은 청색은 밉다. 밝은 청색이 예쁘다. 오히려 빨강이 더 낫겠다"며 의견을 나누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색에 대한 개념은 확실해서 고르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색을 본 적이 없지만 이들은 이들의 방식으로 사물과 세상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엘렌은 최근 볼티모어 입양기관을 찾았다. 만 21세가 되어야만 입양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한 법 때문에 엘렌은 생일을 맞은 후에서야 자신과 관련된 기록들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았지만 입양 서류에는 '착하고, 똑똑하고, 안기길 좋아하는 아이'라는 내용 외에는 누가 자신의 부모인지, 어디가 고향인지, 출생과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생모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의 일부가 빈 것 같다고 느끼는 엘렌. '생모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버린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그의 삶에도 추억은 있었다.

"아빠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엄마 아빠 니콜스 부부의 자녀라는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2개월간 엘렌 가족 지켜본 취재진 "진정한 사랑을 봤다"

정현모 PD : '엘렌 가족이야기'를 통해 장애와 혈통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려 했다. 특히 그동안의 입양 스토리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최대한 인류애를 구현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속에서의 일상적 삶의 소중함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다 프로그램에 담지 못해 아쉽다.

엘렌의 경우 너무 밝고 똑똑한 아이다.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영혼이 맑은 엘렌은 니콜스씨 가족의 기둥과도 같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목도 '엘렌 가족 이야기'로 정했다. 엘렌 가족이 사는 동네는 흑인들이 사는 곳인데도 세탁소 가는 일에서부터 시장 보는 일까지 갖가지 문제들을 이웃이 너무 잘 도와준다. 장애를 가진 이웃의 불편함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이승한 카메라맨 : 처음 우리가 엘렌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워싱턴DC에서 볼티모어로 갈 때였다. 초행길이라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니콜스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구했다. 그때 니콜스 씨가 주변 건물의 위치와 이름, 모양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며 길을 알려 주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차로 가는 도중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시각장애인이라 소리에 매우 민감한데, 막내딸 세라에게 밥을 챙겨 주고는 그 옆에 서서 딸아이의 먹는 소리를 귀로 들으며 얼마나 먹었는지를 알아내는 니콜스 씨의 모습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렌과 그 가족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몇 배나 더 섬세하고 예민해서, 처음 일주일간은 우리가 무얼 하는지, 어떻게 찍는지 매우 불안해 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죽엽죽

심장 맑게 하고 두통 해소

"불이야, 불! 지리산에 불이 났다!"

고요하던 지리산 밑 방광면 입대가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집집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삽과 곡괭이, 낫을 들고 지리산 자락을 향해 정신 없이 오르고 있었다. 평소 이렇게 개울을 건너 논길을 달리면 숨이 찰 법도 한데 마을사람들은 어떤 일인지 힘든 줄을 모르고 뛰고 있었다. 얼마쯤 달렸을까. 앞 사람이 "저기다"고 소리쳤다. 불길은 지리산 우번대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불구경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번대의 불길을 바라보던 마을사람은 신기하게도 편안한 느낌에 젖어들었다. 순간, 너도 밝힘이 오고 나도 밝힘이 오면서 희열이 솟구쳤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왁자하던 마을사람들 속에선 아무도 말을 하는 이가 없었다. 더 이상 산불이 아니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자 그 불빛의 광채는 산 속으로 고요히 빨려 들어갔다.

광채가 솟구치던 바로 그 자리에는 늘 보았던 초라한 행색의 나무꾼 스님(당시 마을에선 수월 스님을 그렇게 불렀다) 한 분이 막 참선을 끝내고 아침공양을 준비하느라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스님이 아침 먹거리로 준비하는 것은 대나무 잎을 삶은 물에 쌀 한 주먹을 넣고 끓인 죽이 고작이었다. 천하의 생불(生佛) 수월 스님은 죽엽죽 한 그릇으로 관음의 길을 가고 화엄의 길을 닦으셨던 것이다.

이 일화는, 지금도 전남 구례의 광의면과 방광면, 충남 청양 장곡사 마을에서 촌로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수월 스님은 경허 스님의 맏상좌로 평생 질신을 삼아 길가는 이에게 나눠주며 굶주림을 수행으로 실천하다 1928년 중국 화엄사에서 열반하셨다. 수월 스님이 드신 죽엽죽은 심장을 맑게 하고 열을 내리는 데 좋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죽엽 20g, 생석고(生石膏) 10g, 현미찹쌀 100g

요리법 ①죽엽을 깨끗이 씻어 잘게 썬 후, 15배 가량의 물을 붓고 20여분간 끓여 찌꺼기를 걸러낸다. ②생석고를 부수어 15배의 물을 붓고 30분간 끓이다가 체에 걸러 약액을 받는다. ③이미 불린 현미찹쌀을 솥에 넣고 ①과 ②의 약액과 물을 붓고 팔팔 끓이다가 약한 불로 달여 소금간을 해서 먹는다.

효능 마음의 답답함을 없애며 풍열, 두통, 눈이 핍개지는 증세, 소변에 피가 보이는 증세에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㉑

若隨語生見 齊文作解 逐教迷心
약수어생견 제문작해 축교미심
指月不分 未忘名聞利養之心
지월불분 미망명문이양지심
而欲說法度人者 如濈蝸螺 自濈濈他
이욕설법도인자 여예와라 자예예타
是乃世間文字法師 何名專精定慧
시내세간문자법사 하명전정정혜
不求名聞者乎
북구명문자호

만약 말에 따라 견해를 내고, 글을 따라 해석을 하고, 교(敎)를 좇아 마음이 미혹되어 손가락과 달을 분별하지 못하고(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뜻), 명예와 이익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하면서 설법으로 남을 제도하겠다는 사람은 마치 더러운 달팽이가 자기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히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문자법사(文字法師)일뿐이니, 어찌 선정과 지혜를 닦으며 명예를 구하지 않는 이라 하겠는가.

未專道力 先聖之旨 明瞰日月
미전도력 선성지지 명유일월
豈可廣尋諸義
기가광심제의
不求己身 而永劫沈淪乎
불구기신 이영겁침륜호
但時中觀行餘暇 不妨披詳聖教
단시중관행여가 불방피상성교
及古德入道因緣 決擇邪正 利他利
급고덕입도인연 결택사정 이타이
己而已 非爲一向外求 分別名相
기이사 비위일향외구 분별명상
如入海算沙 虛度光陰
여입해산사 허도광음

〈화엄론〉에 '스스로 결박되어 있으면서 남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였고 또 지공법사의 〈대승찬〉에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도(道)를 가지고 도를 구하려 하는가? 여러 가지 뜻을 찾아 헤매다 제 몸도 미처 구제하지 못하는구나. 남의 어지러운 글만 보면서 지극한 이치가 묘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헛되이 일생을 보내니 영원히 생노병사에 빠지고 마는구나. 흐린 애욕이 마음을 얽어매어도 버리지 못하니 청정한 지혜의 마음은 스스로 괴로워라. 진여법계의 총림이 도리어 가시덤불 거친 풀밭이 되었구나. 누런 잎을 가지고 금이라 하여 그걸 버리고 참 보배 구할 줄 모르니 아무리 입으로 경론을 외더라도 마음은 항상 메말라 있다. 하루아침에 마음이 공한 줄 깨달으면 완전히 갖추어진 진여가 적지 않으리라' 하였다. 또 아난은 '많이 들기만 일삼으면 도력에는 마음을 쓰지 못한다' 하였다. 옛성현의 교훈이 일월보다 분명한데 왜 잡다한 뜻을 찾아다니고 자신에게서 구하지 않아 영겁의 생사에 빠지랴. 다만 관행(觀行)하는 여가에 성현의 가르침과 도에 들어간 옛스님들의 인연을 자세히 살피고 정사(正邪)를 가려 남과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무방하다. 한결같이 밖에서 찾으며 이름과 모양을 분별하기를 마치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세듯이 하면서 헛된 세월을 보내서는 안된다.

혼탁한 애욕이 마음 얽어매어도
버리지 못하니 스스로 괴로워라

華嚴論云 若自有縛 能解他縛
화엄론운 약자유박 능해타박
無有是處 誌公法師大乘讚云
무유시처 지공법사대승찬운
世間幾許痴人 將道復欲求道
세간기허치인 장도부욕구도
廣尋諸義紛
광심제의분운
自救己身不了 專尋他文亂說
자구기신불료 전심타문난설
自稱至理妙好 徒勞一生虛過
자칭지리묘호 도로일생허과
永劫沈淪生老 濁愛纏心不捨
영겁침륜생로 탁애전심불사
淸淨智心自惱 眞如法界叢林
청정지심자뇌 진여법계총림
返作荊棘荒草 但執黃葉爲金
반작형극황초 단집황엽위금
不悟衆金求寶 口內誦經誦論
불오기금구보 구내송경송론
心裏尋常枯燥 一朝覺本心空
심리심상고조 일조각본심공
具足眞如不少 阿難曰 一向多聞
구족진여불소 아난왈 일향다문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범룡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

"비워라, 그래야만 채울 수 있다"

"'게놈'이 뭐여?"

15일 오후에 찾아든 기자에게 범룡스님은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다. 스님의 시선은 신문 한 복판에서 멈춰있었다.

"예, 게놈이란 인간유전자정보를 뜻하는 말인데요… 잘못쓰면 복제인간도 나오고요, 그러면…"

"몸은 같을지 몰라도 마음이야 같을 수 있나. 과학으로 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법이지. 우주대자연의 원리를 누가 주고받고 할 수 있나. 질서를 깨뜨리면 혼란이 올 것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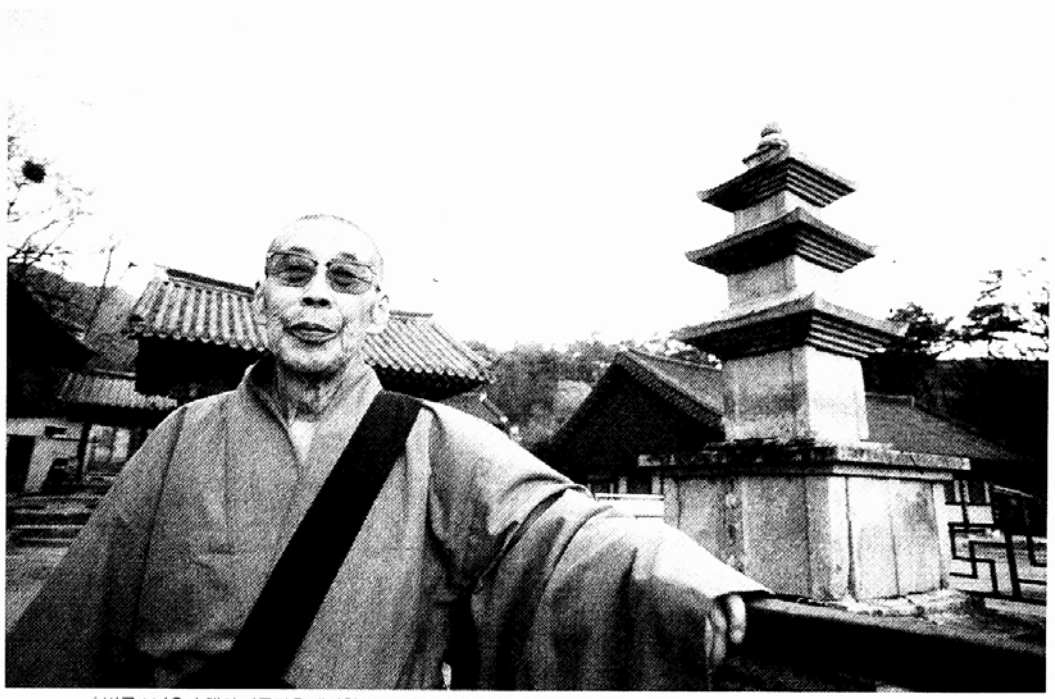
세수 88세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단박에 '큰 스님'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무게'를 느꼈으리라. 하기야 범룡스님이 어떤 분인가. 스님을 배출하는 계단(戒壇)을 관장하는 조계종단의 전계대화상이 아니던가.

"전계화상? 그게 뭐 중요한가, 수행만 잘하면 되지."

그랬다. 수행만 잘하면 된다는 스님의 말씀은 스님 자신이 평생 지키고 살아온 신념이자 자세다. 스님은 지금도 하루 4시간 이상을 자지 않는다. 밤 10시경 들어간 잠자리에서 깨는 시간은 새벽 2시. 이때부터 아침 6시까지 참선에 든다. 죽으로 아침공양을 하고 나면 또다시 참선에 몰입한다. 점심공양은 따로 하지 않고 참선과 경전읽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낸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 위해 일간신문 하나를 뜬어보는 것이 쉼이라면 쉼일까.

"스님, 계율이란 무엇입니까?"

"무리 사이에는 질서가 있는 법이지. 계는 질서는 바로잡는 것이라고 보면 돼. '이계위사(以戒爲師)'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계로써 스승을 삼으라는 뜻이지. 자장율사도 '영위지계 일일생(寧爲持戒 一日生) 이언정 불위파계 백년생(不爲破戒百年生)'이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계를 지니고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파하고 백년을 살지 않겠다는 말씀인데 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면 참수행을 하기는 어려워요. 계율에서 겨란 꼭 지켜야 하는 것이고, 율이란 시대와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지. 율이라는 글자에는 '지범개차(持犯開遮)'이 넉 자의 뜻이 들어있는데, 가지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가지기만 하면 고집불통이 돼서 못써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이 율이지."



◇범룡스님은 수행의 바른길을 제시할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이 없으셨다. 스스로 깨우치고 찾으라는 가르침이다.

스님의 하루일과
참선 · 경전읽기 반복

"수행만 잘하면 된다"
평생 지켜온 신념

"가지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글쎄, 지범개차라니까."

더이상 말씀이 없으셨다.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지식이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무언의 꾸짖음인가.

22살에 출가했으니 산문에 들어선 지도 벌써 66년째. 스님은 금강산, 구월산, 묘향산, 지리산 등 전국 팔도에서 선방을 찾아다니며 수행을 늦추지 않았고, 한암, 만공, 동산, 효봉, 경봉스님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는 등 한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화엄경〉, 〈능엄경〉에도 능해 후학들로부터 선 · 교 · 율을 모두 갖춘 몇 안되는 선지식으로 알려져왔다.

범룡스님은 한암스님으로부터 받은 무(無)자 화두를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다. 유점사 승가대학을 마친 뒤 범룡스님은 곧바로 상원사 한암스님을 찾아가 참선과 〈금강경〉을 주로 배웠다. 범룡스님은 한암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을 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했다.

"참선을 하다가 십종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몹시 궁금했지. 어느날 한암스님께 여쭈었더니 스님은 화두를 들 때 망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십종병이라고 하시더라구. 한암스님을 만난 것은 내겐 행운이었지. 지금 공부하는 수좌들이나 불자들이 참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좌선하는 사람은 누구나 화두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화두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선이 아니야.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틈새로 망상이 나오는 법이지."

"그렇다면 망상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무슨 방법, 스스로 깨우치고 찾아야 하는 거지."

어리석은 질문이었음을 깨닫기도 전에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을 펼쳤다. 그리고는 신문지의 여백에 한자 한자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다.

'거중중(居衆中)하여 심상평등(心常平等)이어다, 할애사친(割愛辭親)은 법계평등(法界平等)이니 약유친소(若有親疏)면 심불평등(心不平等)이라 수부출가(雖復出家)나 하덕지유(何德之有)리오'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마음을 평등하게 할지어다. 애정을 끊고 부모를 떠난 것은 온 법계를 평등하게 보는 것이니 만일 친하고 덜 친함이 있으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것이니 비록 출가는 했지만 어찌 덕이 있겠는가 하는 뜻이야. 나는 〈초발심자경문〉 중에서도 자경문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중히 여기지. 그런데 말야, 10년 뒤에 미륵부처님이 난다느니, 어떤 사람은 벌써 났다느니 허망한 소리를 하는데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아도 스스로 따르지 않는다면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말이야."

21년간 이곳 비로암에서의 스님의 생활을 엿보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불사(佛事)란 성불

교수초빙

세계수준의 대학원대학교를 개교하기 위하여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에서 다음과 같이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 초빙분야

학 과	전 공 분 야	초빙인원	비 고
불교학과	불교교학(원시불교)	1명	계약제 임용
	불교교학(유 식)	1명	
	심리학	1명	
	사회복지학	1명	

● 지원자격 가.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다. 불교를 이해하고 신심이 돈독한 분

●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 제출
다.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빙자료, 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함) 각 1부
라. 연구실적물('97. 3. 1. 이후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각 1부
마. 석·박사 학위논문 각 1부
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제출기한 2001. 3. 5 ~ 2001. 3. 7. 17:00까지

● 제 출 처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 비즈니스센터 705호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 설립추진위원회

●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2001. 3. 7.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외국어로 된 각종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는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자격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불교 신자인 분은 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아. 본 대학원대학교 개교 지역은 서울특별시내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 02-3486-830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1. 2. 21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

혜경스님의 〈법화경〉강의

〈법화경〉의 권위자이신 혜경스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실상론(實相論)을 중심으로 법화경 강의를 개최하오니 많은 수강 있기를 바랍니다.

아 래

■ 강 사 : 혜경스님
■ 내 용 : 실상론(實相論)을 중심으로 한 법화경
■ 일 시 : 2545(2001)년 3월 3일 개강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강의
■ 자 격 : 법사자격증 소지자.
법사가 되고자 하는 분.
■ 장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27-51 무설정사

※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출강 및 통신반 가능합니다.

무설정사
02) 990-7597, 7598
一 如 會 (無說精舍 內)

중국최고 국립한약대학
산동 중의약대학 학생모집

모집요강
■ 한의대학생 모집

학 과	학 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학능력과 관계없음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2 유학생 신청서 1통 3 여권용사진 8매 4 국제 건강 진단서
중의외과	5년	
중약학과	5년	

학교소재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제약공장, 교육병원, 제약연구소 등
▶ 외국인 기숙사 완비
▶ 군입대 연기 (6년)
■ 주소 : 中國濟南經十路53號
■ 중국학교 전화 : 0531) 296882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51)626-4730 · 051) 469-12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습관으로 문의 바람

대한불교 약사종 총무원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맥과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호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www.korea-art-gallery.org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unjang21@kornet21.net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농 협 307077-51-031273 운장사
덕화산 돌탑부처 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한국불교 예술문화원

범룡스님은

한국불교 대표적 선지식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지식' '고요한 바다' '청렴결백한 성품' '철저한 수행자' '수행의 실천가'

범룡스님을 모시는 제자들은 한결같이 스님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인다. 온종일 가도 단 한마디조차 없을 때가 다반사라고 한다. 연로하신 까닭에 지금은 논밭을 일구시지 않지만 3년전까지만 해도 하루종일 흙속에서 사셨다. 상좌 성팔스님은 "큰스님의 시봉이 됐다니까 어떤 스님이 발우를 선물하며 저보고 행복한 놈이라고 하데요. 그런 큰 스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는 말이었죠"라고 술회했다.

범룡스님을 시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성팔스님이 범룡스님께 들었던 말씀은 "아상을 버리고 공부에 열중해라. 경을 알고 참선을 하는 게 좋다"는 단 한마디뿐이다.

비로암 주지 수련스님은 "20년 가까이 스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스님께서 손수 다하시니 해드릴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늘 조용하시면서도 철저한 수행을 하시면서 평상심 그대로 사시는 모습 자체가 저희에게는 수행의 귀감이죠" 라고 말했다.

언젠가는 정당 간부들이 범룡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비로암을 다녀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참 수행자를 봤다"고.

1914년 평북 맹산군에서 태어난 스님은, 1935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 38년 만허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유점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41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상원사 수덕사 범어사 해인사 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수십안거를 성만했다. 80년 동화사 주지, 94년 봉암사 조실을 역임했으며, 77년부터 지금까지 동화사 비로암에서 주석해 오고 있다.

(成佛)하는 것"이라며 수행정진에 게으르지 말 것을 강조했고, 스스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비로암 주석 초기에는 논과 밭에서 하루를 보낼 정도였다고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고, 참선하고 경전을 읽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이를 견뎌내는 제자가 없을 정도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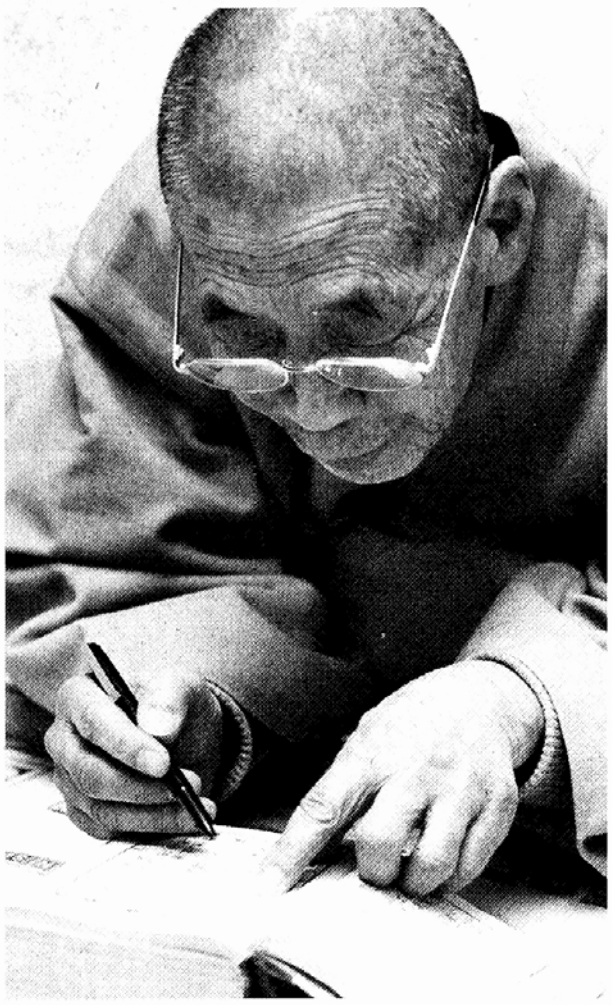
스님의 이런 구도열은 젊어서 이미 그 본모습을 드러냈었다. 한암스님에게서 참선과 경전을 공부 한 후 어느 해인가 화두를 참구하며 오대산에서 부산 범어사까지 걸어서 내려갔다. 옛 조사들이 일보일배(一步一拜)를 하면서 도를 찾으려 했다는 데 절은 못할망정 걸어서라도 가야겠다는 굳은 구도심에서였다.

뿐만 아니다. 스승과 경전에 대한 애정은 구도심만큼이나 깊었다. 범룡스님이 한암스님 아래서 공부하던 당시 〈화엄경〉에 우리말로 토를 달아놓은 것이 없던 때였다. 범룡스님은 후학들을 위해 〈화엄경〉에 토를 달겠다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화엄경 절요〉를 붓글씨로 정리해서 한암스님께 드렸고, 한암스님은 이를 바탕으로 토다는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범룡스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기 어려웠다. 스승의 뜻을 묻어둔다는 것도 제자로서 도리가 아니었지만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한암스님의 토가 달린 〈화엄경〉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원사에 보관돼 있던 한암스님이 쓴 책을 가져와 영인해냈다. 출판을 위해 세 달 이상을 비로암에서 대구 시내의 출판사까지 버스를 네 번이나 갈아타면서 끼니도 거른 채 영인작업에 매달린 결과였다. 화엄경의 이치를 알리기 위해 98년에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씩 '화엄경산림법회' 를 열고 화엄사상을 펴기도 했다.

상좌 수련스님(비로암 주지)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원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원사까지 가서 책을 가져오고, 스승의 업적에 한치라도 누가 될까봐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화두와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틈새로 망상이 나오는 법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스님, 공부하는 불자들을 위해 한 말씀 더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부처되면 저절로 알게 될텐데 물을 게 또 있나"

그저 불자들에게 전해줄 말씀 한마디 더 듣자고 작정했던 기자는 몽둥이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막무가내로 자리를 틀고 앉아 있자니 스님은 조용한 미소를 머금은 채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 뒤 스님은 다시 입을 여셨다.

"불법이 좋다해도 무엇이 좋은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삼매에 들어야 부처님 법이 좋은 줄 알텐데, 삼매라는 것이 들고 싶다고 드는 것도 아니고,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불하겠다는 간절한 신심이 있어야 가능해요. 삼매에 들어보시오. 손도 안 움직여지고 눈도 고정되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마음이 정해지기 때문이지. 삼매에 들면 내 눈이 거울이 되고 밖의 사물이 와서 저절로 비춰져요. 보겠다는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발심하는 때와 성불하는 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발심만 투철히 하면 그 시간이 곧 도를 깨닫는 때야. 그러니까 발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참선할 때 우리는 참구한다고 말해요. 참선이란 스스로 하는 것이요, 시간에 얽매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스님은 또 〈초발심자경문〉을 펼치시더니 책 끝부분을 읽어 내려갔다. "권여은근수선도(勸汝慇懃修善道) 하나니 속성불과제미륜(速成佛果濟迷倫)이어다. 금생약부종사어(今生若不從斯語)하면 후세당연한만단(後世當然恨萬端)하리라. 간절히 권하나니 선도(善道)를 닦아 불과(佛果)를 빨리 얻어 번뇌에서 헤매는 중생을 제도하라. 금생에서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후세에 한탄이 클 것이다. 부처님 법문은 알아도 듣고 몰라도 듣는 게지 모른다고 안 들으면 영영 모르게 되지. 듣기만 해도 좋다는 신심으로 들으면 차차 알아지는 게라."

눈으로 뒤덮인 비로암을 뒤로하면서 허공을 바라보셨던 스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다. '공간처럼 비워라. 그래야만 가득 채울 수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불법을 따르라는 스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나마도 깨우치지 못했을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은 동대구를 출발한 기차가 서울에 도착할 무렵이었다.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지행스님

먹향기가 그득한 연꽃 한 송이가 통영에서 여기 보령까지 배달되었다.

"그 얼마만큼의 거리로 살던 함께 천년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란 글귀와 함께 그 그림을 내 방, 내 눈 높이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문득문득 그리워하면서 그 작품을 내내 감상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있는 말과 글을 승화시켜 표현하는 것을 일러 '작품' 이라고도 하고 창작이라고도 한다.

그 작품의 값어치는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고귀한 매력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글과 작품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느끼는 감성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글을 읽은 사람에게, 아니 어떤 작품을 함께 감상할 경우 꼭 그 느낌을 물어보는 것도 얼마만큼 나와 함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 공감을 나눌 수 있을 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환희심을 느끼며 작가의 작품세계를 감히 넘나들 수 있을 것이다.

지행스님, 남도의 끝자락 통영에서 먹향에 취해 붓을 놓지않고 살아가고 있는 스님이다. 붓을 놓지않고 정진하고 있지만 세간에 떠들석하게

붓글씨 솜씨 숨은 실력자
언제나 해맑은 미소

이름을 내걸고 전시회를 하거나 그룹전에 작품을 출품하면서까지 본인의 이름을 내놓지는 않는, 숨은 실력가이다. 어쩌다 한번씩, 아니 해가 바뀌게 되면 연하장용으로 글씨를 보내주는데 그 글씨는 이름을 내걸고 요란하게 거듭 전시회를 하고 있는 스님들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올해는 언제 또 습득을 했는지 글씨가 아닌 그림으로 안부를 전해왔다. 스님을 생각하면 먹향기 이전 코스모스 꽃을 연상하게 된다. 내가 스님께 지어준 또 하나의 이름이다.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지천으로 피어오르는 운문의 도량에서 내가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이다.

그만큼 스님은 순박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맑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 어릴 때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도 스님은 그냥 그 마음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어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내 몸에 꿈틀거리는 탁한 기운들이 쏴 하고 빠져나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

지행스님과 나는, 두사람 만이 간직하고 있는 추억이 하나 있다. 강원 때의 일이다. 화엄경 졸업반 때는 졸업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여행비를 낼 수가 없어 고민을 하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에게 도움을 청할수도 있었지만 왠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나의 불편한 마음을 알았는지 어느날 지행스님이 내게 말했다. 그렇게 고민할 것 없이 함께 탁발을 나가 보자고. 그때 스님은 은사스님께서 조그마한 절의 주지로 계셨기 때문에 학비 등 용돈을 타 쓰기 때문에 별 불편이 없이 살고 있었지만 나의 은사스님은 선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환경이었다. 이런 내 마음을 헤아리고 탁발을 권유하고 또 함께 동행해 주었던 지행스님. 나는 그때 지행스님과 더불어 대구 시장통을 누비면서 최초이지 마지막으로 한 바루 가득 탁발을 하여 그 덕분에 졸업여행 뿐 아니라 마지막 강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탁발에 관한 추억은 지행스님과 나만이 아는 일이지 아무도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졸업할 무렵도 그랬다. 짐 하나 갖다 놓을 곳 없는 내게 스스럼없이 은사스님의 조그마한 암자로 안내해 준 일도 잊을 수 없다. 그때의 힘든 기억들이 어느만큼 나이를 먹고 나니 정말 돈 주



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추억이 되고 말았지만 그 덕분에 지행스님은 내 마음속 깊숙이에 자리하게 되었다.

요즈음 젊은 스님들 대부분은 구속을 싫어한다. 그 구속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형식적인 구속을 싫어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은사스님이나 어른스님들을 모시고 사는 것을 꺼려한다. 그런데도 지행스님은 노령의 은사스님을 모시기 위해 다년간의 수좌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사스님이 계시는 사찰로 들어가 본인과는 맞지 않다고(살림하는 일이) 하면서도 열심히 맞추어 살고 있다. 열심히 포교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틈틈이 자기만이 창출하고 표현해 가는 작품생활에도 게으름이 없다.

삶의 굴곡을 내 업력이라고 담담히 받아 삭히면서 하루하루의 수행을 다시 점검하는 도반 지행스님이 사는 통영의 푸른 바다, 그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는 한,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탁한 공기가 우리들을 에워 쌀지라도 스님의 해맑는 미소는 그득 피어 올라 그것을 정화시킬 것이다.

▩ 세원사 주지

설산스님 에세이

덧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스님의 구도에세이

알몸

청어와삐삐 02-586-0477 가격 780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망울 피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 영 숙

▷ 승용차 운행:전화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세계 백화점 정문
역곡 남부역쪽 1호선 하차→
기업은행 정문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참선교육

■ 참선교육 53기 안내 ■

한생각 일어났을 때 단속하지 못함을 두려워 할지언정 깨닫지 못함을 두려워 하지 말라는 조사들의 정통참선법인 화두선을 종지로 하고 교육을 시키는 곳은 본회 밖에는 없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53기 참선교육(하안거전)에 동참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께 홍보바랍니다.

■ 기 간 : 2001년 3월 6일 ~ 2001년 4월 3일 (5회)
■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시~9시
■ 장 소 : 본회 선방 (조계사 후문 원당빌딩 2층)

일 자	교 육 일 자
3월 6일 (화)	참선의 자세
3월 13일 (화)	참선의 종류
3월 20일 (화)	선종발달사
3월 27일 (화)	화두의 중요성
4월 3일 (화)	화두 참구법

■ 동 참 비 : 3만원 (교재 교재비)
■ 교재제공 : 참선교육 책 1권, 참선교육 테이프세트 (10개)
대형 선종발달사 도표
■ 접수문의 : ☎ 732-5960

※ 강남 선방 (봉은사 일주문 옆 버스정류장 5층 건물 (3층)
참선교육 3월 8일 ~ 4월 6일까지 5회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매주 목요일은 강남선방)

대한불교 조계종 修禪會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1년 3월 12일까지
◆ 개강일시 : 2001년 3월 13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 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선무 치료예술로 대중화"

'선무기법…' 펴낸 이선옥씨

미국 · 유럽에 선무 보급
'색즉시공 2001' 3월 공연



"선무기법은 동양 선(禪)과 서양 예술심리치료의 만남입니다. 육체적 병의 원인 대부분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동작을 통한 명상법을 사용하는 선무기법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기여할 건강무용의 새로운 한 형태가 될 겁니다."

인천 용화사 조실 송담스님께 '이 뭣꼬' 화두를 받았고, 미국에서 숭산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직접 선방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뉴욕선무단을 이끌며 미국과 유럽 등지서 선무라는 새로운 현대무용의 분야를 개척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 선무가 이선옥씨.

그런 그가 선과 무용을 결합한 선무치료예술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나선다.

현재 상명대 무용과 겸임교수이자 아시아 태평양지역 공연예술 네트워크 APPAN(Asia-Pacific Performing Arts Network) 사무총장이기도 한 이씨는 최근 〈선무기법과 선무치료예술〉(집문당)을 발간하고, 수행 방편이자 무대예술로서의 선무에 이어 치료예술로서의 선무를 대중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씨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오는 3월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 백상한의원(원장 배오성)에 문을 여는 선무치료예술센터의 소장으로 부임해, 직접 선무치료예술로 임상에 나선다. 주 3회 선무치료예술센터에서 척추환자를 비롯해,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선무와 그림, 음악 등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치료하는 구체적 방법들을 시도하게 된다.

"선무치료법은 단순한 동작들로 이뤄지는데, 단전부위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동시에 수인법과 이뤄도 물음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연습과정은 동작동작의 연결에 완전한 정신집중을 요하게 되고, 완벽한 정신통일로 이뤄져 그 과정 자체가 치료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씨는 서양예술가들과 심리치료사, 정신과의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명상기법, 요가 등을 도입해 새로운 장르의 기법을 창출해 내 새로운 예술치료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선무의 원리에 의학을 접목시켜 국제적인 한 분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대 창작무용으로서의 선무의 진면모를 공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APPAN 활동을 통해 세계인들과의 교류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씨는 이같은 활동의 하나로 오는 3월 25일 국립민속박물관 실내극장에서 '색즉시공 2001' 선무 공연도 갖는다.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선무가 이선옥 씨는 선과 무용을 결합한 선무 치료예술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나선다.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건축구조와 절제된 미, 소박함 등으로 탈권위적 건축물의 한 전형을 보여준 정토사 무량수전.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
'올해의 건축물' 대상

한국 건축가협회 주관

종교적 권위나 관습에 기대기를 포기하고, 절제된 선과 소박한 분양, 색감으로 현대적 사원양식의 모델을 선보인 전남 담양군 정토사 무량수전이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건축물'로 선정돼 22일 서울 LG아트센터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토사 무량수전은 선 건축가로 알려진 이도건축 소장 김개천씨가 설계 시공을 맡아, 지난 99년 10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완공했다.

전통 한옥 형태의 기존 사찰 건물 형식에서 탈피, 콘크리트 직선구조와 법당 벽체에 설치된 140개의 창문을 통한 개방효과, 외부단청을 생략한 절제미 등 독창성과 예술성, 철학적 요소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본심에 오른 50여 건축물들을 제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지 혜공스님은 "불교가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건축물부터 거리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도건축 김소장과 많은 의견을 나누며, 무량수전 불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건립할 무영탑과 문화관도 독특하고 새로운 양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불교TV 7개 프로그램 신설

경전강좌
철학강의
드라마
만화
법문
건강체조

경영위기를 맞은 이후 재방송이 많았던 불교TV가 개국 7주년을 맞아 신규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활로 모색에 나섰다. 불교TV는 3월 5일부터 경전강좌, 철학강의, 드라마 및 만화, 법문, 건강체조 등 7개 포교프로그램을 신규 제작해 방송한다.

동국대 철학과 강사 김종욱씨가 마이크를 잡은 '불교와 철학과의 만남'(수, 낮 12시 25분~오후 1시25분)은 서양의 전통 및 현대철학, 중국의 전통사상 등과 불교철학을 꼼꼼히 비교해가며 설명해주는 강의 형식으로 꾸며진다.

진옥스님(여수 석천사 주지)이 진행하는 '금강경으로 건너는 21세기'(토, 오전 8시50분~오전 9시20분)는 금강경 사상을 현대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또 승속을 초월한 선지식들이 출연해 사적인 주제로 법문하는 '향기로운 말씀'(목~토, 오후 3시55분~오후 4시)과 매주 교제에서 일어나는 행사소식, 미담사례, 화제의 인물 등을 소개해 주는 'bn 열린마당'(토, 오후 5시45분~오후 6시25분)도 이번 개편에서 눈여겨 봐야 할 프로그램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불교와 철학과의 만남'을 진행하는 김종욱씨가 불교사상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문화소식

금니사경 회향전
27일부터, 예술의 전당

지리산 벽송사 서암에서 참선수행을 하며, 하루 3~4시간씩 사경을 해온 원응스님의 '화엄경 금니 사경 회향전'이 27일~3월 5일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되는 〈화엄경〉은 스님이 지난 85년부터 시작해 15년간 작업해 온 것으로 〈화엄경〉 금니사경 80권을 비롯해 〈화엄경〉 사경 80권, 〈반야심경〉 금니사경, 〈금강경〉 10폭 병풍 금니 등 180여 점이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도 전시를 가진바 있는 스님은 오랜 동안 해온 사경 작업을 회향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02)580-1511



◇원응스님

손연칠 팔상도전

동국대 손연칠교수의 '팔상도 전'이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열린다.

손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채색기법과 동유화 기법을 적절히 사용해 '출가' '정각' '전법' '열반' 등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찬란한 금박에 오래되고 바랜 듯 한 질감, 거친 필치, 긴장감 있는 구성 방식은 전통불화와 현대회화의 만남이 아니면 불가능한 미감을 표출한다. 02)725-1020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지난 2000년은 프랑스의 행동주의 작가 생 텍쥐페리(1900~1944)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의 고향인 프랑스 리옹 시가 공항 이름을 '생 텍쥐페리 공항'으로 새롭게 명명하는 등 그를 기리는 행사가 전세계적으로 이어졌는데, 한국에서도 모 대학의 인문과학연구소 주최로 추모 학술대회가 열렸다. 나도 그 자리에 나가 '어린왕자'와 화엄경의 선재동자 이야기를 비교하는 글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생 텍쥐페리는 과연 어떤 체험을 했기에 '어린왕자'와 같은 글을 쓰게 되었을까? 먼저 그의 직업이 당시로는 최첨단이었던 비행기 조종사였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비행기를 몰던 1930년대에는 지금 같은 전자항법 장치가 있는 대형비행기가 없었다. 비행사가 시계비행을 해야 하는 경비행기만 있던 시절, 그는 특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일에 적극 나섰다. 그가 다닌 하늘길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거나, 남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난코스였다. 그 와중에 사하라 사막이나 안데스 설산에 불시착하여 사경을 헤맨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생 텍쥐페리 '어린왕자'

맑은 심성 되찾자
끊임없는 목마름
우리 모두 '어린왕자'

깜깜한 밤하늘, 번잡한 인간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입열편주에 몸을 싣고 무한한 우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별빛의 세례를 받으며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는 어머니의 태(胎) 속 같은 4차원의 조종실에 홀로 앉게 되면 인간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생 텍쥐페리는 최신 과학기술이 집약된 비행기의 조종간을 잡고, 처음에는 과거 어떤 인간도 다닌 적이 없는 하늘에 홀로 떠서 자신이 인간 진화의 최선봉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를 엄습한 것은 인간 존재의 왜소함과 우주의 광막함이었다.

생 텍쥐페리가 망망한 우주공간에 외롭게 떠있을 때 그에게 말을 건네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어린왕자였다. 어린왕자는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의 분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의 이미지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어린왕자는 바로 그의 '마음'의 의인화였고, 본래면목의 현현이었던 것이다. 그가 밤하늘이라는 오지에서 맞닥뜨린 것은 바로 인간 존재의 핵심인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화가 지망생이었던 그가 나중에 직접 그린 어린왕자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가 죽기 일년 전 발표한 동화 '어린왕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은 것은 그 주제가 철저하게 인간의 마음을 겨냥한 것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물과 같다. 시냇물이나 호수물이나 모든 물은 원래 맑았다. 아무리 흐린 물이라도 가만히 내버려두어 이물질을 가라앉히면 본래의 맑은 성질로 되돌아간다. '물을 마시면서 그 근원을 생각한다(飮水思源)'는 옛말이 있다. 어디 물을 마실 순간 만이겠는가?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본래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맑은 근원에 대한 끊임없는 이 목마름은 우리가 본래 맑았다는 증거이다. 물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그 본질은 맑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가고 세속에 물들어가도, 우리 모두는 변할 없는 '어린왕자'이다.

■문학평론가

상표등록
미 수 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안전 인등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본 제품의 가벼움과 완벽한 결선으로 법당 내부에 늘어지는 현상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인등은 내부전압 변환 트랜스 에 전혀 발열이 없음.
◎ 주문시 법당 일년등용 전구설치는 법당 규모와 등의 규격에 따라 전구의 간격이 달라지므로 전화 주시면 일차 방문하여 간격과 수량을 맞추어 드립니다. (설치예정일 2~3주전에 전화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1, 전남1, 서울, 경기2
◈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011-599-8287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경주 054-772-2667
충남대리점
017-209-9042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주) TG 반도체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 강) (핑 크) (노 랑) (연 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 강) (노 랑) (오 색) (차걸이등)
만 월 등
(핑 크) (노 랑) (오 색) (만월장등)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정혜결사' 한국 간화선의 뿌리

"시대는 변할지라도 심성(心性)은 변하지 않는다." 고려불교의 극심한 부패상황에서도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태도는 확고했다. 당시 승가에 대해 환멸과 좌절감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던 스님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참다운 자기 자신의 발견(깨달음)과 그것을 가꾸어(수행) 가는 일이었다.



'지눌의 선사상' 길희성 지음

그 의지는 속세를 떠난 첫 출가에 이어 두 번의 두문불출 정진과 이상적 출가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정혜결사운동을 단행했다는 점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길희성(서강대 종교학과) 교수가 내놓은 〈지눌의 선사상〉(소나무)은 이러한 지눌의 삶과 선사상의 핵심을 간결하면서도 심도 있게 천착한다. 이 책은 우선 지눌의 선사상 조명에 앞서 역사적 배경과 자료를 토대로 한 지눌의 전기에 대해 탐구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눌 선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한다.

선교대립 등 심각한 고려불교의 상황 속에서 등장한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는 '선주 교종적 선교회통론'을 전개한다. 선은 부처님의 뜻(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입(말씀)이라는 지눌의 선교일치의 정신은 조선 중기 서산대사에 의해 그대로 수용되어 오늘날까지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역사적 배경·자료바탕
지눌의 선교회통 밝혀

글쓴이는 "지눌은 지적 알음알이의 병통(知解病)에 대해 염려하고 화두를 참구해 깨달음에 이르는 간화선을 인정하지만, 무조건 간화선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지눌 선사의 선 사상에서 돋보이는 특징이다.

지눌의 선은 교(敎) 지향적이며 지적 성격이 강하다. 불법에 대한 참된 언어적 가르침인 여실언교(如實言敎)가 바로 그것이다. 지눌은 불법에 대한 이해 없이 맹목적으로 수행에 열중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처럼 선사이면서 '교를 통해서 마음을 깨달으려는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화두선은 뛰어난 근기를 갖춘 수행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수행법이란 것도 그 이유다.

또한 지눌은 자신의 이러한 사상적 성취를 정혜결사 운동을 통해 실천해 옮긴다. 수선사에서 벌인 이 운동은 스님이 바람이었던 이상적인 수행 공동체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사상적 토대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하나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기된 성철 스님의 선사상을 지눌의 선사상과 비교하면서 비판을 가한 것이다. 성철 스님의 비판의 핵심이 지눌 사상의 일부분인 돈오점수론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철스님이 중시하는 대혜 선사의 간화선 전통도 한국불교의 재양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다 지난 99년 입적한 운제 스님(전 태고종 총무원장).



◇보조국사 지눌 진영(동화사 소장).

〈침굉집〉은 침굉 스님이 남긴 유일한 저서로 원 목판본은 스님이 오랫동안 주석했던 선암사에 소장되어 있다. 이 문집은 침굉 스님이 입적한 12년 뒤에 제자들이 흩어져 있는 글들을 모아 상·하 두 권으로 펴낸 것이다. 상권에는 오언절구 28수, 칠언절구 45수, 오언율시 8수, 칠언율시 32수가 들어 있고, 하권은 '친한 벗에게 드리는 글' 등 문학성 높은 27편의 산문이 수록돼 있다. 또한 부록으로 침굉 선사의 행장과 사상, 그리고 〈침굉집〉 원문도 함께 실려 있다.

침굉 스님은 법호에 나타난 것처럼 일생동안 팔꿈치를 베고 주무신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불교학은 물론 세속의 학문에도 뛰어났으며 특히 문학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고 한다.

옮긴이는 "침굉 선사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문학에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스님의 근본사상은 참선에 있다"고 밝혔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지금까지 지눌에 대한 논문은 많았다. 하지만 지눌의 전 생애와 선사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작업은 고 이종익 교수의 〈고려 보조국사 연구〉(프린트본, 1974)이외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점 또한 이 책이 이룬 값진 성과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논쟁 불붙는 도올 고전강의



동양 철학의 대중화 바람을 일으킨 철학자 도올 김용옥(사진). 그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한 여성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자를 웃긴 남자〉(자인) 두 권을 내놓은 이경숙(필명) 씨가 바로 그 주인공. 그는 "도올이 전 국민이 보는 TV에 나와서 고전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삼류 개그쇼를 한판 대린 거다"며 들머리에서부터 도발적인 언어로 비판을 시작한다.

〈도덕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는 이 씨는 도올이 첫 문장부터 오역으로 시작해 마지막 구절까지 옳게 번역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릇된 번역인지를, 조목조목 열거한다.

이경숙·서지문·김진석 등
조목조목 도발적 반론

서지문(고려대) 교수도 최근 일간지에 '소인이 군자를 강(講)하는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공자는 없고 소인만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소장철학자 김진석(인하대) 교수도 최근 〈사회비평〉 봄호에 '철학의 광신적 대중화'라는 글을 통해 대중적 권력을 얻으려 노자·공자를 이용했다고 공격했다.

〈노자를 웃긴 남자〉와 도올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내용과 시각이 '수준급의 경지'에 있다는 점이다. 불교계에서도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용옥 씨가 펴낸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 〈금강경강해〉 등에 대해 여러 학자나 불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지난 해 2월 변상섭 씨가 도올의 불교관을 비판한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시공사) 이외는 그를 정색하고 글로써 비판하는 불교계의 학자는 없는 상황이다. 물론 깊이 없는 도올의 불교관이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불교가 왜곡되고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불교학자로서의 게으름이 아닐까.

김중근 기자

문향 그윽한 침굉선사 문집

운제스님 역 '침굉집'

부처님이 푸른 허공 속에 홀로 섰으니/ 이곳이 영산(靈山)의 큰 법회/ 오늘날 다행히 만나 묘한 말씀을 듣게 되어/ 백천만겁의 오랜 티끌인연을 씻게 되네. -괘불을 두고 지음(題掛佛)-



北으로 간 경허 스님 만행 생생

한중광 지음

'경허, 부처의 거울…'



경허 스님의 평전 〈경허, 길 위에 큰스님〉이 〈경허, 부처의 거울 중생의 허공〉(한길사)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이번 증보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경허 스님이 석왕사를 떠나 북쪽으로 간 이후의 생활을 적고 있다는 점이다.

글쓴이 한중광 씨는 지난 99년 초판을 낸 이후 경허 스님이 북쪽으로 간 까닭과 그 생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글쓴이는 1905년부터 평북 강계군 종남면 한전동 김탁(1872~1941) 씨의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그의 손자 김형극 씨의 증언을 통해 밝힌다.

경허 스님은 박난주란 이름으로 임시정부 초대 교육부 차장, 의정원 평안도 대표 등을 역임한 김탁의 집에서 살면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열어 지도하는 한편 김탁을 비롯한 여러 선비들과 만나 시를 읊으며 불법을 전한다.

이밖에도 이 책은 경허 스님이 강계를 떠나 갑산으로 향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했다. 그곳에서 스님은 갑산 일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장터에서 서민대중을 교화하는 등 자유자재한 방편행을 펼친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다비와 사리(글 박경준, 사진 송봉화)= 도서출판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절대적 생명과 자유의 경지인 열반. 이 책은 그곳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다비식과 수행의 결정체인 사리가 전해진 발자취와 그 의미를 살핀다. '다비란 무엇인가', '다비문과 의식', '사리의 세계' 등을 사진과 함께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적고 있다. 값 4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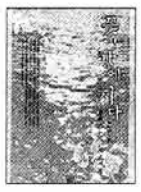
▲부처와 중생은 한 생각 차이라는데(성재도 엮음, 날마다 좋은날)= 흔히 학식과 인격이 높아 세상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사표로 삼을 만하다고 말한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한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 마음, 수행, 행복 등 7가지 큰 주제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모두 〈죽창수필〉, 〈치문수행록〉, 〈육방예경〉 등 명저에서 가려 뽑은 것들이다. 값 5천5백원.



▲세계 최고의 우리 문화유산(이종호 지음, 컬처라인)= 우리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과학적으로 재조명한다. 책은 고인돌, 비파형 동검, 단군 등을 담은 고대문화를 비롯해 과학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등 크게 4부로 나눠 문화유산이 어떤 면에서 세계 최고인지를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과 비교하면서 설명한다. 문화인류학이나 고고학적으로 접근한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과학자의 눈으로 살핀 문화유산'이란 점이 특징. 값 1만3천원.



▲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농사꾼 이야기(이영문 지음, 양문)= '태평농법'이란 독특한 농사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영문 씨의 자연·인간·환경이야기. 한 농부의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에 관한 통찰과 전인적 삶의 대안을 제시한다. '공기 좋고 물 맑은 농촌 만들기', '자연, 최고의 항생제', '토종이 변하고 있다' 등 30개의 작은 소재로 구성, 부록 '태평농법의 이해'도 실려 있다. 값 7천8백원.



▲꽃, 강에 지다(최낙건 지음, 다우)= 왜장을 껴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논개. 그는 유생의 딸로 태어났지만 가난으로 인해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다. 사대부의 정부인으로서, 한 사람의 민초이자 의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논개. 이 소설은 논개의 사랑과 우국 충정만을 서술하고 있지만은 않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명과 한이 힘의 원천임을 들추어낸다. 값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2	달라이 라마 나의 티베트	제일런 트웰	시 공 사
3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5	봄 여름 가을 겨울	법정 류시화	이 레
6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7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	명 정	좋 은 날
8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9	나는 누구인가	오쇼 라즈니쉬	청 화
10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 미틀	여시아문

도서 안내: (02)737-0695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창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창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트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불교학술단체 올 화두 '전산화'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10월 인터넷 공개
전자불전硏 EBTI대회 5월 동국대서
고려대장경硏 '대장경 2000' 에 한글경전 첨가
국제원효학회 '대승기신론소' 등 5권 영역

불교학술단체들이 한문,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경전을 현대적 번역하고, 전산화하는 것을 올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등 경전 한글화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고 있다.

동국대 부설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은 〈아함경〉, 〈법구경〉, 〈화엄경〉, 〈대루탄경〉, 〈비화경〉 등 총 30여 책(冊)에 대한 개역 및 전산화를 진행한다. 특히 동국역경원은 우리말 번역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그 내용을 점검할 '상임증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월운, 지관, 각성, 종법, 종진, 무비 스님 등이 참여했다. 번역이 다듬어진 경전들은 10월부터는 동국대 부설 전자불전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 상에 공개할 계획이다.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는 동국역경원과의 공동작업 외에도 〈한국불교전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5월중 'EBTI(전자불전협의회)' 대회를 동국대에서 개최한다. 경전 전산화 관련 유일한 국제 대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다는 의의뿐 아니라 국내에서 일궈낸 주요 전산화 성과인 〈한국불교전서〉와 '고려대장경2000'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전산본 한역대장경인 '고려대장경2000'에 우리말 경전을 덧붙이는 작업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글 경전으로 샘플(시험) 작업을 한 후 '고려대장경2000'에 우리말 경전을 붙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자문화지도(ECAI)와 관련해 시험버전으로 제작한 '한국의 불상'의 데이터를 늘리고 세분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효 스님의 저술을 영어로 번역 ·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는 올해 말까지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원효대승철학〉, 〈원효-종요〉, 〈원효 저술의 대중성과 의례〉 등 총 5권을 첫 성과물로 내놓는다. 박성배(뉴욕주립대), 로버트 버스웰(UCLA), 찰스 뮬러(도요가쿠엔대) 피터 그레고리(코넬대), 존 맥레이(인디에나주립대) 등 국내 · 외 학자들이 교정작업을 하고 있다.

동국대 부설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목정배)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경전을 번역, 소개한다는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지난달 '불교원전연구팀'을 발족하고, 국내 불교학계에서 가볍게 다루어온 초기 불교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5년 간 작업해 온 영어본 〈불교문화사전〉(가칭)을 하반기에 발간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백제에 불교전파 마라난타 실존인물"

민희식 교수 주장
대영박물관 고문헌
삼국유사 기록과 일치



영광군 불갑면에 상륙해 백제에 불교를 전해 준 인도 승려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마라난타는 실존인물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을 풀기 위한 마라난타 행적 규명 작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민희식 한양대 명예교수는 12일 '간다라에서 영광까지'를 주제로 작성하고 있는 논문의 중간보고서에서 "파리 국립도서관 및 대영박물관 부속도서관, 일본 국회도서관등 외국 유수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와 파키스탄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마라난타가 중국을 거쳐 백제에 불교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특히 대영박물관 부속 도서관에서 발견한 아슈라프 칸 박사의 고문헌 선집에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일치하는 기록을 찾았다는 데 주목했다. 이 고문헌에는 "간다라 지방인 지금의 파키스탄 초타라흐르 마을에서 태어났던 마라난타는 384년 법성포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고문헌에는 마라난타가 30세에 초타라흐르를 떠나 실크로드를 따라 탁실라와 페샤바르를 거쳐 14년 간 우전국, 돈황, 둥진, 장안, 낙양 등지에서 불교를 전파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외에도 민 교수는 "영광 법성포의 백제시대 지명이 아미타불이 변형된 아무포였다가 불법이 전해진 포구라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후 법성포로 개칭됐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日 법륭사탑 594년 건축

기존설보다 100년 앞서
기둥 ×-레이 나이테 검사



세계 최고 목조건축물인 일본 나라(奈良)시 소재 법륭사 5층 목탑(사진)의 중앙 기둥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1백여 년 앞선 594년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국립나라문화재연구소가 20일 밝혔다.

나라문화재연구소는 X-레이로 나이테를 검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 절의 중앙기둥 연대가 새로 밝혀진 만큼 이 절이 재건된 것이 아니라 창건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일본 학자들 사이에선 법륭사가 670년 4월 화재로 소실된 뒤 708년부터 714년 사이에 재건됐다는 게 통설이었다.

동국대 문명대 교수는 "일본 학자들이 담징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당벽화 역시 6세기말~7세기 초 활약했던 고구려 화가 담징이 그렸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라고 말했다.

607년 성덕(聖德 · 쇼토쿠) 태자가 창건했다는 법륭사에는 백제관음상으로 불리는 목조 관음보살 등의 백제 유물이 남아있으며, 사원 건물의 배치도 백제와 비슷해 한반도 문화의 자취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능가사 대웅전 보물 지정



전남 고흥 능가사 대웅전(사진)이 보물(제1307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20일 능가사 대웅전이 "조선 중 · 후기 전남 남해안 지역 사찰 건축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로 역사적 의의와 학술적 가치가 커 보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흥부원군 호성공신 홍진교서'를 보물(제1308호)로 지정하고, 전남 영암 '엄길리 암각매향명'은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능가사 대웅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된 다포식 건물로, 이미 보물로 지정된 영광 불갑사 대웅전(제830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제292호)처럼 정면 기둥 머리에 기둥 상부의 공포를 받치는 부재를 댔고(안초공 기법), 건물 내 · 외부를 연꽃봉오리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사찰 건축에서는 보기 드물게 포벽에 십자맞춤으로 된 짤막한 공포재를 도드라지게 새긴 것(첨차)이 특징이다.

권형진 기자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무사 항해 기원" 종교적 귀의처

적산법화원 왜 지었나

이영자 〈동국대 교수〉



장보고 대사는 왜 이곳 적산에 법화원을 세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했을까? 법화원은 말할 필요도 없이 법화경을 신앙하는 중심 도량이다.

엔닌의 일기에서도 말하고 있듯 송경의 식에 있어서도 낮에는 〈법화경〉을 강의하고, 밤에는 예불과 참회의 종교의례를 행하였다고 하며, 의례 때에도 스님의 선창에 따라 "나무약사유리광불"과 "나무대자대비관세음보살"을 큰 소리로 복창하였다고 한다. 〈법화경〉과 관세음보살신앙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음신앙은 〈법화경〉 '보문품'에서 구세보살의 위신력에 의지하고 있다.

소중한 신라불교 유적지

산동반도 연해지방은 일찍부터 한반도와의 왕래가 긴밀하였으며, 8, 9세기 들어서는 더욱 밀접한 관계가 되어 신라인이 이들 여러 지역에 진출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장보고가 적산에 법화원을 건립한 것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들이 고국을 왕래하려면 엄청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무사항해를 빌기 마련이었으니 법화경에 기초한 관음신앙이 성행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적산법화원에 관한 이야기는 일본 헤이안 시대 천태종 승려(천태 3세) 엔닌 스님이 입당구법한 내용을 일기체로 쓴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행기는 하버드대학 라이샤워 교수가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막강한 동아시아 해상세력을 형성한 장보고와 그 외 재당 신라인의 해상활동을 세상에 들어내게 된 것이다.



◇적산법화원 대웅전. 앞줄 우측에서 네번째 목도리를 두른 스님이 현 주지이다.

적산은 현지에서 척산(斥山)이라고도 한다는데 이는 적과 척이 중국발음으로 같은 '치' 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문의 뒷산 산정은 붉은 색의 기묘한 암석들로 덮여 절벽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양쪽으로 솟은 바위 사이로 '용의 동굴(龍洞)'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바위 기둥이 문처럼 생겼다고 하여 홍석문이라 한다. 전설로는 용동에 재신(財神)이 살고 있다고 하여, 지금도 정월이면 이곳 주민들이 모여들어 분향하며 발재(發財)를 기원한다.

엔닌이 입당구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교오또(東京)에 적산명신(赤山明神)을 봉안한 적산선원의 건립을 유계로 남겼으며, 천태 5세 엔진(圓珍) 스님도 온죠지(園城寺)에 신라명신(신라명신)을 봉안하고 있다. 이들 명신이 적산 용동의 그 재신이었을까?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도 적산 일대는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되다가 1987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개방되었다. 이 무렵에도 한국인의 출입은 여전히 어려웠으나 일본인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아무 것도 없는 법화원 유지에 여러 가지 기념물 세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산문에 들어서면 일본측에서 세운 크고 작은 석비가 20개나 있다. 산문 옆에선 안내판의 "신라 장보고 장군이 건립하고, 일본 엔닌이 입당구법 할 때 여기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에서 우리는 중국측의 미묘한 입장을 살필 수 있다. 중국정부에서 이렇게 절을 짓고, 여러 가지 불사를 일으키는 까닭은 한국과의 우의를 다져 경제교류를 촉진하자는 의도겠지만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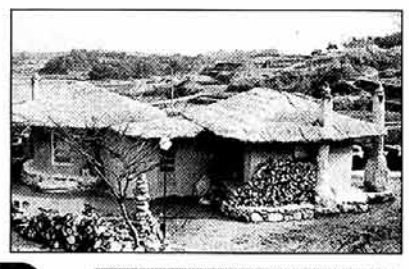
일본 엔닌 스님은 유숙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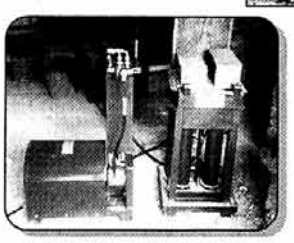
어떻든 장보고 선단의 해상활동과 적산법화원의 건설, 그리고 재당 신라인의 생활상 등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그 자취를 알게 해 준 엔닌 스님의 공적이나 일본에 적산선원을 건립하는 등의 정신자세를 어찌 과소평가 할 수 있을까 마는 그러나 엔닌 자신은 어디까지나 적산법화원의 유숙객이었다. 결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도처에 산재한 관련 한국불교 관련 유적지를 찾아 그 정신을 기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될 것이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전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및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제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합장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진귀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패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성루마다 환영의 북소리가 일제히 울렸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㉑

⑳ 황도 금릉으로 가다

자사 소앙은 조정의 어사에게 조서를 읽게 했다. 어사는 소매 안에서 조서를 꺼내 펼쳤다. 달마 조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달마는 어사를 향해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런 달마의 태도에 함께 온 자사는 순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속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조사 앞에서 감히 그런 사실을 지적할 수는 없었다.

어사는 그대로 조서를 읽어 내려갔다. 달마는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다. 어사가 조서를 다 읽었는데도 달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땅히 폐하의 은혜를 고마워하는 인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달마가 눈을 떴다. 그리곤 '껄껄'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과찬이신 것 같소. 아무튼 이 나라의 황제는 불심이 돈독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구려. 이게 다 인연이오. 암 인연이고 말고…. 자, 그러면 가십시다. 이 늙은이가 어사를 따라 당장 출발하겠소이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달마는 방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대로 갈 길을 재촉했다. 달마의 그런 태도에 오히려 어사가 당혹스러워했다. 달마는 어사의 그런 마음을 읽고 웃으면서 말했다.

"출가인은 사해(四海)가 모두 자기 집인 것이오. 위로는 천자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제후에게도 겸양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출입하고 자유로이 오고 가는 것이외다. 자, 어서 떠납시다."

어사는 그제야 그 연유를 깨닫고 황급히 조사에게 절을 했다.

"성상(聖上)께서 마차(馬車)를 보내주셔서 지금 사찰 밖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법성사 앞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조사를 연호하는 소리에 옆 사람의 말소리조차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달마를 떠나보내는 이 곳 사람들의 심정은 한결같이 스산했다. 비록 황제의 초청으로 가는 영광된 길이긴 하지만 이 곳 사람들로선 그렇게 달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아쉬움에 울부짖는 이도 적지 않았다.

"댕! 댕! 댕! …."

법성사의 종고루에서 종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종소리를 듣고 절 안에 있던 승려들이 모두 몰려 나왔다. 승려들은 삽시간에 유화선실에서 절 입구에 이르는 길 양쪽으로 줄지어 섰다. 나이 많은 스님이나 젊은 스님, 비구니와 사미승 할 것 없이 달마 조사의 가는 길 앞에 엎드렸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한 채 입으로 불호를 외쳤다. 달마는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합장한 손으로 일일이 답례했다.

광지 주지, 자사 소앙 및 조정 어사의 호위를 받으며 달마는 천천히 절 대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러나 육중한 절 대문은 웬일인지 여지껏 닫혀 있었다. 달마가 대문 가까이 이르자 건장한 젊은 스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쩔쩔맸다. 아침저녁으로 대문을 여닫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따라 대문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여러 명의 스님들이 덤벼들어 힘껏 대문을 밀었다. 그러나 대문은 삐거덕거리기만 할뿐이었다.

문무백관들은 참례전 밖 계단 앞에 두줄로 엎드려 보리달마를 영접했다

이런 초유의 현상에 모두가 당황했다. 광지 주지와 자사 소앙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달마는 대수로운 일이 아니란 듯 대문 앞으로 다가서더니 이리저리 살피는 것이었다. 이윽고 대문이 문틀에 꽉 끼어 있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곳을 가볍게 흔들어 조정한 다음 대문을 열어 보라고 일렀다.

대문은 아주 쉽게 열렸다. 대수롭지 않은 이런 일에서조차 신비로움을 느꼈는지 모두들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달마는 큰걸음으로 문지방을 성큼 넘어섰다. 대문 밖의 대중들은 일제히 엎드려 절을 했다. 달마는 정중하게 합장의 답례를 했다.

밖에는 노란색 휘장을 두른 마차가 한 껏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달마가 마차에 오르자 황궁에서 파견된 200여 명의 호위병사들이 일제히 마차를 에워쌌다. 승려들과 대중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땅에 엎드려 '조사님! 조사님!' 하고 소리 높여 송축했다. 달마는 마차의 휘장을 젖히고 전송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거듭 표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대문

달마가 마차 안에 좌정하자 어사는 출발을 명했다. 마차 앞엔 깃발을 든 군사가 길을 인도하고 양 옆은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군사들이 에워쌌다. 어사는 마차 뒤를 따랐다.

달마가 떠난 뒤에도 광주성 안은 여러 날 동안 떠들썩했다. 달마가 조서를 받고 떠난 일을 두고 한껏 이야기꽃을 피웠다. 시간이 갈수록 이야기가 과장되어 달마는 신비로운 존재로 부풀려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사 소앙은 연일 자축연을 열기에 바빴다. 서천에서 온 대조사를 최초로 모신 것과 상소를 올린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무제로부터 곧 큰 포상이 있을 것이라는 칭송의 말이 주변에서 끊이지 않았다.

천축조사 보리달마를 태운 마차는 드디어 황도(皇都)인 금릉에 도착했다. 지금의 남경(南京)인 금릉의 본래 이름은 건업(建業)이었다. 이것이 진 나라 때 건강(建康)으로 바뀌면서 금릉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무제가 양 나라를 세운 뒤 금릉은 명실공히 정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구실을 했다. 특히 불교의 대본산으로 자리잡았다. 무제는 불교를 국교(國敎)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이치를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했다. 금릉의 도성 안에만 무려 500개가 넘는 절을 지었고 전국에서 10만이 넘는 승려를 불러모았다. 그 가운데서도 동태사는 특히 규모가 엄청났다. 무제가 출가했던 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안팎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절에 주석하는 고승(高僧)만 100명이었고, 고승을 받드는 문도는 1,000명이 넘었다. 매일 찾아드는 신도 역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였다.



◇만봉 스님 作 달마도(모시에 수묵).

호위병에 둘러싸인 달마가 도성 문안을 들어서자 성루마다 환영의 북소리가 일제히 울렸다. 도성 안 길거리엔 이미 청실과 홍실이 치렁치렁한 초롱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다. 초롱에는 예외 없이 노란색으로 '불(佛)'이라고 쓰여 있었다. 거리에는 몰려 나온 환영인파로 한 발짝도 움직일 틈이 없었다. 모두들 조사의 모습을 보려고 아우성이었다. 가까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달마가 탄 마차라도 보기 위해 안간힘이었다. 그렇게라도 해야만 자신들에게 복이 내릴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황궁 안의 참례전에는 촛불이 환하게 밝혀졌고, 침향을 태우는 향기가 그윽이 감돌았다. 한가운데엔 커다란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앞에 연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무제는 곤룡포에 옥대를 하고 위풍당당하게 탁자의 위쪽 정중앙에 앉았고 시신(侍臣) 정각과 법광이 좌우에서 보필했다. 무승 혈타는 눈을 부릅뜨고 뒤에서 호위하고 있었다. 문무대신들은 양쪽으로 줄지어 서서 달마 조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참례전 밖엔 한 무리의 근위병들이 칼과 창 그리고 도끼로 중무장한 채 대문 앞까지 도열하여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폭죽소리가 들리면서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집례관이 전각 안으로 들어와 아뢰었다.

"보리달마 조사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문무백관들은 일제히 참례전 밖으로 나와 계단 앞에 두 줄로 엎드려 영접했다. 달마를 태운 마차는 딸랑딸랑 요령소리를 내며 참례전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마차의 노란색 휘장이 걷히면서 달마가 내려섰다. 문무백관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삼가 대조사를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달마는 입으로 불호를 외우면서 합장으로 답례했다. 달마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참례전 안으로 들어갔다. 문무백관들도 황급히 몸을 일으켜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무제의 양쪽에 줄지어 섰다.

장중한 분위기의 궁중 음악이 연주되었다. 음악이 그치자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송(頌)을 지어 읊었다.

"우리는 성상(聖上)의 귀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대량(大梁)에 불법을 드날리시고 불업(佛業)을 드러내셨습니다. 큰 가르침으로 교화를 펴시고 오계(五戒)를 넓혀 중생을 혼도하셨습니다. 이에 불교가 더욱 발전하게 되고 선법(禪法)의 기운이 바야흐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무제의 공덕을 드높이는 송(頌)은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모든 게 무제가 이른바 '불심천자(佛心天子)'임을 달마에게 깊이 인식시키려는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

달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는 문무백관들과 정각, 법광, 혈타 등을 한 차례 둘러본 다음 무제를 쳐다보았다. 머리 위에 황관을 쓴 무제는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달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면서 몸을 굽혀 예를 표했다.

"성상을 뵈옵니다. 아미타불!"

이때 여러 신하들은 비로소 고개를 들고 달마를 바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달마의 모습에 모두 내심으로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폐하께서 초청한 대조사가 그토록 남루한 옷을 걸치고, 수염도 제대로 깍지 않은 꾀죄죄한 늙은이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생각이 빗나가자 신하들은 맥이 풀렸다. 조금 전까지의 긴장감은 은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서로 눈짓을 하며 이죽거렸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그러나 무제는 달랐다. 여러 신하들의 기꺼워하지 않는 기색을 보고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달마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무게를 느꼈다. 그는 웃으면서 자리를 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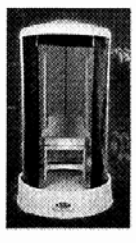
시신 정각은 공손하게 달마에게 무제의 옆자리에 앉도록 청했다. 달마는 사양하지 않고 '고맙소'하고는 곧바로 자리에 앉았다. 무제는 신하들을 한 번 훑어본 후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천축조사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만리 바다를 건너 이 나라에 와서 불법을 널리 펴시려 하니 이는 우리 나라의 행운이자 우리 불문의 복이라 할 것이오. 짐은 오늘 여기서 연회를 베풀어 조사를 환영하고자 하오. 한편으로는 조사에 대한 존경을 표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의 선법과 높은 지혜를 듣고자 하는 것이니 조사께서는 기꺼이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달마는 무제의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새 알아차렸다. 무제는 달마의 불법에 대한 이해와 수행의 정도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에 대한 대우를 다시 결정할 작정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불교 최대 인터넷 쇼핑몰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2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90cm×172cm
· 중량 : 본체-32kg 의자-5.5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칼로리 소모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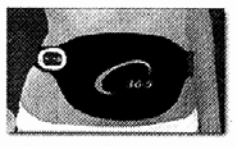
죽 비



· 부리죽비(대) 30,000원
· 부리죽비(소) 20,000원
·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 죽비세트 - 부리(대)부리(소) 일반형 53,000원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일반형 이상) 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玉 건강벨트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 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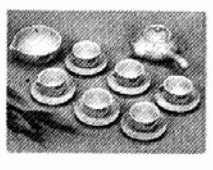
· 가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108 나한단주



산복승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에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옥(玉) 다기세트



각종 질병치료에 쓰이던 중국의 신강성 연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끊어졌으며 오늘날 여러 질병에 건강증진작용하는 한국춘천연옥(韓國春川軟玉)이 세계 유일한 제일 좋은 연옥이 되었다.

· 구성 : 다관(1p), 숙우(1p), 찻잔(6p), 찻잔받침(6p)
· 가격 : 330,000원

사이버 에밀레 종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배명진 교수가 첨단 공학 기술로 개발 성공한 원음 모듈은 신종의 종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
· 정사각틀 에밀레종 : 210,000원
· 팔각틀 에밀레종 : 250,000원

만다라 옥침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65,000원(※ 아로마오일 10ml 포함)

Dr.반다시(의자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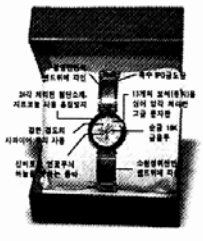


· 반다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차원의 의자용 방석입니다.



· 2001년 신학기 30% 특별할인상품
· 할인가격 : 25,000원 (※정상가 : 35,000원)

연꽃 불자시계





※ 특별사은품 (탈이시계 + 수암옥108염주)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 남성용,여성용 각각 : 119,000원

백화향 선물세트



· 백화향 + 신자단향 + 천연목향 + 향꽃이
· 가격 : 50,000원

도심 사찰에 놀이방 만든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교지도자 양성과 여성불자들의 폭넓은 신행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은 10~11일 화성 신흥사에서 '1차 상임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15일 이사회를 열고 여성교육, 아동보육시설 설치, 불교여성강좌, 불교여성학 출판물 간행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올해 살림 확정

우선 불교여성개발원은 3월초 '대장경속의 여성'이란 제목의 단행본을 3백권 출간해 여성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시할 계획이다. 백도수(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박서연(동국대 불교사학 박사) 등 여성 불교학자들이 1년여에 걸쳐 집필한 이 책에는 대장경속에 나타나 있는 여성 관련 내용들이 폭넓게 소개돼 있어 불교여성학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3월 13일부터는 매주 2회에 걸쳐 '결혼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강좌를 연다. 이영호 가정생활개선진흥회 책임연구원이 진행할 이번 강좌에서는 △가정불교 철학 △신용카드 관리법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현대사회와 가정경영 등이 주제여서 결혼을 앞 둔 여성 불자들이 화목한 가정 생활을 위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3월말에는 가정분과위원회 주도로 '가정생활개선교육'이 열리며 6~7월에는 '부모교육' 강좌도 개최한다.

'대장경속 여성' 단행본 보시
리더십 교육 · 세미나도 계획

불교여성아카데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도 4월에 실시한다. 3개월에 걸쳐 불교관련기관의 여성 종무원을 대상으로 펼쳐질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진들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훈련, 회의 진행방법, 모의 토론회의 등을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어서 여성 불교지도자 양성에 한 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10~11일 열린 불교여성개발원 상임위원 워크숍에서 이인자 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상임위원들이 올해 펼쳐갈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분과위원회의 '사찰내 놀이방 설치 사업'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아이들 때문에 법회나 사찰 행사 참가에 제약을 받는 주부들을 위해 도심 사찰내 1일 놀이방 시설을 사찰과 연계해 설치 운영할 계획이어서 주부불자들의 신행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 · 교육분과위원회는 5월26일 '국내외 불교 여성학 연구 개항' 책 출판 기념 세미나를 열어 국내외 여성불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이외에도 6월에는 '부모교육 강좌'와 11월 7일에는 '여성불자의 날' 행사를 마련한다.

이인자 원장은 "창립 이후 첫해인 만큼 교육 강좌와 세미나 등을 활성화 시켜 여성불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큰 사업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3월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저녁6시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주부 신행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부산 삼광사에 다녔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기도정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다. 집안의 이런 분위기 탓에 친정 오빠들도 일부러 사찰을 찾아가 절을 올릴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

하지만 내가 불가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친정 어머니의 병환이었다. 어머니는 5년전부터 병명도 모르는 상태로 몸져 눕게 되었다. 여기저기 이름있는 병원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조금도 차도가 보이질 않았다. 온 집안식구들이 어머니 때문에 근심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구인사로 보내 요양을 시키고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 기도해 볼 것을 적극 권했다.

처음에 가족들은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를 먼거리의 구인사로 보내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는 별다른 처방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 한번 매달려 보기로 했다. 오빠들은 생업에 매달려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구인사로 갔다. 구인사에서 방을 하나 얻어 어머니를 눕혀 놓고 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1080 염주를 돌려가며 어머니 병이 낫게 해달라고 매일 5시간씩 기도를 올렸다.

구슬땀이 흘러 방석을 흠뻑 적실 정도로 정성껏 절을 했다. '부처님, 어머니를 살려 주세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병들어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 가시고 어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희구하며 염주를 굴렸다.

어머니에게도 누워서나마 부처님께 의지해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라고 권했다. 이 동안에는 가정일 등 모든일을 제쳐두고 오로지 어머니를 살려야 겠다는 일념으로 기도에만 집중했다. 절에서의 기도 정진은 한달 넘게 계속됐다.

한달이 지난 어느날,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에게 먹이라고 약을 하나 주고는 미소를 머금고 하늘로 올라갔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니 꿈이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자 오빠들에게 연락이 왔다. 노인들의 병에 유명한 한의사를 아는 사람한테 소개받았다며 부산으로 급히 내려 오라고 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동래구쪽에 있는 한의원으로 갔다. 진맥을 본 한의사는 기가 몹시 약해져서 온 풍일 가능성이 많다며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주었다. 한의사는 정성껏 치료를 할테니 한 번 믿어보고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어머니는 1주일에 두 번씩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는 집에서 〈천수경〉을 독송하며 계속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3개월을 치료받더니 어머니는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조금씩 걸어다니면서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는 등 기력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비록 어머니의 병회복을 위해 부처님께 지극 정성을 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계기가 돼 이제는 새벽과 밤에 집에서 예불을 모실 정도로 불교에 깊이 몰입해 있고, 참다운 불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께서도 항상 염주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며 부처님께 의지하고 계시다. 병명조차 모르고 앓으시던 어머니에게 의사를 만나는 인연을 맺어 주셨으니 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한다.

김연숙(부산시 진구 범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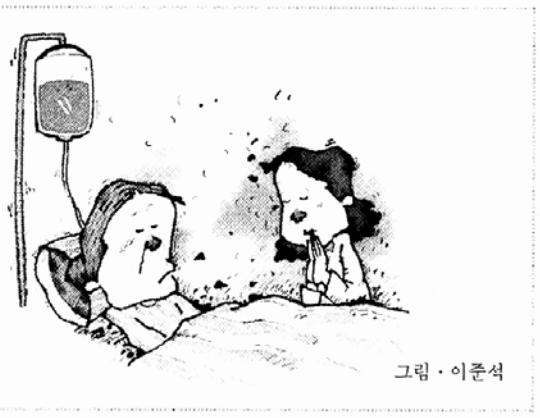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기도 정진중 꿈에서 약병 받고…

대불청 동문 후원모임 생긴다

'만당' 결성 신행 · 재정자립 돕기로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가 역대 회원들의 신행 및 재정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모임 '만당(卍堂)'을 결성한다. 대불청은 3월 1일 오후 1시 망우리 만해 스님의 묘역에서 '만당' 결성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갖는다. 15 · 16대 대불청 회장을 역임한 배영진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만당'은 만인의 집이란 뜻으로 일제시대 만해 스님이 주축이 돼 독립운동을 하던 비밀 결사조직이다.

배영진 前 회장은 "현역 회원에서 물러났다고 청년불교 발전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결성하게 됐다"며 "현역 회원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불청 산하 기구로 자체 수련회 개최, 기금마련 후원 행사, 회원들의 경조사 후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당'의 창당식은 6월 대불청 청년대회 행사때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불청은 3월1일 오전 10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22회 만해 백일장'을 개최한다. (02)738-3385 김주일 기자

불교계 '장한 청소년' 뽑는다

5월 시상 … 유공자도 포상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등 불교계 청소년 단체는 사회 봉사활동과 협력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력이 인정되는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를 추천해 포상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단체협의회가 '2001년 대한민국 장한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 포상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장한 청소년상의 선정기준은 모험심과 개척정신, 환경의식, 봉사부문 등 7개 부문으로 나눠지며 각 청소년단체별로 1명씩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청소년 육성 유공자에 교법사와 공직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은 청소년협회 홈페이지(www.koreayouth.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시상식은 청소년의달 5월에 있을 예정이다.

청소년 단신

청담고 IT지원금 받아

종립학교인 청담정보통신고는 16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로부터 IT관련학과 지원 대상 학교에 교계 최초로 선정돼 1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통부는 16일 전국 고교 가운데 IT 관련학과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47개교를 선정하고 학교별 등급 기준에 따라 총 45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청담정보통신고는 지난해에도 1억5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매월 환경지킴이 운동

대한불교청년회 부산ㅈ 구가 4월1일부터 내년 부처님오신날 전야까지 매월 첫 일요일마다 낙동강 수질환경 보호운동을 펼친다. 이에 3월 31일 부산불교회관에서 입재식을 갖고 4월1일 낙동강 도보순례를 시작으로 13차에 걸쳐 '환경지킴이 운동'을 시작한다. 이번 도보순례에는 부산지구 12개 지회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불교 레크리에이션協 개명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1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불교레크리에이션 보급 발전을 위해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요정기강좌 총 48회 개최 △6 · 11월 여름 · 겨울 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개최 △ 3 · 9월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 지도자 과정 개설 △7월 연꽃 어린이 캠프 개최 △청소년 문화교실 및 성지순례 상설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 계획도 발표됐다.

21세기 문화정책위 발족
문화부 각계 15명 구성

문화관광부는 22일 중장기 문화예술 정책 개발과 자문을 위해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월 1~2회 전체 회의를 갖고 문화정책 현안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강교자(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강준혁(추계예술경영대학원장) △김정호(향토문화진흥원장) △홍기삼(동국대 교수) △김홍식(명지대 교수) △박은주(김영사 대표) △성제환(게임종합지원센터 소장) △송미숙(성신여대 교수) △이상만(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이사장) △임영웅(연출가) △전명옥(코코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정무형(한림대 교수) △정진홍(서울대 교수) △주진숙(중앙대 교수) △주철환(이화여대 교수)

2001년 포교사 대학 입학안내

21세기는 고도의 전문화된 포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견고하고 불퇴전의 용맹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길을 제시 할 수 있는 통찰력 갖춘 불교지도자를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1981년 설립된 본 대학은 현재 1000여명의 포교사가 활동 중이며 초(범)종단 대덕 스님, 교수, 법사님을 초청하여 2- 분야별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포교사 양성을 위한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의시간
주 2일 월 · 수 2강좌 각 90분 강의 출석, 야간수업
직장인을 위한 야간(토요반)운영 ◎ 개강 : 3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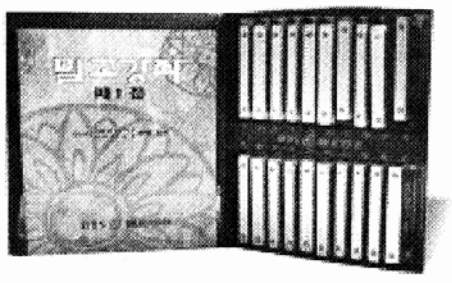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개론, 한국불교사, 불교문화사, 법화사상, 원효사상, 불교의식
2학기 - 근본불교, 아비달마구사론, 반야사상, 불교사회복지론, 선문염송, 생활불교
2학년 1학기 - 유식론, 중국불교사, 법화사상, 정토불교사상, 밀교특강,
2학기 - 불교경전 개설, 인도불교사, 화엄사상, 선종사상, 원각경강독, 불교상담론

◎ 강사진
무진장스님, 법산스님, 운곡스님, 오국근교수, 오형근교수, 리영자교수, 서윤길교수, 박경준교수, 한정섭박사, 이혜숙교수, 김사업박사, 겸임교수 ; 이보봉스님, 문보경스님, 노범산스님, 장각성스님, 구해스님, 최홍주법사, 최중천교수, 이건호회장, 김철희회장, 임선정원장, 허은법사, 곽태일법사, 김일룡법사

◎ 모집 및 전형 (2년제 야간 - 출강, 통신과정)
◎ 모집과목 및 인원 포교사학과 출강 35명, 통신 100명
◎ 지원자격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 및 불교교리 숙지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방법 서류전형, 선착순 등록금 (1학기) 30만원
◎ 특전사항 - 포교사 과정이수 후 수료증, 포교사 자격증, 포교사증 수여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 과정 입학 가능
- 스님, 교임, 종단 추천 스님 (특별장학금 지급)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이사장, 학장, 교수, 봉사, 기타) 지급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720-1001 팩스 02)722-1585
한국불교포교사협회 회장 이혜철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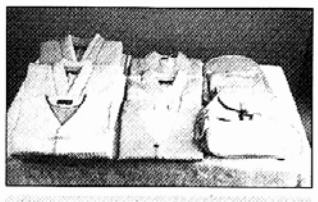


혜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혜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댁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 금 주 : 최 종 웅
금 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특허상품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용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랑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男 女	130,000
누비 (上, 下)	男 女	180,000
누비방한복 (上)	男 女	130,000
누비조끼	男 女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男 女	180,000
바랑		30,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133-1 (봉용빌딩 3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서북 토종 오가피

"오가피를 오래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 - 동의보감 -

황토흙에서 10년이상 자란 무공해이며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되는 100% 순수 국산 오가피입니다.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하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건강도 지키시고 농촌도 후원하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농장주 백 운 찬

▲ 전화문의,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주문시 전국 택배 배달.
▲ 오가피 추출액, 묘목분양.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55
전 화 : 031) 681-5888, 7717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 //myhome.netsgo.com/baeghj/

내 한생각에 지옥·극락 달려있어

피안의 세계 정말 있는지요

문 저는 종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리라 했고, 불교에서는 고해를 건너서 피안의 세계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세계가 정말로 있어서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생에서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선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물질사회에서 살다 보니 의식이 모두 물질에만 치중이 되어서 자기 마음이 체가 없다는 소식도 모르고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욕심내고 무서워하고 집착하며 끄달려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살던 의식들이 다 다음 생에 자신을 또 그림자처럼 따라 다닙니다.

물질 세계에서 그렇게 관습에 젖고 기복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체가 없는 혼백인데도 죽으면 자기가 체가 있는 양, 물이 나타나면 빠져 죽을까봐 못 건너가고 배올 때를 기다리느라 백생이고, 오백생이고 기다리고 섰으니, 그런다고 배가 옵니까? 한 생각, 한 찰나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의 의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벗어나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여러분이 타 죽을까봐 못 건너가기도 하죠. 우주의 모두가 들아가는 것도 불바퀴이고, 우리 마음들이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입니다.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대가 무너지면 다 원점으로 들아가면서 내 마음은 그대로, 자기 그릇대로 차원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했으니 놓아라, 쉬어라 하고 수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했는데 마음이 체가 없는데 건너갈 건 뭐 있고 건너을 건 뭐 있겠습니까? 내가 공해서 없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게 뭐 있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밖에도 벗어날 수 있고, 우주 밖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지구 바깥을 벗어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집에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뚜렷하게 보실 수 있겠죠. 그와 같습니다.

생사에 관한 건을 한번 뛰어넘어서, 물질세계에서 이리로 와서 여기를 다시 뛰어넘으면 피안의 세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간다 이런 소리와 같습니다. 이것이 살아서 열반이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죽어서 열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놔서 돌아서 죽은 세상까지, 살아있는 세상과 죽은 세상이 동시에 같이 있는데 거기를 찰나찰나 한 바퀴 돌 줄 알아야, 모가 나지 않게 돌아갈 줄 알아야 50%, 100%를 같이 굴릴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 소리를 자주 하는데 모두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습니다. 곤충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더불어 널리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저승이고 이승이고 들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극락 세계가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한생각에 지옥이요, 내 한생각에 바로 승천입니다. 생각,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한마음 도리를 공부하시면서 체험도 하시고 감응이 되시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짐작이 가고 물리가 터지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구요. 모두가 나로부터, 내 뿌리가 싹이 있는데, 그 싹이 뿌리를 믿지 어디를 믿습니까? 딴 나무를 믿고, 딴 이름을 믿고, 딴 형상을 믿어서야 에너지가 그 나무로 가겠습니까?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제 나무 제 뿌리에서만이 제 나무를 푸르게 살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 뿌리에서만이 너그럽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는 거고, 또는 물리가 터지게도 하고, 깨우치게도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모든 에너지를 위로 올려 보내고, 위에서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내려보내면서 자기 나무를 푸르르게 살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문 없는 문을 넘게 하고, 빗장 없는 빗장을 쥐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있거늘, 바깥으로 항상 찾는다면 아무 공덕도 없고 이득도 없고 만날 끄달리다가 차안(此岸)에서, 즉 말하자면 어항 속에서 고기가 바깥으로 못나가듯, 그렇게 피안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차안의 세계와 피안의 세계가 한 백지장 사이도 안되는 것을, 한찰나도 안되는 것을, 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습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수박이라면 작년(과거)의 씨로 인해 수박이 된 것입니다. 작년의 씨가 아니라면 어떻게 올해(현재)의 수박이 생겼겠습니까. 그 수박은 놔두고 작년 씨를 바깥에서 찾는다면 아무리 애쓴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의 수박에 씨와 살과 가죽이 한 데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안에 자기 씨가 있는 겁니다.

참회기도를 하려합니다

문 부처님께 귀의하여 공부한지 얼마 안되는 불자입니다. 지난 일년동안 염불수행을 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힘든 일도 많았고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편안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면 아직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참회기도를 하려 합니다. 자비도량참법으로 기도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 대부분 기도를 한다고 하면 상대가 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觀)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내면에 모든 걸 맡겨 놓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험하고 나가는 게, 그냥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참선입니다. 일하면서 하면 행선, 누워서 하면 와선, 서서 하면 입선, 앉아서 하면 좌선, 그냥 같이 돌아가는 것이, 그냥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생활 참선이죠.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는 각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각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그 소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진리죠. 진리가 끝간데 없이 나로 인해서 돌아갑니다. 그래 일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무엇인고? 하고 물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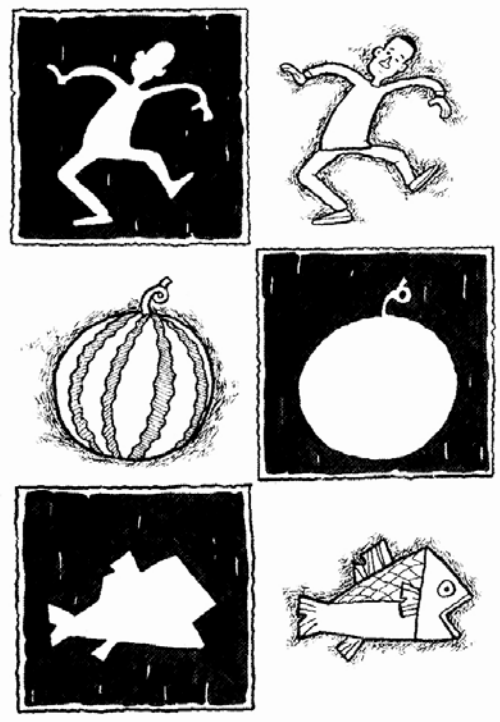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마음 깊은 내면에 모두 맡겨놓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실생활속에서 행하는게 바로 참선

그런데 여러분 각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발전도 하고 여러 과학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과학이 발전할 수도 있기에 생활이 그대로 과학입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모든 우주의 근본, 우리가 아니었더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법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에 있다. 참선은 어떤 것인가? 생활 참선! 여러 마디 말을 쑥 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근원에서 들이고 내는 생활 속에서 나의 주인공이다 한다면 주인(主人)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공(空)은 여러분이 활용할 때에 돌아가는 자체입니다. 찰나찰나 변해서 돌아가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되놓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되놓고 침착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일 할 때도 그렇고,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서 있을 때도, 누워 있으면서도 항상, 주인공 자리에서 모든 일을, 모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되놓는 것이 바로 참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것은 아, 슬기롭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여기다 하고 놨을 때에 그게 돌려놓는 겁니다. 좋게 생각이 나고 일이 잘 돌아갈 땐 참 감사해하고 감사하게 놓고 말입니다. 진짜 나를, 진실한 나를 구할 때 '참나가 있다는 증명도 거기서만이 해줄 수 있다.' 고 관하고 놓을 때, 그것이 바로 관하는 것이고 참선을 하는 것이고 용도에 따라 실행되게끔 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니 진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큰 것에서부터 조그마한 것까지 내 앞에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지켜보면서 생활 속에서 실험하면서 체험하신다면, 용도에 따라 참회가 필요할 때면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도록 이끌 것이며, 스승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자기를 밝게 이끌어 줄 것이니 바깥으로 기도를 하고 구하고 참회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내면의 그 보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공부를 하세요.

관해도 친구들이 계속 떠들어

문 저는 중부경남 지원 어린이 법회에 나가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많이 떠들어서 제가 '떠들지 않게 해.' 라고 관해도 계속 더 떠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어린 학생이 질문을 잘했구나. 그런데 너뿐만 아니라 공부를 조금 한다는 사람들도 주인공에 아무리 관해도 안된다고 하거든. 그거는 믿음이야.

믿음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이지. 그러고는 겉으로 아무리 주인공, 주인공 불러도 안되더라 하면서 방방방방 뛴단 말이야. 그 방방 뛰는 걸 보면 벌써 알아, 주인공 이름만 부르고 다녔다는 걸. 남이 주인공을 부르면 된다더라, 이런 말만 믿고 하는 거 말이야.

나무들이 다른 나무보고 믿고 살지 않지? 자기 뿌리에 의지하고 살지. 그렇게 조그만 나뭇잎 이파리도 본래 뿌리에 의해서 다 불어서 살고 있으니까 뿌리에다가 다 놓으면 될 것을, 그러면 거름이 골고루 다 퍼져서 푸르르게 살 수 있는데 모두들 입으로만 주인공, 주인공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문제가, 모두 자기와 같이 귀중하게, 더 위로도 보지도 말고 내려다보지도 말고 아주 자기와 같이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게 제일 필요한 거란다. 그래서 주인공을 높이 보지도 말고 내려보지도 말라고 하는 거야. 해 달라고 하면 그건 벌써 나와 상대가 있으니 둘이 된다. 그러니 해 주시요가 아니라 너만이 할 수 있다고 관하라고 했지? 우리가 결정을 짓는 데 문제가 있는 거란다. 지금 물질 세계에서는 안 된다 된다 하지. 그런데 진짜로 믿고 결정을 짓는다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결정을 지어야 돼. 이건 지금 물질 세계에서 안 되는 일이니까 안 될 거야, 관해도 안될 거야, 이렇게 하면 벌써 그건 물러서는 것이 되지 않겠니?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느냐 즐겁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사느냐 하는 것도 되는 일 안 되는 일에 얼마나 얽매이는가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 반 아이와 나를 다르다고 보지말고 진실하게 자기 주인공을 믿고 관할 수 있어야 해. 그러면 오히려 자기 모습을 더 살펴보게 된단다. 나도 남들이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되돌아 볼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정말 자유스럽고 재미있게 학교 생활도 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는 이유

문 저는 지원에서 학생회에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외할머니가 아프시다가 돌아 가셨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외할머님이 좋은 곳에 태어나시라고 마음을 많이 내는데, 스님께서도 마음 많이 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명절이 되면 꼭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지내는 제사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선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예의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불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그런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할머니를 위해서 마음을 내면 외할머님이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는 지도 궁금해요.

답 왜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느냐고 물었는데 그거는 반드시 지내야 되겠지. 그런데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하라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자식된 도리를 생각하고 은혜를 기리는 그 교훈을 잊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스님은 신도님들더러 음식을 많이 장만하느라고 돈이 많이 드네 뭐 어쩌네 하면서 찡찡거리고, 다른 일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또 어떻게 차리나, 이렇게 성가시게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거는 조상님들도 싫어하시니까 웃는 낯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주 편리하게 해라 이거야.

향을 피우고 초를 켜고 그 앞에 앉아서 자기를 있게 한 모든 은혜, 조상의 은혜, 어떤 때는 나라의 은혜를 생각할 때가 있고, 부모의 제삿날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지. 공짜가 어디 있어? 부모가 다 길러서 학교 공부 가르쳐서 사회인으로 길러주시느라고 그만큼 노고를 했으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지. 나의 근원인 조상의 은혜를 모른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제사지낼 때, 지금 현재 모두 이 공부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지극하게 관하는 그 마음은 일체 제불의 마음과 일체 중생이 둘이 아니게, 곳곳마다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데가 없이 탁 뚫렸으니 뭘 더 바라겠니, 그 영령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사람들의 공덕으로 인해서 모두가 일체 제불과 한자리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그 영령들도 더 바랄 게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손들이 그렇게만 지극하게 한다면 이 세상 어느 곳곳에 다 내놔도 손색이 없게 되는 거거든. 나같이 어리고 힘없는 아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 하고 의심하지 마. 자동적으로 근본에다 관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끔 돼 있어, 본래.

그래서 선원에서는 정초에 조상님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게 촛불재를 하는데 그건 우리의 마음도 둘 아니게 밝아질 수 있게 불을 켜는 거야. 물질의 초만 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근본을 완벽하게 믿고 모든 것을 근본에다 맡기고 지극하게 마음의 불을 밝힌다면 우리 마음이 벌써 다 그분들을 모셨고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이,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다가 없이, 더 차렸다 적게 차렸다도 없이, 즉 말하자면 전부 한자리를 하게끔 되는 거야.

그러니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럴까? 하고 의심하지 말고 제사를 지내든 촛불재를 하든 지극하게, 일체 물이 아닌 그 주인공 자리에서 다 밝게 인도하라고 관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란다.

유전자 조작 탈 없는지요

문 스님 가르침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되어지고 있는 유전자 조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인과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도래할지 한 말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답 전 우주 전체가 처음에 미생물이었을 때, 암흑 세계에서 바람과 흙과 불과 물이 뭉쳐 서로 돌아다닐 때에 어떻게 생명력이 넣어졌겠습니까? 블랙홀이라는 별성은 어째서 그렇게 별을 많이 낳았느냐, 별을 낳아서 모두 내려보내느냐, 할 때 그것은 생명력입니다. 진화력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영원한 생명력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어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그냥 있는 거

☞ 20면으로 계속

가족도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관해도 안되는 건 믿음이 부족한 탓

☞ 19면에서 계속

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에다가 의지해 놓고 사느냐? 부모가 낳았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부모를 믿고 사는 것은 자랄 때까지만이지 더는 부모를 믿고 사는 게 아니죠. 부모는 자식을 믿고 살아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와 같이 이 우주의 근본 에너지, 그 근본 에너지통이 우리의 모든 생명력과 모든 살아나가는 길을 진화시켜주고 이렇게 창조해주고 있는 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지고 본다면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지금 생활도 못하고 우리가 움죽거릴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진 것은 이 의식을 구석구석이 가질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건 아무리 어떻다고 해도 모습은 형성시킬 수 있을지언정, 또 더러 더러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방 언저리는 알게 할 수 있다 할지언정 그 사방 구석구석이 그 가운데에, 그냥 하나만 가져도 전체를 알게끔 되는 근본은 넣어줄 수가 없죠. 근본은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일부러 꾸며서 한다면 이게 잘못되어 돌아가는 이치가 많죠.

왜냐하면 그것은 악마 같은 일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재가 안되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강도짓을 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두려움도 없이 그냥 하는 걸로 알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건 아무리 전체 세계에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다운 근본하고는 거리가 아예 먼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氣가 주위에 전이돼 괴로워

문 저는 몇 년간 기 공부를 하다가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기 공부를 놓아 버린지 거의 이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아직도 항상 기가 서려 있고, 그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제 몸 상태나 마음의 변화가 즉각 전이됩니다. 화가 잔뜩 나 있으면 주위 사람들도 영향을 받으며, 제가 깜짝 놀라면 주위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식입니다. 또 상대방 마음의 일부가 제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저 혼자 착각하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주인공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감사히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 그건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곤하고 기운이 없다, 그래서 일어날 기운도 없을 때에, 그럴 때 마음으로, 의욕이 나지 않고 왜 이렇게 기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 하고선 벌떡 일어난다면 그냥 의욕이 생기고 그냥 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따라지라고 내가 그랬죠? 마음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기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기운이라고 해도 되죠.

정맥 동맥이 잘 돌아가고 핏줄이 잘 돌아가면 그대로 그냥 기가 잘 돌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후사가 다 마음에 달린 겁니다. 차가 운행을 하려면 바퀴를 꿴 중심과 엔진이 없으면 그건 아예 차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차가 굴러가는 것도. 그러니까 기름 떨어지지 않게 기름 넣으면 되고 말입니다. 그게 기름과 같은 건데 내 몸뚱이 차가 기름이 없게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는 딴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딴 데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단, 자기를 진짜로 믿는다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내가 너를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뿌리니까, 그냥 뿌리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것을 흡수해서 올려보내죠.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로 내 뿌리를 믿는다면 그 믿는 마음이, 즉 태양력과 공기력을 내려보내는 것과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도 정맥 동맥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라는 문제를 일일이 생각을 안해도 저절로 기운이 생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운용하는 근본 뿌리만을 생각하며 근본에다 모든 것을 놓고 산다면 기의 문제든 뭐든, 그 바퀴 속에서 다 돌아가고 필요에 따라 생산이 돼 나오고 할 것이니, 그렇게 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과 건강문제에 대하여

문 스님, 새해에도 저희들 보살피심에 다함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감히 청해 봅니다. 스님께 이런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니 한 해 한 해가 몸이 달라지고, 어떤 때는 갑자기 뒷머리가 뻐근하거나 하면 걱정이 덜컥 앞서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때가 많습니다. 병의 문제는 중생들에게는 참으로 깊고도 큰 일인지라 몸에 대한 집착은 유달리 떨치기가 힘든 듯합니다. 스님께서는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며, 안 좋은 데가 있거나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림 · 최주현

악마같은 일도 할 수 있는 복제인간 근본 벗어났기에 성공하기 힘들어

답 내 건강이래야 그냥그냥, 어디가 좀 신통찮으면 아프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고 그렇죠. 그저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늙을 때까지도 병이 나서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 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응신이라는 보살이 즉 자긴데, 자기가 자기 모습을 형성시켜 놓고 어떡할 거예요? 자기 모습을 형성시켜 놨으니까 둘이 아닌데, 자기가 몸을 움죽거리고 다니려면 몸으로도 다녀야 되고, 몸 아닌 자기로도 다녀야 되고, 갖은 각색으로 다 움죽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어, 하고 할 때에 그게 결국은 해결이 되는 거죠.

나는 사람들더러도 그러거든요, 어디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고 찾아오면, 당신이 이 마음의 공부를 해서 해결을 보려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프면, 즉 자기 주인공에다가 그렇게,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면 바로 약사보살이 돼 준다고, 즉 말하자면 일등 가는 의사가 돼 준다고 말해 줍니다. 또, 좋은 데로 못 가면 저 사람 좀 좋은 데로 가게 하는 것도 너뿐이잖아. 이렇게 하면 또 지장보살이 돼 주고 이러니까, 어느 것이든, 어느 이름이든 다 될 수 있고, 이름 아닌 이름도 될 수 있고, 뭐 하나 아니 되는 게 없으니까, 그 이름은 보살이지만 부처님의 도리를 보살들이 다 하잖습니까? 용도대로 말입니다.

예전에 산으로 다니며 공부할 때 말입니다, 가야지 하고 딱 나서서 길을 걷고 있으려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길을 어디까지 걸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어디까지 걸어야 하는 가도 없지. 그러면서 계속 길을 걷는데, 어떤 길인지를 몰라서 발이 딱 묶였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하고 내면에 물으니 아주 천야만야한 낭떠러지, 천야만야한 산 두메, 길도 아닌 그냥 억새풀이 만장한 그런 곳을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이구, 죽으나 사나 거기가 길이라니 가야지, 그러고 반쯤 가다 보니 억새풀에 모두 그어지고 그러니까 찢어져서 피가 나고, 날은 다 저물고 캄캄해지고 그렇게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무(無)의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랬죠. 그랬더니 웃음이 나잖아요. 그러구선 아, 길은 천지가 다 길이지만 그 천지가 길이라는 걸 알고 네가 실천할 때, 구태여 날더러 묻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좋고 평탄한 대로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억새풀이 빽빽한 소로, 길도 없는 길인 때도 있겠지만 그게 모두가, 깨달으면 한걸음이고 깨닫지 못하면 천리 만리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랬습니다.

죽일테면 죽이고 살릴테면 살려라 그 거죠. 그래도 나중에 이 스승이 가르쳐준 그 길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것을 가지고 그랬다구 허허, 웃음도 짓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둥바둥거리고 악착스럽게 매달려 있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쪽 저쪽의 맛을 다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길 아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테고, 그러면서도 이 몸뚱이 시자가 건강해야 부처님 심부름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테니 또 그것도 관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 부지런히 그 길 아닌 길을 다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지웠습니다

문 스님, 저는 한 생명을 지웠습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생에 제가 큰 벌을 받겠지요? 제가 아이를 지워야 했던 것을 지금은 후회합니다. 스님! 제가 속죄하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지요. 부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답 그것도 여러 가지죠,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됐길래 낙태를 했느냐에 따라서 더하고 덜함의 죄가 있겠죠. 어쩔 수가 없어서, 남편의 배신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자가 배신을 했기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고, 돈벌이를 해 가지고 어린애를 가지자 해서 낙태하는 수도 있습디다. 또, 여자애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남자애가 영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낙태하는 수도 많구요. 여러 가지가지겠지요.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우리 선원에도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낙태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낙태시키는 숫자를 생각해서 그만큼 정성을 들이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네 마음의 그 영에다가 영을 만 개를 넣으면 몇 개가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으면 됐소!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전에는 병원을 운영하는데, 잘못돼서 크게 일이 벌어지고 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부터 그런 일들이 다 없어졌다고 감사하다고 그립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어떤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 70살이고 80살이고 딱 주어져서 이제 잉태가 됩니다.

그러는데 그냥 중간에서 탁 치워버리니까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70살까지 살 나이라면 70살까지 허공에서 들아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 기한까지? 이게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조금도 에누리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렇게 가로막히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리를 배워서 지극하게 근본과 둘 아니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바로 그냥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 버려도 두드러지지 않죠, 빗물이 바다로 수많은 방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죠? 이 한 그릇의 물을 한 그릇의 물에다가 이렇게 부은들 그냥 한 그릇이죠. 그와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을 또 이 주인공에 의해서 줄을 놔서 내 보낸단 말입니다, 좀더 좋은 데로.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어서 그렇게 악행스럽게,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런 가정에 다시금 태어나지 말라 하고 지극하게 염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예요.

나는 어떡하든지 여러분이 편리하고 마음을 홀홀 털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자꾸 얘기를 해 드리거든요. 뭐 안된다, 뭐 죄가 있어서…, 너는 무슨 뭐 업이 있어서 못 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 이 불바퀴에다가 그냥 갖다가 넣으면 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력이라는 것은 자석이 큰 덩어리가 있으면 조그만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큰 데 갖다 붙으면 그냥 하나로 돼 버리고 말죠, 그와 같은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 생각하기에 달려 있고, 그 생각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생활이 윤택해 질 수도 있고, 생활이 급박해 질 수도 있고, 생활이 완화될 수도 있고 다복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극치적으로 그냥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자유스러운데 왜 자유스럽게들 못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나는 이제 큰 벌을 받는다고 마음을 옭아매어 놓고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 내 안의 근본에 둘 아니게 하나로 결부를 시켜버리고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모든 것을 둘 아니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믿음도 없는데 내 행동만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조각 진실한 마음으로 통신할 수 있다면 그 생명도 당신과 둘 아니게 차원이 높아져서 더 좋은 곳에 임할 테니까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準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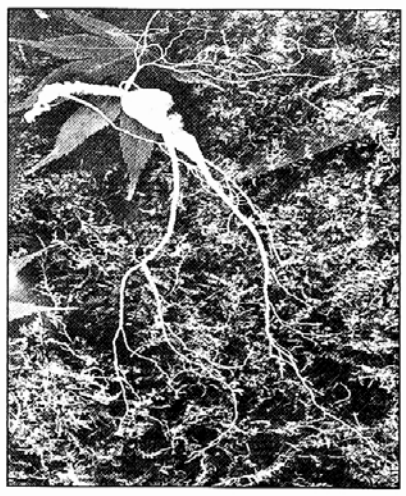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 446-4422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후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사 과 문

지난 1월24일자 본지 제304호 21면 불자정보 광고지면에 실린 배우자 구함 광고(하단에 광고주가 여성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비구니스님이 언급 됨)와 관련하여 광고문안의 접수 및 제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점검되어야 할 광고 내용을 별 생각 없이 그 대로 집행 함으로써 불자에게 정신적 사표이자 예경 대상인 스님을 세속적인 결혼의 상대로 표기하는 우를 범해 수행에 정진하시는 비구니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깊은 참회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불교신문사 광고부 직원일동은 삼보에 귀의한 불자로서 그 소임에 충실치 못한 점에 깊이 참회 하고 포교일선의 시봉자로서 향후 이러한 유형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을 사부대중께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본지 불자정보 광고에 게재되고있던 철학관, 운세 보는 법 전수 등 내용의 광고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접수 및 게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45년 2월
현 대 불 교 신 문 사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 · 침구 일체 완비
-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김 창 본
011) 545-7252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
근무시간 : 오전 10시~오후 17시
주 5일근무
자 격 : 고졸이상
연 령 : 35-55세
전 화 : 02) 3434-0447
02) 3434-0481
※ 의욕적이고 참신한 사고를 가진 주부사원을 모집합니다

대웅전 복원 불사 권선문
신라시대 절터(폐사지)석탑과 대웅전, 복원불사를 도와주시면 소승이 고이 고이 간직하던 600년된 벼락맞은 대주나물(벽조목) 염주, 담주, 도장, 차량용걸이, 핸드폰걸이 5가지를 20만원 시주 하시면 보증서와 함께 엄선하여 수가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장선원 주지 혜봉 합장
※ 생년월일, 성명, 대웅전에 새겨 영구히 보존해 드립니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부처골)
주소를 알려주시면 복원 불사지 사진, 불사내역을 보내 드립니다.
011) 813-3679 국민은행 615-21-0517-898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 ◆심한 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종무원 모집
▷ 30~40대
(신심있는 남녀 불자)
▷ 숙식 가능한 자
▷ 컴퓨터 능숙자(학력 불문)
경북 군위 인각사
054)383-3757
011)821-2346



『선문염송』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방대한 양의 본 공안 한 칙 한 칙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법문과 송이 딸려 있다.
『바로보인 선문염송』을 역저한 대원 문재현 선사는 세계최초로 선문염송 전 공안에 대해
첫째, 글자 해석에 의한 번역이 아닌 일체종지를 통달한 지혜로 의로를 따라 번역하였다.
둘째, 법문의 어디에 선사님들의 참 의중인 공안이 숨어있는가를 밝혀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셋째, 매 칙마다 도움말로 취모검을 휘둘러 보였다.
☞ http://www.zenparadise.com
전30권중 1권 ☎ 02-597-2460 도서출판 바른보임

사찰 안내
- 경북 영천시 산업도로 IC 1km지점
- 법당 24평 요사 24평
  요사 15평 화장실 3개
- 특징 : 교통편리, 사찰 앞 30m까지 시내버스 운행, 조경완벽
- 가액 : 9천만원

054)335-0092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부전스님도 행자도 구함)
천안 종무소 :
041)584-6674~5
주지실 직통 : 041)584-6676
수행여건 좋음

기도,공부할 분
심신을 수련하고
공부 정진 하실
불자님 모십니다.
청정도량 정안사
031)375-1831

행 자 모 집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조계종)
www.TVbuddha.co.kr
- 우리나라 최대의 7층 대법당, 최첨단 시설
- 21C 세계불교를 이끌 의식있는 수행자 양성
- 수행과 교육위주 - 모든 지원
- 불교발전의 획기적 모델 / 한 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행자 전용교육장 / 남 · 여 행자원(위탁교육가능)

대 구 (053) 474-8228 정규교리반, 통신반, 인터넷반 - 학생모집중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목포 유달산 달성사
061)244-1489

출가한지 4년된 사미승입니다. 서울,경기지역에 부전자리 원합니다.
017)515-7527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성불사에서 정법으로 공부하며 스님이 되고자 원하시는 몇분을 모십니다
▷ 침식등은 무료제공
054) 858-0134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200평
- 임법당 : 40평 ● 가액 : 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절대 비밀 보장
02) 723-4082
광진불사

포교당 안내
- 대구 용례 전철역에 붙어있음
- 동대구 IC 3분거리 4층 건물 2층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 호조건, 납골당 관심있는 분 환영

011)813-3679

사찰 (급) 안내
- 신축 사찰을 조성 원가 20억 일부 보시하고 양도 합니다. 뜻있으신 스님 연락 주십시오.
- 부지 2천평, 건물 180평, 포집양식, 정남향 기와, 황토집 (건물 7동)
- 경부 고속도로 용인, 기흥 IC 인근

031)375-7063 (창건주 직접)

◎ 인터넷 백화점을 분양합니다.
※ 사업을 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으신 분
※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신 분
※ 명예 퇴직 하신 분
※ 전업 주부님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

21세기 유통의 변화로 기존 판매 대리점들이 사라지고 있다. 아직도 사업 개설 보증금 매장 임대료 관리비용 재고 부담 각종 세금 그리고 인건비로 걱정 하십니까? 인터넷 백화점을 분양 받으면서 편하게 영업만 하시면 됩니다.
분양 문의 02)516-6347 담당자 : 정인철 H.P 016)246-8410
FAX 02)3442-0153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7-23 성도빌딩 14층

탈 중 공 고
- 사 찰 : 극락사
- 주 지 : 이남은 스님 ■본 명 : 이창근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반포 4동 83-14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대한 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2001. 2. 2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5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2천

016)651-1800
011)870-146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35-440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명일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3층 30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1,500 월 50만원
- 시설비 : 300만원

02)481-448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여중 뒤
- 평수 : 3층 23평
- 보증금 :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32)654-5859

토굴 안내
- 위치 : 함양군 마천면
- 특징 : 지리산 주능선 전망 (남향)
  ① 윤판황토집 신축 23평
  ● 부지: 900평 ● 가액: 1억 5천
  ② 윤판 너와 황토집 30평 보살 선방 가능
- 부지:1000평 ● 가액: 1억 5천

016)551-8780

토굴 안내(급)
- 위치 : 경북 의성 안계
- 대지 132평 법당 요사채 2동 황토벽난로, 풍수재격
- 가액 : 2300만원 (절충가) (시설비도 안되는 가격)

스님 직접 033)378-5713
011)806-4867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062)234-470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전철역 부근)
- 평수 : 3층 건물의 2층, 45평 (법당, 방2, 주방)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1)258-114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 4가 (요지)
- 평수 : 70평 4층 건물 3층
- 구조 : 법당시설 A급, 개금동불 (아미타불 5자) 일급 탱화 모든 시설 완비, 요사채 2, 주방 1, 샘프시설완비, 샤워장,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전세) 월세(답사 후 결정)시설비 3,000만원

011)523-0716/054)292-4117

사찰 안내
- 위치 : 청주 근교
- 부지 : 7000평
- 법왕 : 20평 목조건물
- 요사채 : 40평 목조건물
- 특징 : 용왕당 각종시설 완비
- 가액 : 5억

043)260-6766
011)9746-6766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역 앞 3층 건물
- 2층 : 차와 사주공간 커피숍 실내면적 40평 보증금 500 월 6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 3층 : 포교당 40평 (불광사) 보증금 200 월 10만원 시설비 500만원 (절충가능)

042)256-1707
011)9079-01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소재 ● 부지 : 약 400평 ● 요사 : 80평
- 법당 : 45평 (목조, 단청) ● 토굴 : 40평 (목조, 황토)
- 기타 : 산신각, 칠성각 (목조,단청) ● 가액 : 6억원
- 특징 : 4산세와 계곡이 어우러진 청정도량으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아주 좋습니다. 10년간 대작불사된 사찰로 스님신병관계로 급히 양도코져 합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서울 02)326-1060 · 대구 053)652-9598 핸드폰 018)334-9021
동 진 불 사 ※ 전국의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포교당(수원)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평수 80평 권리금 2000만원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1000평
- 법당 : 요사, 주차완비
- 가액 : 8천만원

017)856-3617
055)854-52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억 5천

- 위치 : 강원 영월
- 법당 : 12평
- 요사 : 40평
- 부지 : 450평
- 가액 : 2억 3천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포교당)
- 요사 : 18평
- 가액 : 1500/30

017-210-5527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438평 (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법당 31평 (목조 3포, 5포, 금단청필)
- 요사: 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부전: 10평 (단청필)
- 기타: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8억(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 감
-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47 053)652-9598 02)326-1060

사 찰 안 내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 소재
- 대 지 : 5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60평 (2동)
- ※ 교통 및 산세좋은 기도 정진도량 임
- 양도가 : 1억 8천 만원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소재
- 부 지 : 8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70평 (3동)
- ※ 도심소재 역사깊은 사찰 임. 뒤는 산임
- 양도가 : 2억 2천 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내
- 대지 : 근260여평 법당 1동 요사 2동 주지실 1동 종각 1동 기름보일러 옥실완비 사답 몇 마지기
- 가액 : 1억 5천

017)552-7350
055)746-7350

지리산 한옥식 황토방 토굴
- 위치:실상사 마천→백우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밀 텃밭 ● 가액:1억 9천
- 임야 2583평 ● 가액:1천 8백만원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각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지리산 청학동 신선마을 서당 하실 분
- 위치 : 구 · 심곡 분교
- 면적 : 가. 대지 - 1211평 나. 건물 - 205평
- 가액 : 상담 후 가격결정 (임대 또는 매매)

011)569-5844
055)884-5840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 국유지 인법당 28평
- 특징 : 인천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산사 청정 도량임
- 가액 : 답사 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이나 보살님을 찾습니다
032) 874-0194
011) 321-019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송상현 동상옆 진경경찰서 입구
- 건평 130평 법당 70평 방 5개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특징 : 시설 일체 완비 양도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 법회가능
055)326-0671
011)843-5672

포교원(급) 안내
- 대구 남산동 106-28호 2층 48평 태흥사
- 법당시설 A급 : 개금3존동불, 1급탱화3점반야평풍1점, 대북, 범종<방2, 부엌, 화장실>
- 신중단에 고려대장경 23권 봉안
- 보증금 6백(월 40만원) 시설권리 1천5백

053)255-6628

부산시에 포교당 하실분
소승이 소유하고 있는 이 집은 원래는 포교당을 할려고 구입하였으나 경제상 어려움으로 뜻이 있는 분에게 매매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위치가 포교당으로 적격하고 주위가 조용합니다.
1. 주소.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224-2번지
2. 위치, 사하전철 역 ➡ 복계천 5분거리 전신전화국 뒤
3. 대지 96평 4. 건평 약 40평 건물 2동
5. 가액 2억3천만원 (융자를 넘게 받으면 1억3천만원)

연락처 포항시 흥해읍 흥안 2동 흥안사
☎ 054)261-6948 · HP 011) 835-5363 · HP 017) 803-0202

차암련 회장에 듣는다

"사회그늘 자비손길 펴겠다"

인천불교련 혜운스님



인구 250만명의 인천광역시. 개신교의 입항지로 유명한 인천은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약한 곳이다. 그러나 지난 1947년 8월 인천불교연합회가 발족하면서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신도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활발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어느 종교보다도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73년부터 9 · 10 · 11 · 12 · 13 · 15대 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 또다시 제22대 회장에 취임한 인천불교연합회 회장 혜운(수도사 주지)스님은 "불타의 혜명을 이어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며, 사회복지를 구현한다는 연합회 설립목적을 올해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54년간 300여 회원사찰로 연합회를 발전시켜 온 혜운스님은 "여느해처럼 조용히 어두운 곳에서 불교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인천불교연합회 사업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실직자 취업알선 · 무료 급식

군 · 교도소 위문 · 이미용 봉사

인천불교련은 올해도 실직자 취업알선 및 저소득층 무료급식, 저소득층 가정 및 결식학생 생활비 지원, 무료진료, 장학사업, 무료 이 · 미용봉사, 경로위안 법회, 종교화합(크리스마스 경축) 행사, 군 · 교도소 불자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5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서는 군장병 위문, 사회불우시설 방문, 경찰가족을 위한 법회가 예정되어 있고 6월에는 전회원 사찰이 보훈가족돕기 운동 및 전몰 군 · 경 · 장병과 유주무주 영가들을 위한 우란분절 천도재를 봉행한다. 8월에는 우란분절 천도법회와 동시에 다양한 경로효친 사상을 전개하고, 9월에는 인천구치소 재소자들의 조상다례법회를 봉행한다. 10월경에는 인천불교 발전 및 인성회복을 위한 불교지도자법회를 개최한다.

이들 다양한 사업들은 불교연합회의 지원아래 회원 사찰과 산하 신행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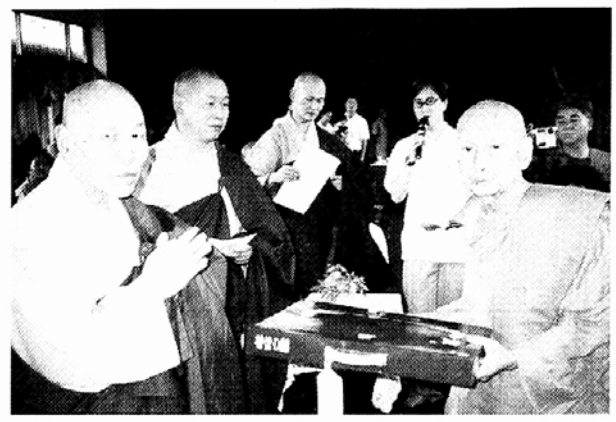
연꽃마을 인천지부와 피안사회복지관은 양방과 한방을 통한 노인 무료 진료와 급식사업을, 인천불교사회복지관과 피안사회복지관은 무료 이동목욕차량 봉사와 도시락 배달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98년 구치소내에 높이 3.3미터의 아미타불을 봉안하기도 한 인천구치소 불교위원회는 재소자 교화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약사사와 호불사, 구양사, 금강회 등은 수십년전부터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혜운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를 포교거점지역으로 선정하고 인천불교회관 건립(6월경 기공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계종 사암연합회와 적극 협력해 신도교육과 포교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친절운동인천시 본부장,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부회장, 인천 환경의제21 추진협의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활동도 펼치고 있는 혜운스님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 인천불교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다"고 말했다. 인천=김재경 기자

한국불상 방콕 대리석사원 '나투다'

세계 각 국의 부처님이 봉안돼 있어 매년 3천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적 사원인 방콕 대리석사원에 한국불상이 처음으로 모셔졌다. 14일 오전 9시, 대리석사원 출라롱콘대왕기념관 법당에서 한국의 (재)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 태국 고승인 파라끼띠오니스님을 비롯한 40여명의 한국 및 태국스님, 1백6명의 한국불자, 10여명의 태국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 태 불교문화교류법회가 열리고 한국불상 점안 및 봉안식이 봉행됐다.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과 태국고승 파라끼띠오니 스님이 한 · 태 교류협정서를 교환하고 우호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세계 53개국 청동불과 나란히 봉안

정일스님 한-태교류 협정맺고 법문

이와 함께 한국 불교계와 태국 불교계를 대표하여 정일스님과 파라끼띠오니스님이 한 · 태 불교교류 협정서를 교환하고 서울 보광사와 대리석사원의 자매결연도 맺었다.

태국 전역에 있는 사원 중 가장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지고, 건물 내부가 라카와 황금을 재료로 한 대들보들이 서로 교차되어 웅장한 미를 자랑하고 있는 대리석 사원은 태국에서 성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라마5세 쫄라롱콘대왕(1868~1910)이 왕자시절부터 '세계 각 나라의 부처님을 모시고 세계불교문화를 집대성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1900년 건립한 사찰인만큼 현 라마9세 국왕이 매년 대웅전 부처님의 가사를 직접 입히는 의식을 봉행하고, 사찰의 유지보수에 각별히 신경쓰는 사찰이다.

태국 문화재관리국의 집중관리를 받고 있는 대리석 사원에는 본당과 회랑에 석가모니 좌상, 입상, 고행상, 열반상, 걷는 부처님상 등 중국, 일본,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티벳 등 세계 53개국의 청동불상이 봉안돼 있다.

대리석사원의 한국불상 봉안은 몇번 추진됐던 사안이었다. 특히 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안기부장 이후락씨의 주도로 정부차원에서 불상을 조성해 봉안하려 했으나 화랑에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야외에 에밀레종 모형만 안치했었다.

교류법회는 먼저 태국스님들이 부처님과 동일선상에 마련된 법좌에 나란히 앉아 부채를 들고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집중 하십시오'라는 게송과 함께 축원, 정근, 한국부처님 점안 및 봉안법회, 법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태국고승 파라끼띠오니스님(대리석사원)은 법문을 통해 "한국에서 오신 큰스님과 불자들에게 태국을 대표하여 감사 드린다"며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버마, 스리랑카부처님이 모셔진 대리석 사원에 오늘 한국부처님을 모시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오늘법회를 계기로 한 · 태불교 우호협력에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한국스님들이 법좌에 앉아 한국식 축원과 정근, 법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문에서 정일스님은 "차별없는 부처님 법은 모두가 일체 번뇌와 차별이 없는 열반의 법이다"며 "북방 남방 소승 대승의 경계가 없는 만큼 참된 진리에 의지하여 열심히 정진하자"고 법문했다. 참가 사부대중들은 법회가 끝난 후에도 부처님전에 연꽃과 향초를 봉헌하며 세계인들의 참배가 잦은 태국 대리석사원에 한국의 불상이 모셔짐으로써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다음날인 1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이암 왕국(1350~1767)의 수도인 아유타야, 400여년간 태국을 지배하며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왕궁의 모습은 간데 없지만 불심의 향취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아유타와 왕궁 내 사찰 부처님사리탑 3기가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치솟아 있 왓 프라시산펫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한 · 태교류법회 단장 정일스님이 야외법단에 올랐다. 대중스님들이 삼배를 올린 뒤 청법게를 하며 법을 청하자 스님은 야단법석을 했다. 순간 주위에 모여있던 한국관광객과 각 국의 외국인들이 밀물처럼 몰려와 법문에 귀를 귀울인다. 스님은 "모든 보이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는 부처님 몸입니다.부처님 49년 설법은 모두 깨달으면 생사없는 경지에 들어선다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생의 명이 다해도 쓸 수 있는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라고 설했다.

박호표 관장(충북불교회관, 청주대 교수)은 신도들을 대표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 더욱 정진하여 번뇌를 끊고 본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원했다.

태국=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감로사 3천배 법회 '50돌'

내달 4일~8일… "참회로 업장소멸 · 국난극복"

6.25사변 이후 민족의 고통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온 감로사 삼천배 참회법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아 3월4일부터 8일까지 5일동안 하루 12시간의 3천배 참회기도와 더불어 지관, 인환, 정관, 성오, 세민, 각성스님 등 스님들의 귀한 감로법문으로 신심을 다지게 된다.

51년 정월 초하루, '국난을 퇴치하는 길은 참회밖에 없다'는 스님들의 뜻이 모여 시작된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는 이제 사부대중의 참회로 이어지며 반세기를 맞았다. 부산으로 피난와 있던 자운, 향곡, 성철, 청담스님 등 여러 고승들이 주석했던 감로사를 중심으로 참회의 공덕으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정진의 불씨가 피어난 것. 50년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유일한 참회기도법회인 감로사 참회법회에서 개인의 업장소멸과 국가 안위를 발원해 온 불자만도 수 십만명에 이른다.

주지 혜총스님은 "불자들의 부단한 참회기도의 공덕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불자라면 참회 기도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전통사찰 보존지역 보호

원주시의회 조례안 제정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창운)는 전통사찰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수행 ·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것과 관련, 2월 20일 원주시장이 제안한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전통사찰 지역에서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할 때에는 전통사찰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선암사 대웅전 보수

변형 심해…2002년 완공

순천 선암사(주지 지허)가 대웅전(전남도 유형문화재 41호)을 보수한다.

2002년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웅전 보수불사는 이달 초 공사를 발주하여 대웅전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공사비는 선암사 자체부담을 비롯, 국비와 도비 등 총 3억8천4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대웅전은 전반적으로 마루귀틀과 청판의 상태가 불량하고 변형이 심한 상태이며 불단 앞 중귀틀은 불상과 불단의 하중으로 인해 장귀틀과의 맞춤부분이 깨지고 부식되어 이탈된 상태에 있다. 또 장귀틀과 내진주와의 맞춤부분도 이완되어 침하상태에 있으며 마루틀의 부분적 침하로 불단이 기울고 뒤틀려 변형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경숙 기자

문화재사범 또 검거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경찰의 공조 수사가 연이어 쾌거를 올리고 있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서초 경찰서는 대둔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절도범 검거(본보 307호 23면)에 이어 89년 충남 무량사에서 괴한에게 탈취당한 금동보살좌상 등 시가 15억 상당의 문화재를 시중에 팔려던 김 모씨를 검거하고 유물 4점을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한 금동보살좌상과 금동관세음보살, 지장보살좌상은 71년 무량사 경내에 있는 보물 제185호 5층 석탑을 복원하던 중 탑신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난 89년 7월 흥기를 든 괴한 3명에게 강탈당했다. 권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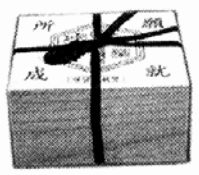
故 이수현 장학재단 설립

자랑스런 불자 고 이수현 유해가 안치된 정수사(주지 원광)는 최근 경내에 설치한 납골당에서 나오는 수익 전액을 고인의 사망 1주기에 '이수현 장학재단(가칭)'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법당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각을 세우는 한편 사망 1주기를 맞아 실제 추모관 건립도 추진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가정을 지켜주는 명당 육기(氣)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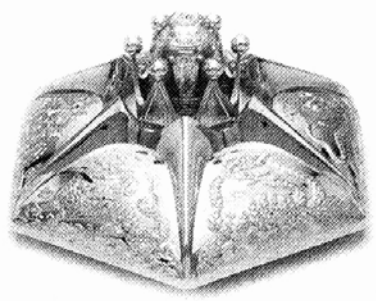
氣란 현실이다.
음, 양 조화가 맞져야 합니다.
※ 좋은 氣가 강해야 강자가 될 수있고,
氣가 약하면 무능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는 것입니다.
※氣란 강, 약, 이 꼭 필요합니다.
강, 약, 이 맞지 않는 기(氣)는 가정에 무능과, 충돌과 불화가 자주 일어 납니다.
※ 육氣방은 중심의 氣로서 가정에 氣의 강, 약, (바란스)을 조절해 주고 청명한 정기(正氣)를 발산하여 좋은 氣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가정에 두십시요.



◆육기방 수호신장 (六氣方 守護神將)◆

좌청룡(靑龍) :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고서를 인용하면 청룡에서 발생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 천하 4방중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作) : 천하 4방중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기(氣)란 : 현실이다



북현무(玄武) : 천하 4방중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찬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이여법칙을 어기지말라."◆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사용처◆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불교용품점, 사찰, 암자, 철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 051)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 명당육氣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 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혜진스님 성관계 양심고백 원장직 사퇴-승적 포기

'나눔의 집' 운영 차질

여성단체 성폭력 비난

"후원 끊겠다" 전화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나눔의 집 원장이었던 혜진스님의 여성문제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이 여성단체와 네티즌들 간에 '성폭력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나눔의 집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나눔의 집은 현재 조계종 복지재단의 도움으로 행정공백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으나 후원을 끊겠다는 전화가 걸려오는 등 피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또 위안부 역사관도 임시 휴관 3일만인 20일 문을 열었으나 일본 최대 전쟁연구소인 '전쟁자료센터' 소속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이번달 방문을 취소시키는 등 실질적인 정상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나눔의 집은 이달 중으로 법인 이사회를 열고 새 원장을 선임하는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같은 혼란은 지난 17일 혜진스님이 '양심고백'을 하면서 시작됐다. 혜진스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모카페에서 양심고백 기자회견을 열고 "97년과 그 이전에 두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종교인이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을 벌여온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며 "나눔의 집 원장직 사퇴와 함께 승적을 포기하고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나눔의 집에서 근무하다 작년 11월 해고된 오모(여 · 43)씨가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혜진스님이 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97년부터 1년여간 한 달에 두세 차례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혜진스님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97년 3~4개월에 걸쳐 성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폭력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개인 문제로 인해 위안부 피해보상 운동에 누를 끼치게 될까봐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혜진스님의 양심고백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 문제를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나섰고, 이와는 반대로 많은 네티즌들은 "사실 규명도 안된 상태에서 성폭력으로 규정한 자체가 폭력"이라며 발발하는 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계에서는 "스님으로서 여성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한 그동안의 공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 문제로 나눔의 집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3월2일~9일 '경건주간'

출가 · 열반절 행사 다채

조계사-일일출가
정토회-한끼 굶기
신흥사-참회연비
봉은사-철야정진

3월2일과 9일은 부처님의 출가 · 열반일. 부처님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을 맞아 전국 사찰과 단체들이 이 기간을 '경건주간'으로 정하고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 일일출가, 참회법회, 고승법문, 경전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조계사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불자들을 대상으로 '일일출가' 행사를 실시한다. 하루동안 절에 머물면서 불교의 전통 수행법과 사찰 공동체 생활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발심정진법회, 발우공양, 1보3배 정진, 경전사경 등으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하루에 30명씩 모두 240명이 참가하게 된다. 02-720-1390

정토회 역시 같은 기간동안 8일 출가 용맹정진과 함께 한끼 굶기 행사를 갖는다. 또한 3일에는 통일염원 철야정진을, 9일에는 수계법회도 봉행한다 02-587-8993. 경기 화성 신흥사도 3월4일 '일일출가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수련대회는 발우공양, 신도회장인 전재근 교수(서울대 식품공학)의 '생명과학 특강', 참회연비의식, 참선실수 등으로 진행된다. 031-357-2695

'일일출가' 행사와 함께 다양한 내용의 법회도 풍성하다. 미타사 정수암은 8일부터 15일까지 법회 참가자들이 매일 육법공양을 올리고 〈자비도량참법〉을 독송하며 참회정진하는 '자비도량 참법법회'를 봉행한다 02-2298-1162. 또 창원 성주사는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2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큰스님 설법과 함께 108참회로 진행되는 '니르바나 정진 대법회'를 개최한다. 055-262-0108

봉은사도 같은 기간동안 108참회법회를 개최하고 철야정진기도에 들어가며 02-545-1448. 구룡사도 108참회법회와 함께 참선실수 및 〈금강경〉 사경법회를 봉행한다 02-575-7766. 또 대구 법왕사도 8일간 '1만배 정진대법회'를 개최하며 053-766-3747. 부산 삼광사는 17일부터 23일까지 종단스님 초청법회와 함께 철야기도정진법회를 연다 051-808-7111.

이밖에 영남불교대학은 이 기간을 '전 신도 용맹정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매일 108배 하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포교하기, 3천배 한 번 이상 하기, 불교도서 한 권 이상 읽기 등의 수행지침을 실행한다 053-474-8228. 또 강남포교원은 이 기간동안 〈유교경〉 특별강좌를 열며 02-539-2631, 금산사는 9일 '해인사 사찰순례' 행사를 갖는다 063-548-4441.

한명우 · 김재경 기자

포교사단 생명나눔운동 동참

신륵사 · 봉선사 등서 관광객 대상 홍보

포교사단이 생명나눔실천회의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한다.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3월초부터 여주 신륵사, 남양주 봉선사, 과천 연주암에서 포교사단의 사찰 안내팀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운동을 홍보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포교사단은 3월 3~4일 이틀간 대전 한국통신연수원에서 열리는 '제6회 포교사 고시 최종합격자 연수 및 품수식'에서 신규 포교사 350여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및 화장서약을 할 예정이다.

포교사단 하영태 사무국장은 "생명나눔운동이 전법을 실천하는 포교의 일환인 동시에 불교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포털사이트 '열린불교' 오픈

교계 최초의 사찰관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중심 포털사이트가 2월 28일 오픈한다.

인터넷 열린불교(www.openbud.com)는 지우 커뮤니케이션(대표 여익구)이 인터넷 사찰관리 프로그램과 통합해 선보이는 불교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열린불교 사이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분야는 사찰관리 프로그램. 기존의 소프트 웨어가 아닌 인터넷 상에서 관리되는 종합 사찰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찰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회원)등록을 하면 칼럼 및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법회 불사 불공 인등관리 검색 및 메일 보내기(유무선 음성메일, 문자메시지, 메일) 등이 가능하다.

열린불교는 커뮤니티 구성으로 불자들의 결속을 이끌어 내고 등록사찰이 없는 불자 네티즌들을 기존 사찰과 연계시킨다는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강지연 기자

실상사 '작은학교' 3월4일 개교

교계 첫 대안학교

교계 최초의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가 3월4일 문을 연다.

실상사 작은학교 설립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지원 · 심산스님)는 8명의 교사를 확보하고 15명의 학생을 선발, 3월4일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교 대안교육(비인가 중등과정)에 나선다.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수업을 진행하는 일반 도시학교와는 달리 자연을 벗삼으며 문화체험 및 자율활동에 무게를 둔 작은학교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입학생도 2명씩 짝을 지어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담임교사의 집에서 3년간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규과목의 수업을 받지만 오후에는 다양한 역사체험 및 봉사활동으로 자신의 특기와 개성을 살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학교 앞 텃밭에 각종 채소를 기르고 돼지와 닭 등을 사육, 주식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자립정신을 키우게 된다.

실상사 사중 큰방과 약사전 뒷편 콘테이너에 임시 교실을 마련하고, 교사와 학생이 숙식을 같이 할 생활관으로 민박집 2동과 일반 주택 1동을 갖춘 작은학교는 2학기부터 실상사 인근 산내면 선돌마을에 위치할 귀농전문학교 부근에 학사를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은학교 설립추진위는 학사 마련 및 안정적 운영기금 확보와 불교 대안교육 확산을 위한 역량 축적 및 토대구축을 위해 3억원을 모금(현재 1천2백만원 확보)하기로 하고 모연(募緣)활동에 들어갔다. 02)636-3369 김재경 기자



동국대 왕생원 개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병원장 정필현)은 경주병원 서편에 전문 장례식장인 왕생원을 마련하고 20일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녹원스님, 송석구 총장을 비롯해 서정욱 동국의료원장, 이원식 경주시장, 신성모 경주시의회 의장 등 교내 · 외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외국인 노동자 평등하게 대해달라"

방한 미얀마 냐니사라스님



미얀마의 한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고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었다.

미얀마 불교계의 최고지위(Agamaha pannita)급 고승인 냐니사라 스님(시타구 위하리불교대학장)은 25일 부천 석왕사에서 재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법회를 열고, 이국 땅에서도 불교 신행을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23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회를 석왕사에서 연 냐니사라 스님은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생명 평화연대 준비위

'지리산살리기 댐백지화 범불교연대'와 녹색연합 등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준비위원회(가칭)'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이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를 새만금간척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총리실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 최종방침 확정을 당초 예정일인 지난 21일에서 오는 3월말로 연기한 것은 여론이 식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새만금 간척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준비위원회는 또 "지난해 12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서 환경부차관이 '1조원을 넘게 들여도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농업용수기준(4급수)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자료를 제출한 뒤 심한 질타를 받았다"며, "총리실은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새만금 사업자인 농업기반공사의 자료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해 발표하는 등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도와주세요

뇌종양 노동자



방글라데시인 모하마드 사이풀하(Mohammed Sayfullah 남 · 36)씨가 한국의 프레스공장에서 일해 오다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1천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032)654-0664, 국민은행 210-21-1413-820(예금주:이란주) 농협 053-01-243778(예금주:생명나눔) 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아바타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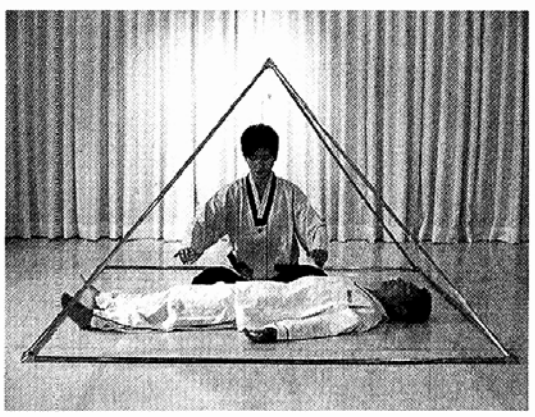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기공.힐링.명상.자연치유센터 다클리닉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당신의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신의 의문은 풀리지 않을것입니다.
몸,마음,영혼의 정화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의 상담가에게 전생,현생의 의미와 목적을 들어보십시요.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요.



프로그램 안내

@리딩(Reading)요법 전문카운셀러가 상담자의 기운과 영혼의 파장 감지하여 상담자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각성.

@전생 퇴행 요법 전생퇴행으로 몸과 마음의 정화와 의식의 확대 인간관계 해결등. 많은 문제 해결과 영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습니다.

@힐링(Healing) 막히고 울체 되어 있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영능력개발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여 초감각 개발 및 힐링에너지개발.

@ 치유기공 활.기공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

@소명수련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깨닫게하는과정

다클리닉 강남센터 : 02)3218-7611
여의도센터 : 02)786-2333
광 주 센 터 : 062)366-1533
홈페이지주소 http:www.dahnclinic.co.kr
(원장님과직접 상담가능)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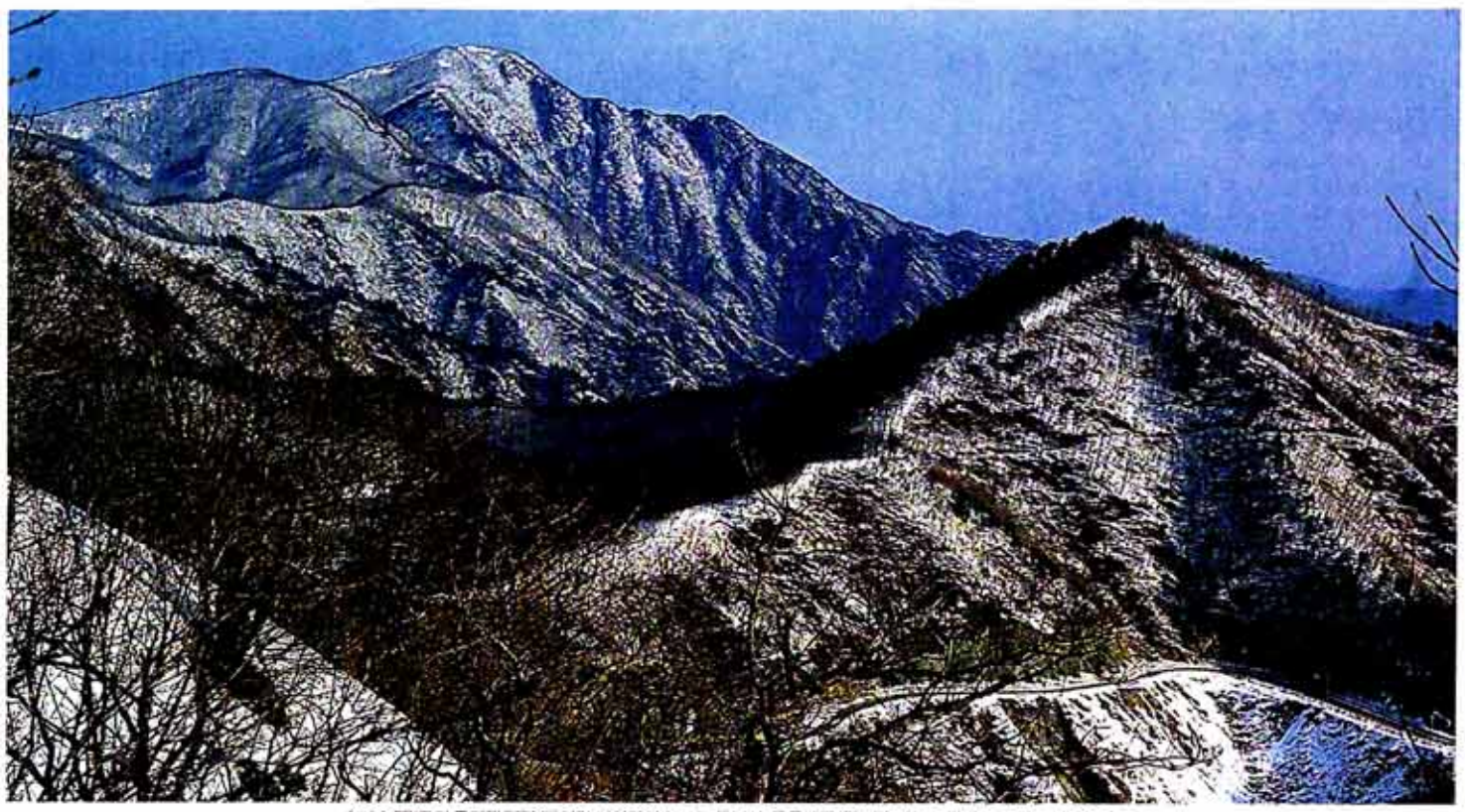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두타정상 오르니 동해바다 눈앞에 넘실



◇두타산 정상 오름길. 키 작은 참나무와 철쭉이 어우러져 있다.



◇선승(禪僧)의 두타행(頭陀行)처럼 거침없이 오르는 두타산. 무릉계곡 쪽 기슭에는 불퇴전의 고집도 서려있다.

백두대간 속으로 〈30〉

댓재→두타산→청옥산

선경 무릉계곡 한때 이승휴거사 은거
관음암·금란정 인간-자연 조화 극치

초록 물감으로 솔잎을 그리고, 빨간 물감으로 단풍잎을 물들인 다음, 파란 하늘에 흰구름 하나 띄우고 나면 미술 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다. 그런 다음, 별 생각도 없이 검정색으로 변한 붓 씻은 물을 창문 너머로 쏟아버리곤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방금 내가 그린 수채화의 풍경 속에서 뒹굴곤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들어가고 보니, 영어나 한문과 같은 낯선 과목도 있었다. 호기심 반 즐거움 반으로, 또 별 생각 없이 한자와 영어 철자를, 그림 그리듯 적고 노래 부르듯 외우곤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자 공부였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천자문의 첫 네 글자, 천지현황(天地玄黃). 네 글자로 이루어진 천자문 250구의 첫 구절이 너무나 황당했던 것이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니. 뒤엣것은 알겠는데 앞엣것은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리 봐도 하늘은 파랗기만 한데.

두타산으로 오르는 아침, 아직 산이 깨어나기 전, 하늘빛이 수상했다. 그러나, 산허리에 올라서고부터는 하늘도 파랗게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하늘의 빛깔을 일러 '검다'고 하는 까닭을, 그 '묘한 검음' 속에서 모든 존재가 비롯됨을 어렴풋이 나마 알 것 같다.

두타산과의 첫대면은 댓재(810m)를 넘는 바람에 얼굴을 맞기는 일로 시작된다. 몸집 큰 바람이지만 그리 싫지는 않다. 어느샌가 바람의 올은 한결 부실해졌고, 환강하게 버티던 눈도 상당히 가라앉아 있다.

황장산(1,059m)에서 흘러내린 백두대간이 두타산(1,352.7m)을 오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고갯마루인 댓재. 삼척시 미로면과 하장면 사이에 걸터앉은 고개로, 태백 산간지방과 동해를 이어주는 424번 지방도로가 지나는 곳이기도 하다.

댓재 북쪽 언저리에 모신 두타산신(頭陀山神)께 인사를 올리고 검음을 올긴다. 눈 위에 새겨진 앞서 간 발자국이, 하얀 천 위에 수놓인 꽃인 양 곱다.

두타산(頭陀山) 오름 길은 까탈스럽게 가파르지도, 그렇다고 자부할 정도로 밋밋하지도 않다. 산 이름 그대로, 나아감에 걸림없는 선승(禪僧)처럼 거침없이 올라 붙곤 솟았다가 사방 산천 경계를 휘둘러 보고는 또다시 오르기를 서너번 반복한다. 그 오름길의 백미는 정상 직전. 군데군데 무리지은 철쭉과 키재기를 할 정도로 몸집이 작은 참나무 숲 사이로 길게 이어지는 길이다. 시야는 걸림없이 하늘을 향하건만 걸음은 모든 기운을 다 모아야 할 정도로 힘겹다.

그러나 정상은, 오르는 동안의 힘듦을 순식간에 잊게 할 만큼 넉넉하고도 편안하다. 조망 또한 탁월하여 서쪽으로는 청옥산(1,403.7m)이 좋은 이웃처럼 정겹게 다가서고, 동쪽으로는 동해 푸른 물결이 온갖 시름을 거두어 가는 듯하다. 더욱이 이곳에서부터 청옥산을 향하는 길의 동쪽 기슭으로는 그 이름도 근사한 무릉계곡이 펼쳐진다. 범부에게도 신선의 길을 허락하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청옥산을 향해 발길을 옮기기 전 다시 한번 사방을 둘러 보자니 박새 한 마리가 눈길을 잡는다. 저도 소리내며 움직이는 것들이 그리웠을까, 조금의 경계심도 없이 모진 인간에게도 곁을 주는 그 모습이, 한 순간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두타산에서 청옥산을 향하는 길은 그리 힘들지 않다. 급히 내려섰다가는 커다란 기복없이 이어지는 능선이 군더더기 없는 자태의 청옥산을 들어올린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정상에 닦인 헬기장은 청옥이라는 고운 이름에 생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청옥산에서 연칠성령이라는 작은 고개까지는 마냥 허리를 낮추는 길. 군데 군데 보호수목임을 알리는 표식이 붙은 주목과 눈맞춤 몇번 하고 나니 연칠성령에 닿는다. 새들도 둥지로 깃들 시간이다. 우리도 그들처럼 눈을 헤쳐 작은 둥지를 만들고 내일이라는 시간의 알을 품는다.

연칠령에서 고적대(1,353.9m)까지는 발끝과 손끝의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다. 마치 돌탑을 쌓아올린 듯한 암릉을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위의 놓임새가 손과 발만으로 오르기에 충분할 만큼 절묘하다. 기분 좋은 긴장 상태에서나 느낄 수 있는 산꾼의 일체감을 만끽할 수 있다.

고적대의 조망도 참으로 빼어나다. 솜씨 좋은 석수가 쌓아올린 돌탑 같은 암릉의 형상 만큼이나.

고적대를 내려서서 무릉계곡으로 하산을 시작한다. 깎아지른 듯한 비탈을 흘러내리며 길을 찾아보지만 눈으로 덮인 발길의 흔적은 희미한 옛 기억 같다.

길 더듬기를 포기하고 산줄기의 흐름을 따르니 지금은 이름도 알길 없는 옛 절터에 닿는다. 이곳에서부터는 계곡을 따라 흐른다. 얼음장 밑을 흐르던 계곡물도 군데군데 얼굴을 내밀고 있다. 겨울이 몸을 틀고 있는 모습이다.

두타산과 청옥산이 어깨를 겯고 골골샅샅이 절경을 빚어놓은 무릉계곡. 달리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과연, 고려 충렬왕 때 율바른 정치를 곧은 말로 이르다 파직 당한 이승휴가 이곳에 몸을 숨기고는 스스로를 두타산거사라 부르며 제왕운기를 지을 법했고, 조선의 명필 양사언이 필적을 남기지 않고는 못배겼을 것 같기도 하다. 또한 용추폭포와 학소대, 호암소, 무릉반석과 같은 가경에 짝한 관음암과 삼화사, 금란정 등도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일러 준다.

산행이 끝나면 저절로 만나게 되는 삼화사는 무릉계곡의 얼굴 같은 절이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11년(642)에 자장 스님이 창건했다는 천년 고찰로, 보물 제1277호인 삼층석탑과 보물 제1292호인 현조노사나불좌상이 있다. 1979년에 쌍용시멘트 공장에 자리를 내어 주고 지금의 자리로 이건한 바람에 옛 모습을 잃은 것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견본모델 가로 340cm × 세로 240cm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포교당)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집무실용 세가지가 있습니다.
※ 장경각 가격은 주문사양에 따른 상담가로 결정됩니다.